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2년 제219호

공군본부

영공방위의 현장



하늘은 우리의 고향,
그리고 또 하늘은 우리의 서울,
떠나서 그리움에 우리 항상 고개돌어
하늘을 바라본다.

⋮

태양은 우리의 것
저 신비의 세계도 우리의 것.
폐지여 오늘 흐르고
내일도 흐를
저 하늘의 정열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뜨거웁다.

조 지 훈

-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 중에서 -

걸프전 참전 1주년 맞아



제5672부대에서 한수석 공군참모총장, 부산시장 및 기관장을 비롯한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걸프전 참전 1주년 기념식 및 참전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한국 공군 수송단은 지난 '81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걸프전에 파견되어 총 3백23회 공수출격으로 병력 및 장비수송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방국과의 유대강화와 국가 위상강화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참전비 디자인은 한임성 부산대 조각과 교수가 맡았으며, 비문은 현역군인이자 시인인 양하운 중사가 썼다.





■ 표지화: 곽영란
(프린츠 Designer)

권두언정훈갑 2

논문 및 군사지식

Patriot Missile System한문섭 5

기상이 레이더에 미치는 영향이흥규 13

지휘 성공 사례이원필 21

한국공군의 위상과 당면과제이선희 41

기획 연재

철프전쟁의 비화김은기 59

전투상황실 속의 법무관들유재풍 77

조직 관리

공군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가 92

업무능력 15배 향상시키는 업무개선 포인트 15 93

Cockpit에서 바라본 세계

최대출격, 최대 비행김해룡 95

F-15를 잡다서구영 97

1991년 4월 어느날김대중 103

특집화보 / 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기획특집 / “잊을 수 없는 나의 동료”

그리운 친구여알하운 107

잊혀지지 않는 나의 동료송경호 109

보배 같은 선물이희호 113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권승택 118

1-81박준호 120

한밤에 걸려온 전화문종진 126

갈매기 조나단홍순택 129

우정의 의미홍준표 132

시사 안테나 /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변화 135

만화 / 즐거운 휴가고석환 139

서평 / 일본인은 왜 사과를 잘 하는가.....	143
----------------------------	-----

비행대대 탐방 / 115대대를 찾아서	145
----------------------------	-----

생각하는 코너

눈	152
---------	-----

‘소원’과 ‘대원’의 반지를.....	박 창 규 153
----------------------	-----------

여유있는 삶

한국 배류기.....	왕 봉 련 160
-------------	-----------

삼 살	서 신 원 164
-----------	-----------

빛 바랜 크리스마스 카드.....	박 홍 부 166
--------------------	-----------

우리 것을 찾아서

전통의 향취. 문배주.....	169
------------------	-----

신위를 향해 설 배.....	173
-----------------	-----

교 양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왕 연 중 177
-----------------------	-----------

김재와 이상재의 장기 대국.....	184
---------------------	-----

지아비를 위한 기도문	186
-------------------	-----

삼림록이라면 여기가.....	187
-----------------	-----

VDI 중후군	190
---------------	-----

민간호법	194
------------	-----

브레이크 호일.....	199
--------------	-----

문 예

□ 기행문(호주)

광활한 미지의 대륙.....	서 홍 교 203
-----------------	-----------

□ 창작 동화

BB 특공대.....	유 성 종 213
-------------	-----------

□ 수 필

우리들의 옛날.....	전 호 명 220
--------------	-----------

천사와 악마	최 태 근 224
--------------	-----------

반 남	신 경 수 227
-----------	-----------

애독자 카드 / 삼행시, 200자 세언, 백지원고 정탁서	230
---------------------------------------	-----



'92 RED FLAG 훈련참가



미국 네바다주 넬리스공군기지(NELLIS AFB)에서 실시된 '92 RED FLAG(실전공중훈련)에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 관제사 등 공군의 핵심전투요원을 파견 차세대 전투기로 채택된 F-16I를 이용한 실전적 공중전술훈련을 실시했다.

미공군, 미해병, 미주 방위군을 비롯하여 한국, 영국, 독일 등 4개국이 참가한 이 훈련은 사적장지역에 적정레이더, 유도탄, 대공포를 배치하고 가상적 임무수행 전문비행대대(AGGRESSOR)가 우군기에 공중공격을 감행하는 등 지상 및 공중위협 상황에서 요격 공격은 물론, 가상적기와 공중전과 유도탄, 대공포 회피기동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종료시 표적공격 성공여부와 적기 격추 및 우군기 피해 등을 전산 장비로 정밀분석함으로써 훈련성과를 측정한다.

공군은 지난 79년부터 총 6차례 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F-4, F-5 등 총 3백여회의 비행을 실시하여 왔는데 올해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16I로 훈련에 참가해, 미래 지향의 훈련을 시행했다.



▲ 현·미 양국의 조종사가 나란히…….



◀ 비행에 앞서 기체점검을 하고 있다.

▼ 이번 RED FLAG에 참가한 미공군의 A-10 신더볼트기



부 대 동 정



◀ 공군사관학교 제40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노태우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3부요인과 내외 귀빈,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되었다.('92. 3. 4)



◀ 崔世昌 국방부장관은 공군본부를 초도순시하고 한반도 영공방위를 위한 대비태세 현황과 전력증강사업 등 공군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계참모를 격려했다.('92. 2. 24)



◀ 한주석 참모총장은 프랑스 공군 참모총장 뱅상라나타(VINCENT LANATA) 대장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92. 3. 23)

▶ 공군본부에서는 김정일 전 국무총리(초대 참모총장)를 비롯한 역대 공군 참모총장을 초청 간담회 및 강연회를 열었다. ('92. 2. 27)



▶ 한주석 공군참모총장은 필리핀 공군사령관 로벤 캄포 아바디아소장을 접견하고 상호 군사협력증진에 대해 논의('92. 3. 31).



▶ 커티나 미 우주사령관 도널드 커티나(Donald J. Kutina)는 공군본부를 방문 동북아안보정세 및 우호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92. 1. 10).



부 대 동 정



- ◀ 제89기 공군사관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식이 한주석 참모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되었다. (92. 2. 1)



- ◀ 현역장병 및 군무원들의 복지시설로 개장된 서울 보라매의 집에서는 면세품과 111개 업체의 24,795 품목이 갖추어져 있다.



- ◀ 군가족의 사기를 높이고 상호간의 신뢰와 일체감 형성을 위한 건전가요부르기를 계룡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주 1회).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2년 제219호



參謀總長統率方針
必勝의 精銳空軍되자
必勝의 戰備態勢完備
實戰的 教育訓練強化
創意的 指揮管理提高

공군본부



군인의 명예

정훈감 대령 홍 종 도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현상을 보면 과거에 비해 자기의 수장을 내세우는 경주가 부쩍 늘어가고 있다.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달너는 평등하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던 여성들이 이젠 여성살상위사죄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노사간에도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동한 관계로서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각종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선진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한 후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후진국일수록 구성원 개개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의 이행보다 권리를 앞세우고 그가 속한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까지 서슴치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이 갖는 의무의 선정함과 권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의무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스스로의 의지로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권리는 자기가 요구하기 전에 사회조직 또는 주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 또는 특수한 집단 이익추위에 의해서 의무는 무시되고 권리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명용주의적 심리에 의해 사회 전체의 기강마저 흔드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다.

군대에 있었던 한 장교의 양심 집언을 보면서 과연 그 장교는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행위를 하였는가? 또 그는 스스로 장교로서 지켜야 할 명예를, 그리고 자기의 동료 전우나 부하들에게 정말로 떳떳한 행위를 하였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과연 군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가 하는데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제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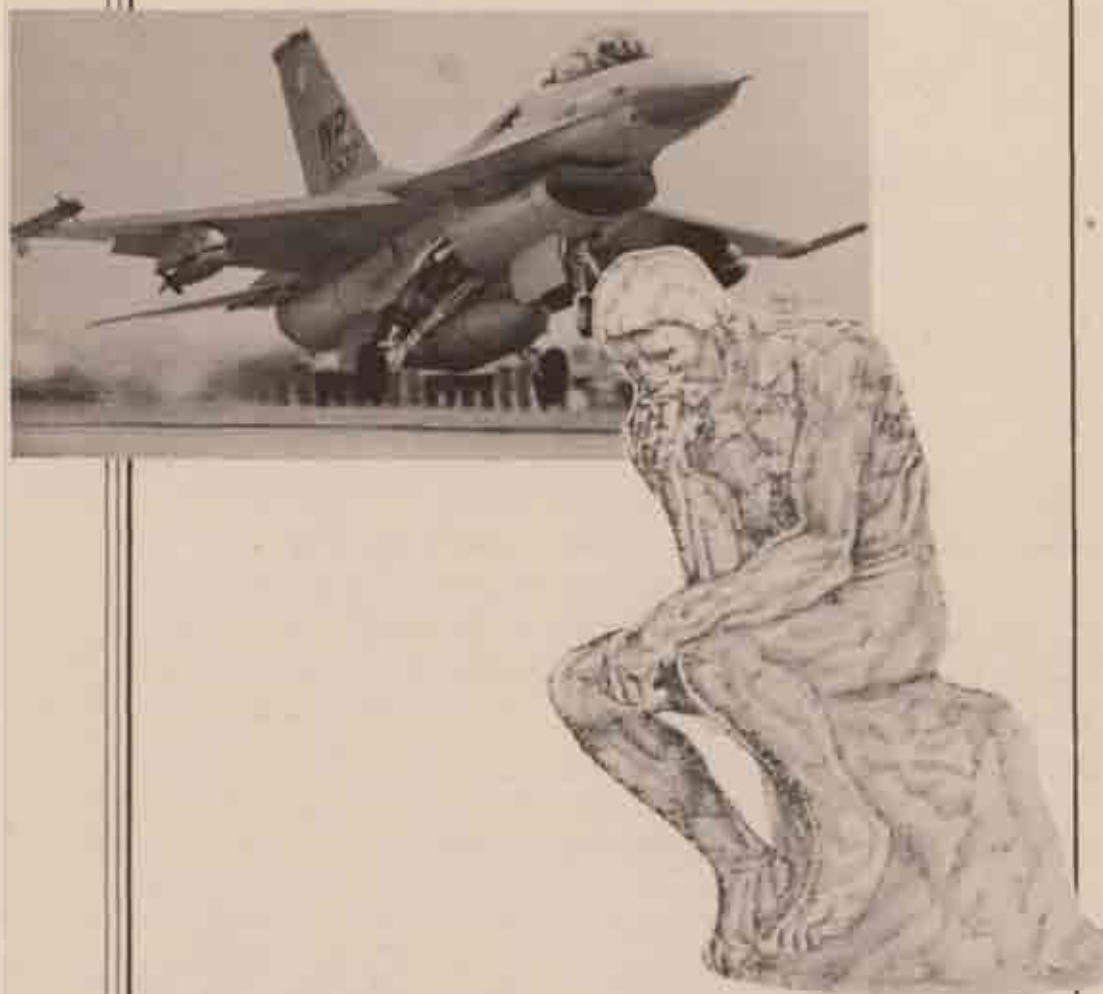
군인도 군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국민과 똑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개인적 정세를 위한 부수 직업 등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특별한 권리도 부여해주고 있다.

군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란, 개인의 열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국가가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일반 국민에 앞서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다가 국민보다 먼저 전사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군인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란 복무 중 전투에 나아가 전사하는 것이요, 다음의 가치는 주어진 임무에 희생을 다하다가 순직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명예롭게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인이 이러한 가치를 숭상하고, 방설되지 않고 이 길을 가게하는 방법은 국민의 군대인만큼 국민 속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회적 가치체계를 확립해 주는 것이다.

훌륭한 군인,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군인은 군대 내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군인이 보호되고 군인의 특권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논문 및 군사지식



Patriot Missile System



일등상사 한 문 섭
(교 육 사)

GULF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첨단병기들이 각광 받았으나 그중에서도 Patriot missile의 역할에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리라 생각한다.

수많은 뉴스 매체를 통하여 Patriot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해 왔으나 궁금증을 더해 주인자에 「군통신전자협회(AFCEA)」 주최의 장비전시회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역자의 주의를 제일 많이 끌었던 장비가 Patriot였고 또한 소개해자를 구할 수 있었다. 그것을 번외 소개함으로 써 방공포를 인수한 우리 공군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Patriot는 처음에는 미육군 방공 System으로 채용되었으며, 목표물탐지와 추적을 위해 전자적 레이더탐지 방식을 사용하여 이 레이더는 완벽한 인공지능 제어와 Digital 처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자유세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System 중에서 반응속도, 화력, 정밀도가 최고로 진보되고 효과적인 System이다. Computer에 의해 제어되는 Phased array anten-

na는 특유의 높은 Intercept 기능과 함께 다중동시 Engagement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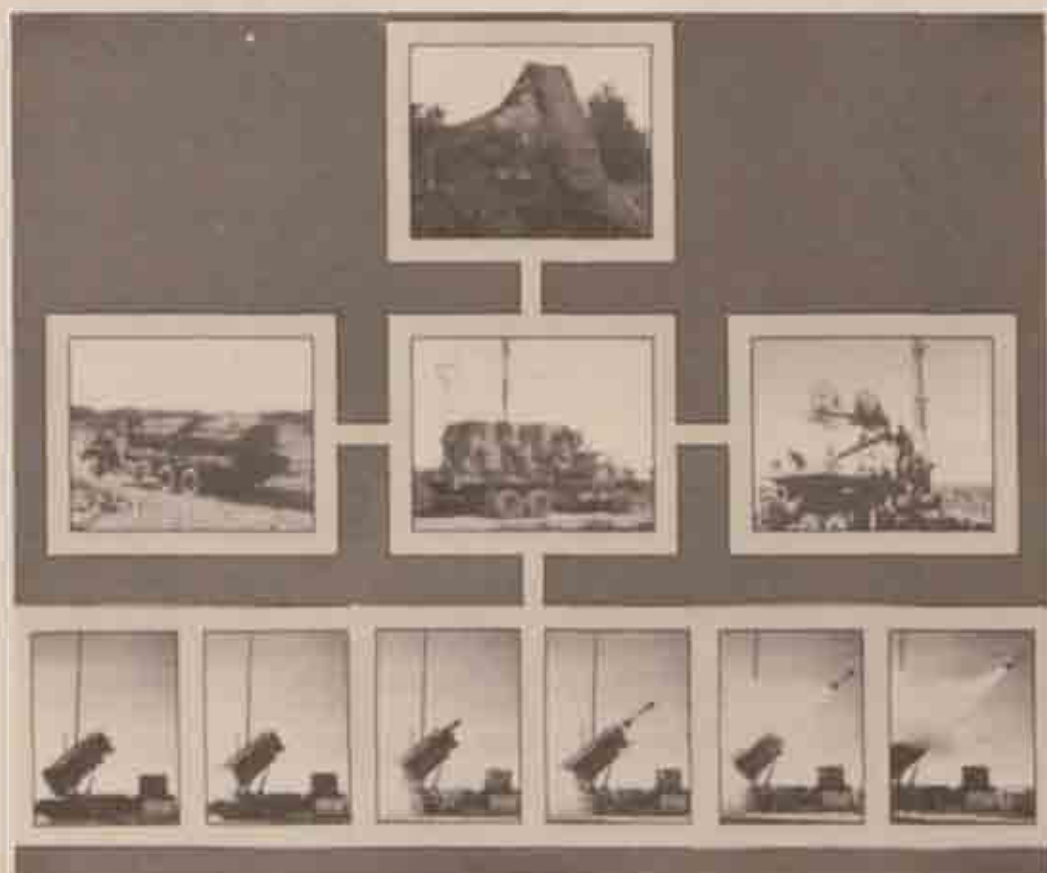
이 자동화될때는 고도의 화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Patriot는 모든 기상상태와 극심한 전자기적 상황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그의 신뢰도와 성능은 요구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실시간 Software 고장진단 기능을 갖춘 자체설치 시험장비는

Patriot Missile System

Fault 탐지뿐 아니라 고장개소 크리고 부품교환절차까지도 알려준다 이 동형 Patriot는 차량에 적재할 수 있으며 두가지 기본형태 즉, Fire Unit와 Firing Battalion으로 구분되고, 이는 전술적 요구와 Firing doctrine을 충족시키기위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한다.

Patriot의 기본 동작요소는 Fire Unit이며 주요 구성요소는 Radar, Engagement Control Station 그리고 8개의 원격조절되는 발사대(Launching)이며 이는 필요에 따라 16개까지 증가시킬 수도 있다.

기타 보조장비로는 전력공급차량으로서 Engagement Control Station,



Patriot Missile System

그리고 Antenna Mast Group 차량을 위한 전원을 공급한다. UHF Antenna는 다른 Fire Unit와의 다중 통신을 위해 사용하며 전투상황시 코드의 저위통신 수단이 된다. 모든 장비들은 이등에 있지 Truck 또는 Trailer에 적재된다. 전투상황하에서 Fire Unit의 주요장비는 단 3명의 병사

에 의해 작동 가능하다.

Patriot의 일반적인 구성은 대대(Battalion)이며 지휘부(Headquarters)와 중대(Headquarters battery) 그리고 6개까지의 Fire Unit로 구성된다. 지휘부는 대대를 위한 명령, 작전통제, 그리고 행정, 보급지원 등을 수행한다. 대대급의 주요 구성장



Patriot Missile System

비는 기본 Fire Unit에 대하여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ral (ICC), Communication Relay Group (CRG), Electric Power Unit (EPU), 그리고 Antenna Mast Group (AMG)를 포함한다.

ICC는 대대 작전을 위한 화력지시부이며 모든 Fire Unit 제어와 함께 다른 근접대대와 상위 지휘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지형이나 거리 등의 요소로 인한 통신의 어려움은 CRG가 있어 극복할 수 있게 하며 CRG는 ICC와 ECS 간의 통신을 가능케 한다.

대대급 화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 Fire Unit 간의 협조체계는 ICC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써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 가능케 한다.

주요 구성품별 기능설명을 다음에 기술해 보기로 한다.

○ Radar Set

레이더는 감지, 목표물탐지 추적, Missile 유도기능을 수행하며 다기능 식별 방식을 채택한 C-Band phased array 레이더이다. Radar 작동은 비화된 Digital cable link를 통해 Engagement Control Station에 의해 제어되고 감시된다.

Radar Shelter는 trailer위에 설치 있으며 Signal processor, Control unit, Antenna, Transmitter, Receiver 그리고 IFF를 포함하는 전자구성품들을 내장하고 있다. Antenna array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들은 외부환경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Shelter 내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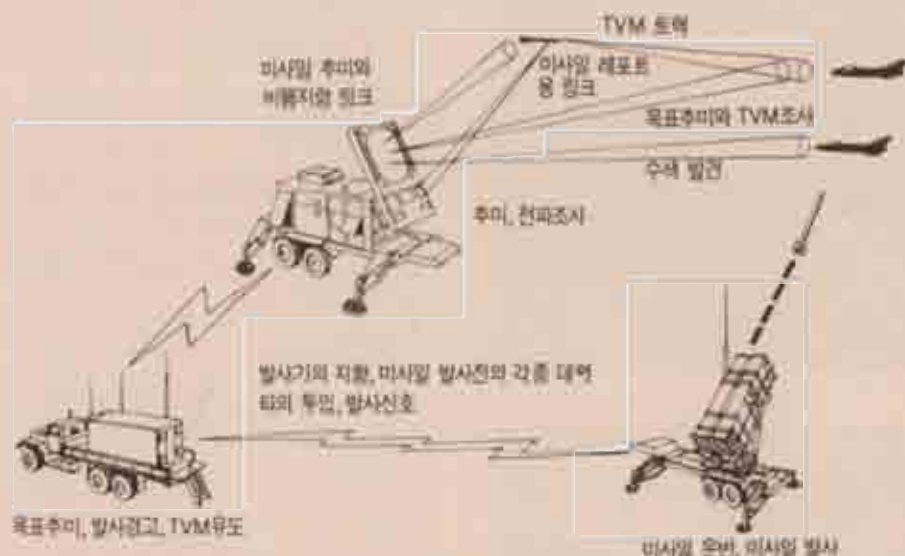
Antenna는 5,000개 이상의 위상 전이요소(Phase shifting element)를 갖춘 Main array와 몇개의 보조 Array 그리고 TVM과 IFF 동작을 위한 별도의 Array를 갖추고 있다.

작동하는 동안 Main array는 고정된 Boresight 고도각으로 세워져 있다.

○ Engagement Control Station (ECS)

ECS는 Patriot Fire Unit을 위한 지휘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시각적 전시와 제어를 함으로써 작동수가 Computer 제어 System과 임종할 수 있게 한다. 이곳은 공중전하에서 Fire Unit 중 유일하게 사람이 체류하는 곳으로 모든 화력중대를 제어하고 명령하는 곳이다. 무기통제컴퓨터 (Weapons Control Computer)는 ECS의 실행부이며 System의 주요

Patriot Missile System



계산기능과 제어부와 전세기, Radar Set와 발사대간의 연결기능을 수행한다.

목표를 평가를 통하여 발사결정, 무기할당 기능을 수행한다.

○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ral (ICC)

대대급의 Patriot system을 위한 명령부(Command Post)는 ICC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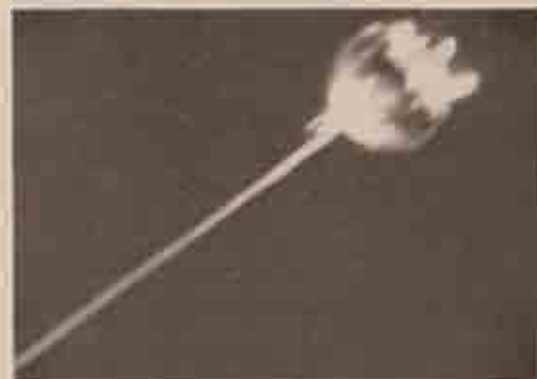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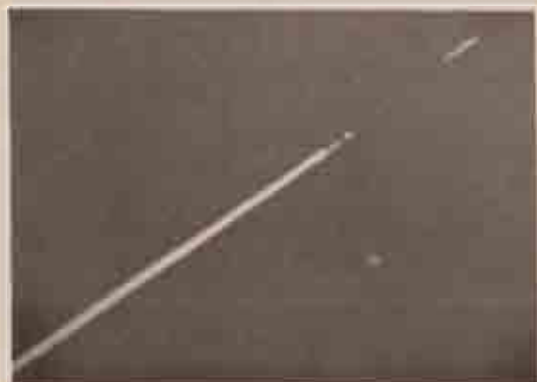
ICC는 근접 Center와 개별 Patriot Fire Unit 또는 중대간의 연결역할을 수행한다. ICC shelter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ECS와 동

일하며 주요 차이점은 ECS가 레이더/무기 통제 결합장비를 갖고 있어 레이더를 Monitor하고 제어하며 발사대와 연결을 위한 VHF Data Link Terminal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ICC는 Modem을 갖고 있어 고도의 지령통신을 가능케 한다.

ICC의 전투지휘소(Battle Management/C²)로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Patriot ICC는 대대급과 여단급에서 HAWK와 Patriot 방공장비의 제어에 매우 효과적인 공중전 지휘소이다. ICC는 Track 입력, Track

Patriot Missile System



식별, 위협평가(Threat assessment), 격추 Monitoring 그리고 또다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방공사령관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ICC를 HAWK 또는 Patriot 대대를 위한 화력지휘부로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야군항공기보호, ECM 상황하에서의 방어작전능향상, 감시구역 증대등이 있다. 여단급에서 ICC 채용시에는 전투지휘 집중화와 Patriot, HAWK 와 대대급 간의 정보교환(분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Antenna Mast Group (AMG)

AMG는 ECS, ICC 그리고 CRG와 관련된 UHF 통신장비의 수중에 사용되는 Compact한 이동 System이다. 고출력 증폭작용, 비파괴 음성파 정보(Data) 장비를 갖춘 AMG는 UHF system이 Patriot 동작을 위해 신뢰성있는 통신을 할 수 있게 제공한다.

○ Communication Relay Group(CRG)

Truck에 설치있는 CRG는 Patriot 대대를 위한 무선통신중계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ICC와 그 지령

Patriot Missile System



제조 그리고 다른 Fire Unit간에 다중경로, 비파, 발방정보중계를 가능케 한다. CRG에서 음성과 정보 전송 능력은 거의나 지형지상에 상관없이 극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 Electric Power Plant(EPP)

Electric Power Plant는 Radar와 Engagement Control Station을 위한 일차 전력원이다. 이는 처음 설치 조정후부터는 ECS에 있는 작동수에 의해 감시, 제어회로로 사용이 상주할 필요는 없다. Truck위에 설치된 EPP의 주요부품으로는 터빈발전발전기, 연료통, 감시와 제어를 위한 전력분배판이 있다.

○ Launcher and Missile

Trailer 위에 장착된 발사대는 원격제어되며 원거리 자동전원장치를 갖춘 이동형 장치이다. 방위(Azimuth)로 이동(수평이동)가능하며, 발사를 위해서 발사되는 고정된 발사위치에서 들어올릴 수 있다(elevate). 발사정 조준이 불필요하므로 회전부품은 없다. 그 작동은 ECS로부터 VHF terminal data link를 통해 오는 제어신호에 의해 수행된다. Missile은 발사대 용거속에 위치하며 발사대 용거는 수출과 저장 용기로도 사용된다.

지금까지 Patriot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 장비의 성능을 Gulf

Patriot Missile System



전을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정밀한
체제를 운용 조작하는 기술이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 우리가 Patriot system을

운용하게 된다면 인적자원의 훈련관리
부분에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
이다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기상이 레이더에 미치는 영향



이등상사 이 훈 규

(제 2583 부대)

1. 머리말

MCRC(중앙항공 통제소)나 RADAR 사이트에서 항공기 포착관제로 인하여 통제자와 정비시간에 감응충격하는 환경을 가늠 볼 수 있다. "이 지점이 고도에서는 항공기가 포착되어야 하는데 안잡히는걸 보니 원가 RADAR에 이상이 있다"하며 포착범위를 펼치면서 항변하는 이와 "장비는 출력을 비롯한 모든 계가치가 정상이므로 이것은 천적으로 이상(異常)기상 현상 때문이다"라고 애거하는 환경들을.....

20세기 현대 전지전의 출아로서 RADAR는 전 세계의 방공망 및 무기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대과학으로도 정확히 풀지 못

하고 있는 기상의 변화가 RADAR와 전쟁에 영향을 끼쳐 하필 이상(異常)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서술함으로써 이에 준사하는 모든 사람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본 론

가. 마이크로파와 밀리미터파(이하 전파라 칭한다)는 현대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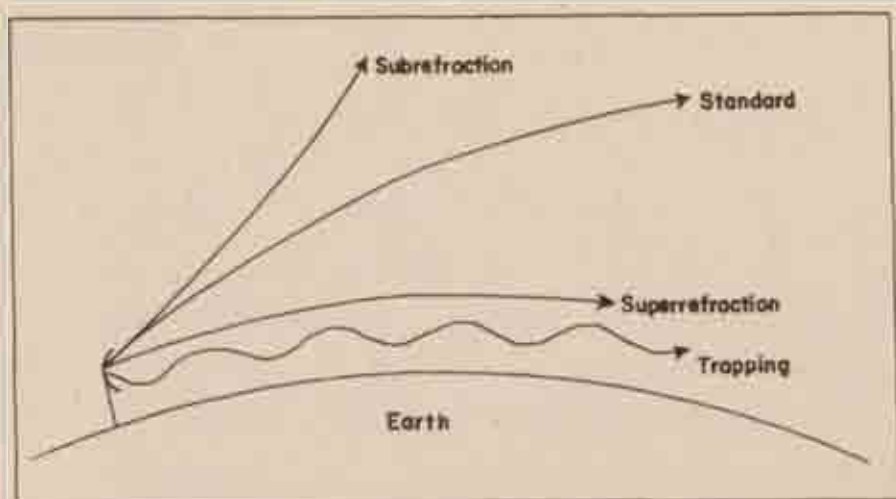
이 전파가 대류권의 불규칙기단(이하 DUCT라 칭한다)을 통과할 때 많은 이상(異常)현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표준대기 상태에서 온도, 기압, 습도는 고도상승에 따라 차츰 감소하는데 이러한 표준상태에서의 전파 굴절률을 감안하여 RADAR의 포착능

기상이 레이더에 미치는 영향

의 또는 로차면위도를 작성한다.

그러나 이런 표준대기상태는 지역, 계절 심지어는 일교차에 따라 달라지게

변하여 DUCT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림과 같이 3가지 형태의 이상(異常)전파가 생긴다.



(1) Subrefraction (저굴절)

굴절률이 고도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정상적인 전파전행과 반대로 굽는다.

파이버나 기타 통신장비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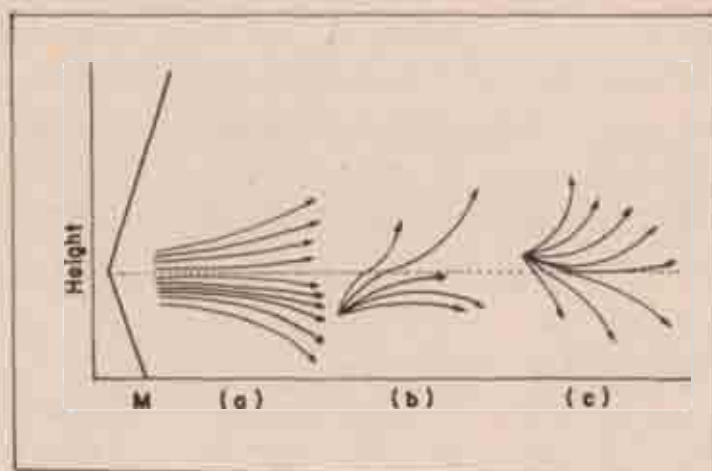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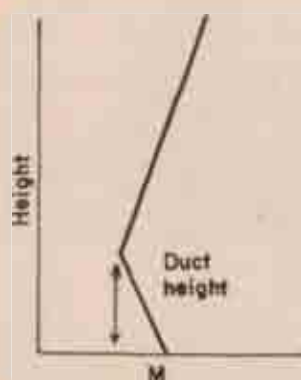
(2) Superrefraction (초굴절)

굴절률이 고도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정상보다 심하게 아래로 굽어 전파복사평위를 확장시키나 이에 따른 Clu-

ter가 많아지며 빈번히 발생되는 현상이다.

(3) Trapping

굴절률이 고도증가에 따라 심하게 감소되어 전파가 이 기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까지 나아가 전파통달거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세반 통신장비 운용상 많은 장애를 일으키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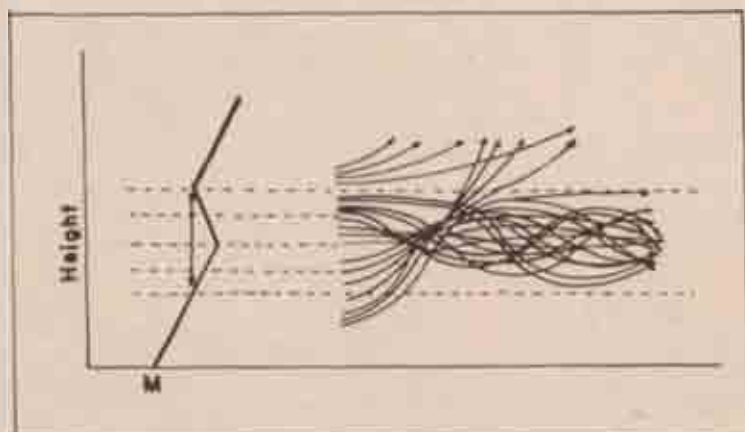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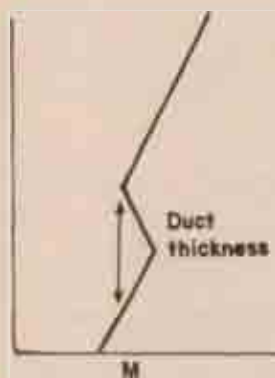
나. 대기권의 DUCT

3가지 일반적인 DUCT형태가 있는데 다음 그림처럼 굴절단면도를 단

순화시켜 나타낼 수 있다.

(1) Evaporation Duct

트럼근처에서 굴절률이 "—"일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Evaporation



Duct이다. Duct 안에서 출발한 전파중 Duct의 경계층과 직행에서 떨어진 예각으로 가는 전파는 Trapping 된다. Trapping이 발생하는 입사각오는 전파의 파장, Duct의 두께와 감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a)는 Duct 높이에서 수평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진행을 나타내며,

(b)는 지표면에서 Duct의 여러 각도로 발사되는 전파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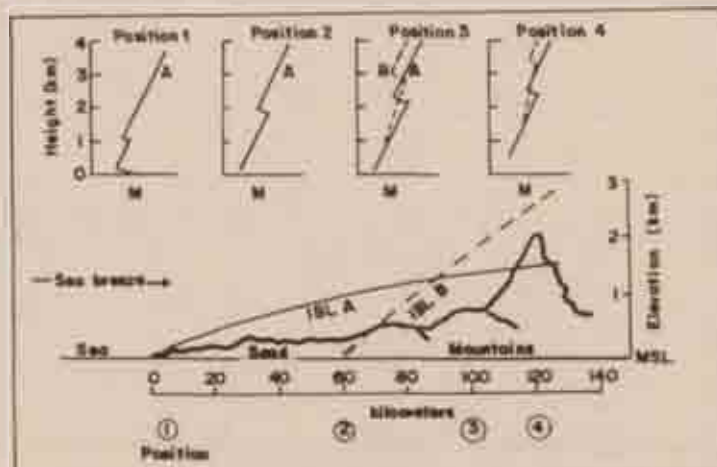
(c)는 Duct 위쪽에서 아래로 나아가는 전파의 진행을 나타낸다.

이 Evaporation Duct는 수온이 상승하는 수면 위에서 거의 규칙적으로 발전되며 이는 수면근처에서 온도 반전(Inversion)에 의해 야기되는데

수분의 증발에 의해 높은 습도를 이루는 수면근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폭지표면 위에서도 Evaporation Duct (또는 표면 Duct)가 형성되는데 이는 물체의 공기보다 저표면으로 일부가 빨리 식기 때문에 생기는 낮게 깔리는 강한 습기(제1안개) 때문이다. 또 습도가 낮을 때 극강한 한낮의 온도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적으로 하가온 폭지표면 위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주위의 지면으로부터 재복사되는 열로 인한 공기의 온도상승 때문이다(해: 검은 아스팔트에 둘러싸인 콘크리트 활주로 위).

(2) Elevated 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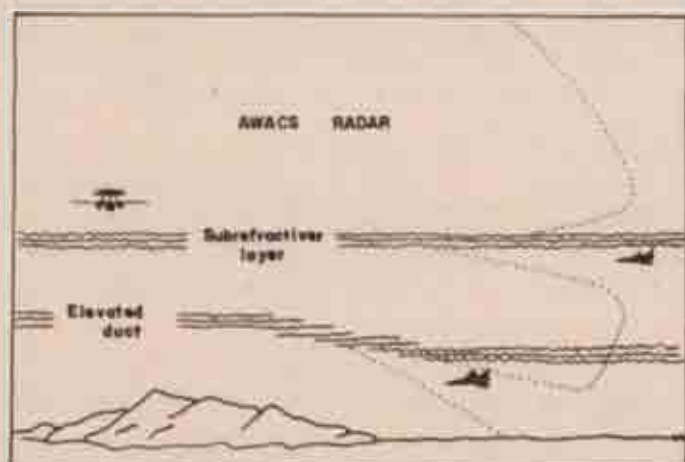
Elevated Duct는 높은 곳에서의



온도반전(Inversion)에 의해 야기된다. 이는 그 지역으로 더운 공기가 들어 오거나 고기압 중심부 공기침강으로 인해 주로 생긴다. 이 Duct에 수

평이나 얇은 해적으로 진행하는 전파는 Trapping된다.

(3) Surface based Elevated 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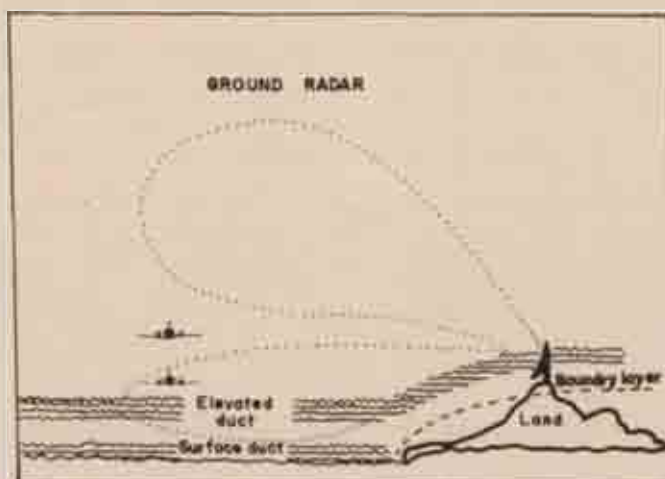
표면의 굴절값이 제1굴절점보다 낮고 제3굴절점보다 높을 때 일어난다. Duct 안의 “+”기울기에 수평으로 들어가는 전파와 “-”기울기에 얇은 해적으로 들어가는 전파는 Trapping 된다.

(4) Elevated Duct의 경계층 변화

일반적으로 전파가 해안선을 통과할 때 예상전로를 많이 벗어난다. 이는 해안지역의 온도와 표면기압도가 대륙

의 순환이나 습도에 영향을 끼쳐서 전파의 굴절지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해풍과 육풍은 육지가 바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열됨에 따라 발생하는 큰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데 이 온도차가 수평적으로 발달되다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릴만큼 충분히 발달하면 공기의 이동이 생긴다. 해풍이 부는 동안 차갑고 습한 바닷이 해안선 건너 따뜻한 육지공기 아래로 들어가서 해안 근처에 그림과 같은 불규칙한 Duct



가 형성되어 전파전로를 빗나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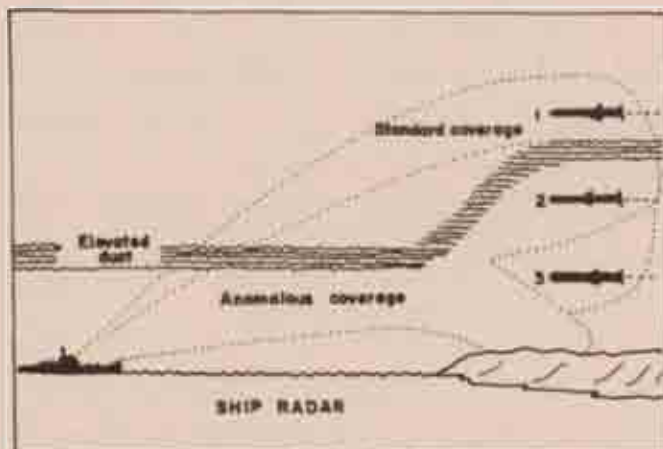
다. Duct가 레이더포착에 미치는 영향

전파가 상승된 굴절기층(Elevated Refracted Layer)에 접근하거나 그 기반을 통과할 때 변칙적인 전파가 일어나는데 다음 그림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항공기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중 일부는 위로 상하게 휘어져 Subrefracted Layer 아래에 coverage

hole을 만들고 그림의 전파는 Elevated Duct와 겹쳐져 크게 아래로 굽어져 Trapping 되다가 Duct의 급격한 경사때문에 Trapping된 전파중 많은 양이 이탈되어 또 다른 Hole을 만들어 포착가능 Target을 놓치게 된다.

지상설치 레이더는 많은 전파가 Elevated Duct에 의해 잡라져서 커다란 Coverage hole을 만든다. 좌 열하는 태양에 의해 상승된 기온은 굴절기층을 일시적으로 변동시키는데 이 때문에 Elevated Duct가 상하



로 이동되어 포착범위가 하루에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선박 RADAR의 Beam Pattern은 Elevated Duct 때문에 심하게 잘라져 아래로 굽는다. 이 때문에 높은 고도의 Target은 잡히지 않고 또 많은 Clutter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Coverage Hole과 Clutter 외에 "고도오차"라는 심각한 Error가 야기된다.

원래 의도했던 전파전행 방향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Target을 잡을 수도 있으나 Radar 스크린에는 원래 의도했던 방향, 그러나 틀린 고도에서

Target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흔히 예기하는 고도오차이다.

3. 맺 음 말

불규칙한 전파의 진행은 탐색Radar, A/C 착륙장치, 항법 및 추적장치, 화력통제, ECM, ECCM, 신호정보 운용에 영향을 끼쳐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 불규칙한 전파전행을 야기시키는 Duct를 정확히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Radar 포착범위도는 표준대기상태를 기준으로 Map Study에 의해 작성된 이론상 Coverage 이므로

기상이 레이더에 미치는 영향

장마에 이상이 없는한 포착범위도와 실제 포착상의 차이는 기상의 변화에 의해 항상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이제 더 이상 서두와 같은 일로

인한 전쟁은 없으리라 믿으며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우리 모두 화합하여 항상 앞서가는 선진공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nomalous Microwave Propagation Through Atmospheric Ducts"

- James W. Sari, Harvey W. Ko, and Joseph P. Skura -

"Radar Handbook" - Merrill L. Skolnik -



指揮成功事例



중령 이 원 필

(제 8785부대)

= 目 次 =

1. 머리말
2. 部隊의 特性
 - 가. 個人特性
 - 나. 環境特性
 - 다. 地域特性
3. 指揮管理 模型의 選定
 - 가. 指揮方針
 - 나. 指揮管理模型 設定
4. 細部指揮管理活動
 - 가. 個人指向의 指揮活動
 - 나. 目標指向의 指揮活動
5. 指揮管理活動 進行上의 滋害
要因 및 解決方案
6. 遂行한 國家觀, 使命感 確立
7. 맺 음 말
- 參 考 文 獻

1. 머리말

空軍의 野戰場 안은 當部隊는 完備한 空中監視와 裝備의 無中斷 運轉을 基本 원칙으로 삼고 있는 레이더 사이트 部隊로서 全國 各地에 散在해 있는 여러 레이더 사이트 部隊들 中에서 自然環境面에서 가장 劣惡한 部隊中的 하나이다.

本人이 1990年 12월에 當大隊에 大隊長으로 赴任한 以來 1년동한의 勤務期間은 暴雪, 暴雨, 零下 20도를 오르내리는 세찬 바람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으며 氣候로 인한 將兵들의 나태, 편협함을 깨우는 努力의 結果이었다.

이 過程에서 本人이 平素 생각하고 研究해오던 科學的 指揮管理技術을 國

用한 結果 주먹구구式이고 對症의인 指揮法보다는 훨씬 더 効率的이라는 事實이 結果로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適用해왔던 指揮管理技法를 紹介함으로써 여러 指揮官들이 參考하여 指揮管理上의 試行錯誤를 줄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未竟하나나 本人의 經驗을 적어본다.

2. 部隊의 特性

많은 部署는 저마다 各其 試練된 任務, 地域的 要因 등에 의해 獨特한 特性을 갖기 마련이다. 흔히 몸으로 體驗하며 느끼는 것으로 지나치게 쉬운 部隊의 特性을 客觀化시켜 區分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LEWIN¹⁾이란 心理學者의 說明에 귀기울일 必要가 있다.

여기서 人間行爲라는 抽象化된 心理學的 概念은 하나의 任務部隊가 單一體로 다루어지는 狀況에 適用되는 것은 큰 無理가 없을 듯 하다.

LEWIN의 區分을 適用한 當 部隊

의 特性은 다음으로 要約될 수 있겠다.

가. 個人 特性

LEWIN의 區分에서 個人特性은 部隊를 이루는 部隊員의 特性으로 評價된다.

當 部隊 大部分의 將兵들은 空軍에 入隊하면서 居住地에 가깝고 여러 가지 좋은 施設들을 갖추고 있는 BASE 勤務를 希望하였으나 民間으로부터 隔離되고 氣候 環境도 극히 劣惡한 當 部隊로 配屬되어 基本的으로 相對的 剝奪感이 평배해 있었다.

또한 階級別 學力差異는 和合的인 部隊 氛圍氣의 維持에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고 있었다.

各 階級別 學力과 出身地域에 따른 意識上의 特性들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整理되었다.

(1) 階級別 學力分布 및 出身地域 分布

註 1) Lewin의 人間行爲公式 $B=f(P,E)$ 에 의하면 人間의 行爲는 個人特性(PERSONALITY)과 環境要因(ENVIRONMENT)의 相互作用(FUNCTION)에 의해서 나타난다.

정 도 / 구 분	단기병	사 병	하사관	장교(준사관 포함)
고 출 이 하	98%	37.5%	81%	11%
대 재 이 상	2%	62.5%	19%	89%

그림 1. 階級別 學力分佈

	강 원	호 남	기 타
하 사 관	42%	18%	40%
병	11%	1%	88%

그림 2. 階級別 出身地域 分佈

(2) 短期士兵의 特性

短期士兵은 隣近地域 2 側面의 資源으로서 山間 僻壤地에 居住하므로 出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家庭 環境의 劣勢으로 거의 大部分이 高卒以下로 學力, 階級에 대한 自意識이 극히 강한 狀態에서 部隊에 대한 所屬感과 忠誠心보다는 “苦生만 하는 短期兵”으로 認識하고 있어서 事故發

生の 潛在的 要因이 되고 있다.

(3) 士兵의 特性

高學力, 他地域 出身이 大多數로서 집과 떨어진 部隊에서 勤務한다는 數北感이 內在되어 羈帶한 業務 遂行의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4) 下士官의 特性

高卒以下가 81%로 學力에 제한 劣等感을 基本的으로 가지고 있다. 또

指揮成功事例

한 “저고지 勤務後 希望部隊 勤務可能” 原則²⁾에 따라 當 部隊에 志願하고 勤務하고 있는 湖南, 江原地域 出身者(61%)들이 多數를 占하고 있는 緣故로 主人意識이 缺如되어 部隊業務에의 主體的인 參與를 거리고 機會主義的이고 被動的인 實情이었다.

나. 環境 特性

極限의 氣溫, 暴雪, 強風 등의 最高로 劣惡한 自然環境은 勤務條件의 維持를 위한 努力을 最大로 요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強風과 零下 2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部隊施設 維持를 위해서 많은 努力을 해야 한다.

이러한 劣惡한 環境 要因은 精兵들의 心性에 至大한 影響을 미쳐서 나태하고 被動的이며 폐쇄적인 性格을 만들어서 圓滑한 部隊業務遂行에 決定的인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劣惡한 環境條件은 다음의 圖表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 후 조 건	
○	동계 6개월간 영하 1도에서 30도 이하
○	총 강설 및 강수 일수 66 + 150 = 216 일
○	강풍 일수 309 일
○	1년 중 백결일수 150일 미만

註 2) 空規 2-33/30 補版1의 第4條에는 “僻高地 最低勤務 期間을 1년 6개월로 한다”라고 規程되어 있다. 또 空規 2-33 僻高地 人事管理의 第8條에는 “僻高地 管理部隊 任期滿了者는 部隊間 交流에 있어서 本人이 希望하는 部隊에 最優先 考慮함을 原則으로 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다. 地域의 特性

部隊家族들이 살고 있는 官舍地域은 고령지 産所, 全國에 供給되는 米穀과 生産地로서 全國 最高 農家所得 地帶이다. 또한 OQ의 조트가 隣接해 있는 △△山 觀光開發의 中心地인 京城都市로서 夏季 避暑地 및 冬季 스키장이다.

이같은 環境은 一般的으로 軍 家族들이 地域의 文化, 經濟를 先導해 나가는 餘暇 軍 駐屯地域과는 달리 官舍 家族들에게 相對的인 經濟的 壓迫感을 形成하게 하여 軍人家族으로서의 自負心과 誇持가 缺如되어 있으며 部隊에 대한 關心보다는 外部志向의 性向을 보이므로 인한 官舍 家族間の 團結心 缺如와 部隊員들의 士氣振作에 큰 阻害要因이 되고 있었다.

3. 指揮管理 模型의 選定

가. 指揮方針(統率方針)

本人이 當 部隊에 赴任하여서 任務型 實戰的 教育訓練을 통한 完備한 空中監視를 圓滑히 遂行하기 위해서

設定했던 指揮方針으로는

첫째, 任務指向의 “尊嚴氣” 創出으로 完備한 空中監視 및 裝備 無中斷 運營 保障

둘째, 持續的인 環境改善으로 心性을 醇化하고 成就動機 및 部隊 所屬感 賦與

셋째, 一對一 人間關係 維持로 部隊 團結心 涵養

넷째, 軍宗、敎誨, 主任士士 活動 強化로 兵營生活 明朗化 및 精神戰力 強化

다섯째, 對民關係 改善을 통한 國民의 軍隊로서의 軍 이미지 改善 등을 들 수 있다.

나. 指揮管理 模型設定

完備한 空中監視와 裝備無中斷 運營이라는 基本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指揮管理를 科學적이고 體系的으로 해야 할 必要性이 있었다.

이에 따라 部隊 構成員의 能力과 士氣를 高揚시켜 部隊 目標을 圓滑히 遂行하게 하는 리더십 部門들 間的 關係를 模型으로 圖式化해 보았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指揮管理技法이 導出

되었다.

(1) 리더십, 士氣의 定義

軍에 있어서 리더십은 “共同目標을達成하기 위하여 部下들의 服從, 信賴, 尊敬 및 忠誠스러운 協助을 얻을 수 있도록 共感을 불러 일으키고 指導하는 技術”³⁾ “指揮官이 効率的인 部隊任務 完遂를 위하여 部下들로 하여금 自發的으로 全力을 發揮하도록 感化, 心腹시키는 一體의 活動과 技術”⁴⁾로 定義된다.

士氣는 “個人 또는 集團의 精神狀態로서 自身の 犧牲을 考慮하지 않고 共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게 하는 無形의 精神的인 힘”⁵⁾, “集團構成員들이 어떠한 苦難이나 逆境에 처해서도 集團目標의 達成을 위한 강한 모티베이션과 集團에 影響을 주는 要件들에 대한 一體的인 滿足感으로 構成되어 있

고 成員들이 共有하고 있는 心理狀態”⁶⁾라고 定義된다.

따라서 리더십을 통하여 士氣를 振作시켜 줌으로써 部隊의 目標을 圓滑히 達成할 수 있게 된다.

(2) 리더십, 士氣, 業務遂行度의 關係

軍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士氣의 작용을 통하여 業務遂行度を 提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圖式化 하면 그림 3과 같다.

成員指向의 리더십 確立은 個人指向의 士氣要素에 影響을 미친다. 여기서는 個人이 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阻害要因이 되는 要素들을 除去시켜주어 便安한 마음에서 業務에 沒頭할 수 있는 方向으로 리더십을 發揮하여야 한다.

個人指向의 士氣要素를 充足시켜주면 集團業務 遂行에 만드시 必要한 集團

註 3) 空軍大學編, 空軍指揮統率, 1984, p. 20.

4) 陸本編, 統率法, 1981, p. 15.

5) 陸軍本部 防務令 85-44, 軍人服務規律 및 陸軍服務規定, 陸本, 1981, p. 20

6) 白鍾烈, 軍 士兵의 士氣 昂揚의 阻害要因에 關한 研究, 慶南大 經營大學院, 1984,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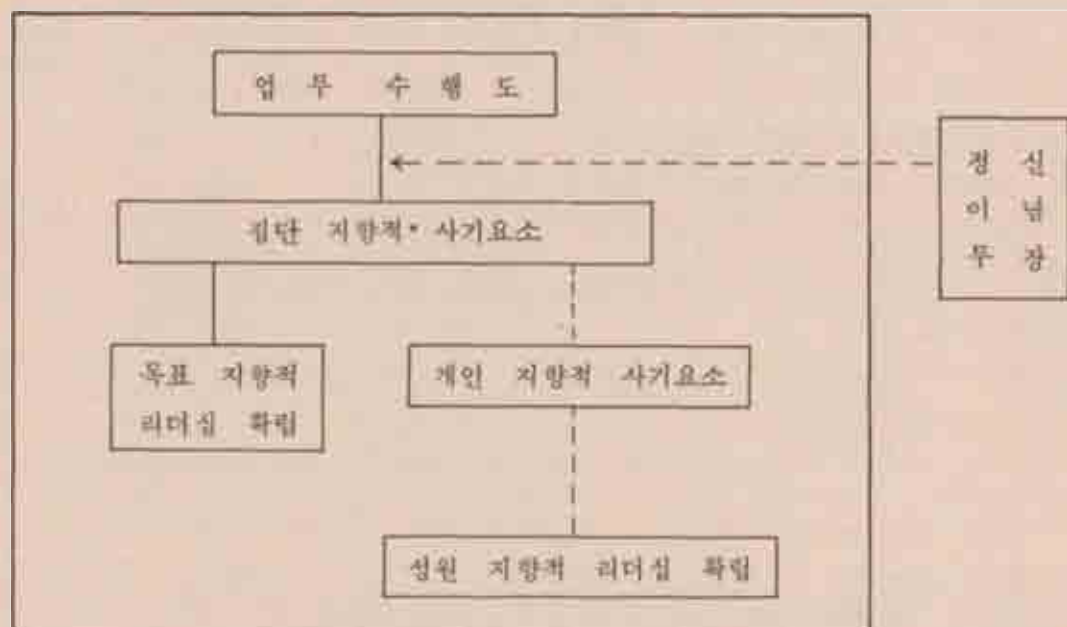


그림 3. 리더십, 사기, 업무수행도의 관계⁷⁾

지향의 사기요소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⁸⁾

目標指向의 리더십은 集團指向의 사기요소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

註 7) 權學源, 리더십과 사기에 관한 理論的 研究, 東國大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1983, p. 59.

8) 사기를 증進시키는 것은 반드시 業務遂行度 提高라는 行動結果를 導出하는 方向이어야 한다. 따라서 本人의 指揮管理活動에서는 Herzberg의 2要因理論(金石會, 企業行動科學論, 博英社, 1978, pp. 134~145)에서 나타나는 動機-衛生要因 中 傳統的으로 軍에서 重視해온 衛生要因 뿐만 아니라 動機 要因도 같은 比重을 두어 指揮管理活動을 進行시켰다.

指揮成功事例

으로 部隊가 그 目標을 定額히 達成하게 하는데 決定的인 要素이다. 리더십, 士氣, 業務 遂行度의 關係에 따라서 具體的인 指揮管理活動이 어떻게

進行되는가를 나타내어주는 指揮管理活動 過程圖는 다음과 같이 圖式化 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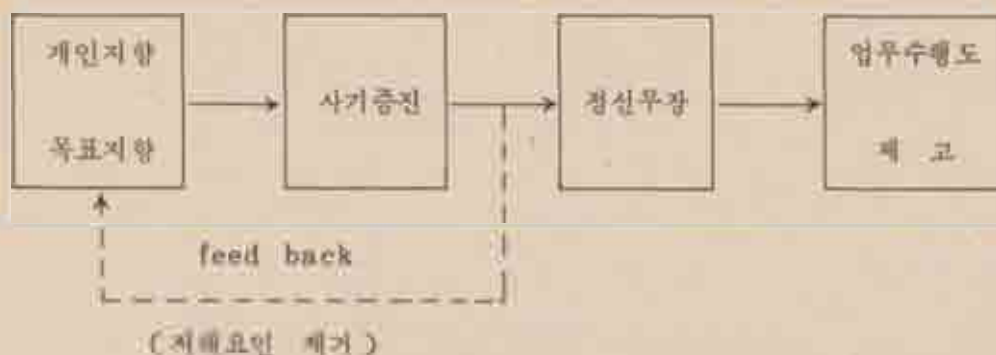


그림 4. 指揮管理活動 過程圖

4. 細部指揮管理活動

가. 個人指向의 指揮活動

個人指向의 指揮活動은 部隊員 個人의 部隊業務遂行에 最善을 다하는데 妨害가 되는 阻害要因들을 除去해 주어 業務遂行에 專念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 줌으로써 業務遂行度を 提高시킬 수 있도록 하여주는 活動이다.

業務遂行의 阻害要因으로는 部隊特性(2장)에서 나타나듯이 個人特性, 環境特性, 地域特性으로 나눌 수 있다.

(1) 個人 特性上 阻害要因 除去活動

(가) 學力에 따른 阻害要因
階級別 學力水準(2장)과 任務遂行 期待值(客觀的)을 圖表로 表示하면 그림 5, 6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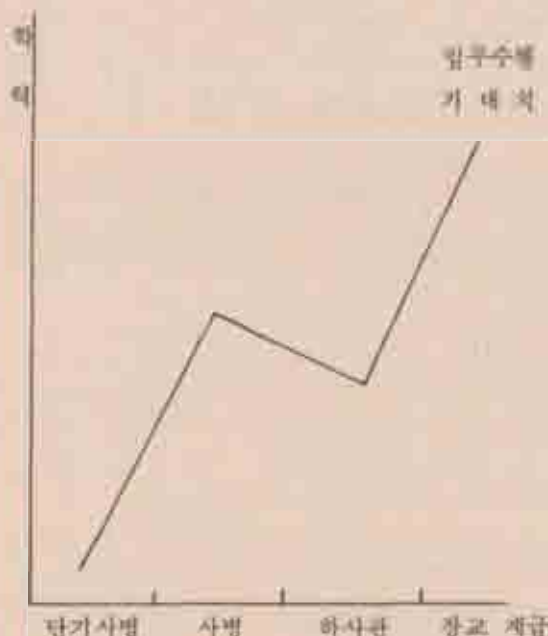


그림 5. 階級別 學力分布

이 두 그림을 합치면 다음과 같은 그림 7이 나타난다.

이 圖表에서 期待値와 學力水準으로 表示되는 能力간의 gap을 줄이는 것이 指揮管理活動의 주요 目標였다. 먼저 短期士兵의 低學力과 階級意識에 따른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서 大隊長과 短期士兵이 直接 만나는 機會 (懇談會 및 面談)을 增加시키고, 個人別 能力과 特性 등을 把握하여,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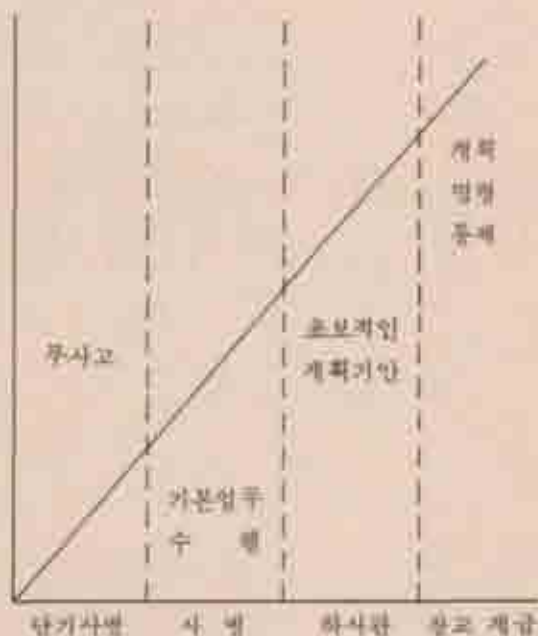


그림 6. 階級別 任務遂行 期待値

時로 接續時에 個人身上에 대한 至大한 關心表明과 能力 認定으로 短期士兵의 不滿과 自意識을 어느정도 解消할 수 있었으며 問題 士兵들을 早期에 巢出하여 善導할 수 있었다.

또한 短期士兵들은 大部分 單純作業에 配置받았기 때문에 自身들이 遂行하는 業務에 대한 認定과 理解, 그리고 人間的인 待遇에 매우 敏感한 狀態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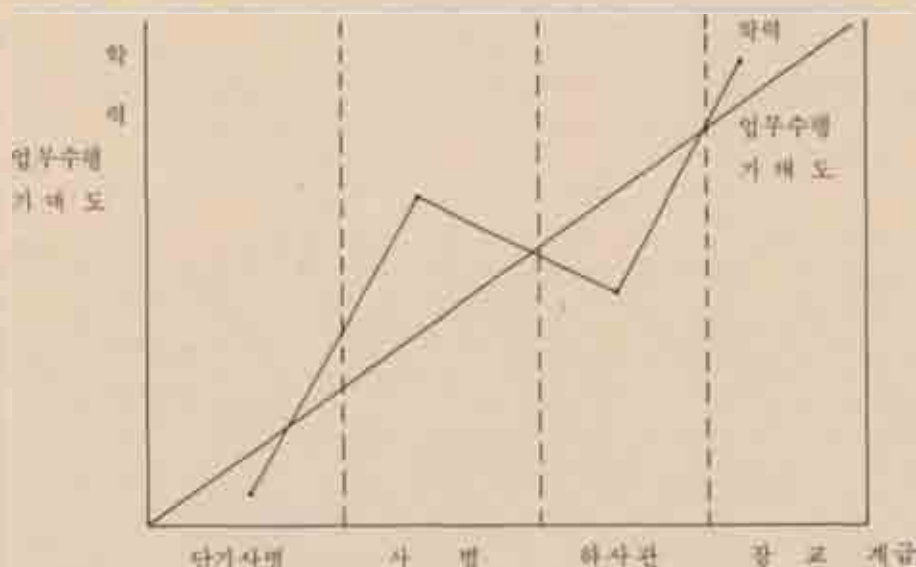


그림 7. 階級別 學力, 業務遂行期待度

는 各 所屬長에게만 發하던 進급휴가 申告를 餘他 將兵들과 같이 大隊長에게 直接 實施하게 하였으며 分期別로 2~4명의 模範牌을 授與하여 肯定的이고 積極的 思考가 廣散되게 하였고 將校, 下士官과의 眞兄弟 結緣을 통한 個別的 關心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短期士兵 體育大會를 開催하여 部隊에 대한 所屬感과 部隊內의 一體이라는

自負心을 느끼게 하였으며 出動勸이 어려운 要員에게는 全員 時間課 勤務를 시키고 出動時間을 한 時間 늦게 하는 대신 波葉給으로 일할 수 있는 空氣를 造成함으로써 主人意識을 培養시켰다. 士兵들은 圖表에서 나타나듯이 任務遂行 期待值 보다 任務遂行 能力(學力)⁸⁾이 뛰어나다.

이에 따라 軍에서의 業務를 하려는

註 8) 學力이 任務遂行能力과 반드시 等價하는 것은 아니나 一般의로 學力-任務遂行 能力의 等價 關係가 成立한다고 認定하고 있다.

것으로 認識하여 軍 生活를 人生에 있어서 浪費期間으로 把握하려는 性向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解決하고 業務遂行意慾을 鼓次시키기 위하여는 積極的인 動機賦與가 必要하였다. 먼저 端正한 服裝과 清潔狀態를 維持하게 하여 業務意志 鼓次와 動機誘發이 可能하게 하였으며 環境改善을 통하여 集團 任務遂行력과 集團 動機賦與를 振作시켰다. 그리고 特技別, 階級間 集團 討論會를 實施하여 特技間 業務有關係를 提高하고 部署間 業務協助를 圓滑하게 하였고 相互 年齡과 能力이 비슷한 層과의 討論을 통하여 軍 服務期間이 無意味한 時間이 아니라 人格培養과 人生의 重要한 時期에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다는 確信을 증으로써 面談 일에 露重할 수 있는 零團氣가 造成되었으며 大隊長은 隨時接觸으로 이러한 零團氣에 模範役割을 하였다.

下士官들은 業務遂行能力이 遂行期待值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學力 分格테스와 階級 設定에 대한 不滿感이 基本的인 性向으로 드러났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業務

遂行能力 向上과 對 軍人觀, 對 國家觀의 確立이 時宜였다. 業務遂行能力 向上을 위해서는 部署長의 1:1 教育을 통한 實戰的 教育訓練 強化, 教官 資質 向上을 위한 세미나 開催, 半期別, 短期別, 評價를 통한 教育의 內實化를 기렸다.

또한 分期別로 大隊長, 中隊長, 主任上士가 參席하는 懇談會에서 隘路事項을 受檢하여 不滿足을 解消하였으며 올바른 對 軍人觀의 樹立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政訓將校 主營의 討論會를 隨時로 開催하여 變化하는 國內外 情勢에 대한 認識을 갖게 하였으며 不斷한 自己發展에 대한 努力과 技術을 具備하게 함으로써 學力 分格테스를 解消하게 하였다.

將校들은 業務遂行能力이 一般的인 任務遂行期待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將校의 役割인 計劃, 命令, 統制機能은 그 上限線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自身들의 業務遂行能力을 最大로 發揮할 수 있는 指揮技法이 必要했다. 이를 위해서 分期別 將校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세미나의 主題로 軍 發展과 個人 發展의 關係, 業

指揮成功事例

務推進力 提高 方案 등으로 設定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積極的인 業務遂行意欲의 內面化에 力點을 두었다.

(나) 出身地域 特性上 阻害要因

2章의 出身地 分布에서 나타나듯이 江原, 湖南地域 出身 下士官들은 僻奥地 勤務를 畢해야 원하는 勤務地에 轉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赴任하여 時間 보내기 勤務를 함으로써 消極的이고 被動的인 傾向이 뚜렷했다. 또한 僻奥地 期間을 보낸 要員들은 기다리는 勤務를 함으로써 指揮管理活動에 상당한 阻害要因이 되어왔다.

이들의 消極的 傾向과 勤務地 滿足度를 増進시켜주기 위해서 精神的, 業務的 側面의 解決方案을 摸索해 보았다.

個人別/部署別 達成 가능한 短期 成就目標을 設定하고 그 結果에 대한 報償을 徹底히 하여 成就欲求(Need for Achievement)¹⁰⁾를 強化하였으

며 目標成就를 통한 個人의 使命感을 鼓吹시켰고 個人 및 部署內의 任務達成을 위한 人間的 共感帶를 形成하게 하였다.

또한 趣味活動을 積極 支援하였는데 이는 同好人會(제너스, 학구, 바둑, 낚시, 등산...)의 活性化를 통하여 地域的, 環境的 어려움을 克服하고 이 地域에서만 할 수 있는 趣味活動의 開發로 地域的인 長點을 부각시켜 勤務地域 滿足度를 増大시켰다.

그리고 規則的이고 定期的인 外出, 外泊을 實施하여 休暇에 대한 豫測이 可能하게 함으로써 勤務意欲을 鼓吹시켰다.

(2) 環境特性上 阻害要因 除去 活動

富 大縣가 位置하고 있는 地域은 全國의 케이다 사이트 地域中 最惡의 環境條件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2章에서 나타난 바 있다. 劣惡한 自然環境 때문에 內部的으로 鬱鬱려를

註 10) '人間적 欲求는 學習된 것이고 그 欲求中 하나인 成就欲求가 높은 사람은 業務指向的이고 能力껏 일할 수 있기 때문에 成功的인 役割을 遂行할 수 있다.' 佩伯根, 組織行爲論, 泰山 出版社, 1985, pp. 319-321.

고 閉鎖的인 狀態에서 業務遂行에 消極的 傾向이 強化되고 있는 狀況을 打開해 나가는 指揮管理活動이 우선적으로 必要했다.

(가) 新練兵場 構築工事

劣惡한 環境條件은 將兵들의 몸과 마음을 울즈러리게 하고 消極的인 姿勢로 一貫하게 반들었다. 이러한 狀況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積極的인 體育活動을 勸奨하여 風氣에 活潑的으로 對處하고 外面條件에 대한 自信感을 갖게 하는 것이 必要하였다. 이를 위하여 既存의 荒廢하고 狹小한 練兵場을 改築하여 查閱臺, 排水施設, 石築階段式 觀戰席을 兼備한 新練兵場을 構築하였다.

新練兵場의 完工으로 各種 體育行事와 全將兵의 體力를 鍛鍊할 수 있는 場을 만들어 남으로써 추위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力을 갖출 수 있는 契機를 마련했다.

(나) 쓰레기장 新築

氣象의 影響으로 隨時 20KTS 以上の 強風이 불어오는 當 大隊는 쓰레기가 外部로 날아가 部隊內의 環境을 汚染시키고 部隊 外部의 自然景觀을

毀損시키는 일이 頻繁하였다. 이에 대한 對處가 어려운 露天式으로 된 쓰레기장을 撤去, 埋沒시키고 쓰레기 分庫收去施設 및 一般/秘密 쓰레기장을 區分하여 廢却할 수 있는 쓰레기장을 新築함으로써 部隊內 快適한 生活環境을 造成함과 同時에 自然保護運動에도 積極 參與하고 있다.

(다) 作戰道路 補修

當 大隊가 1,400 M 高地에 位置해 있는 關係로 大隊의 生命線이라 할 수 있는 作戰道路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既存의 作戰道路가 지니고 있던 表面의 不均等, 排水路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路面隆夫 등의 難點을 克服하기 위하여 年中 解水期가 끝나는 時期부터 作戰道路 補修作業을 實施하였다.

作業 內容으로는 排水路 및 路面整地 作業, 隣近地域으로부터 流入한 雪水, 비사도 등으로 浸食된 部分을 補完하여 最上의 道路狀態를 維持하고 있다. 作戰道路의 維持, 補修作業으로 部隊 作戰時 및 首舍居住者 出退勤時에 보다 安全하고 便宜한 車輛運行을 可能하게 함으로써 將兵들의 安樂함과

指揮成功事例

部隊에 대한 애着心を 더해 주고 있다.

(다) 內務室 環境美化

차가운 氣候로 인하여 內務室에 있는 時間이 많은 將兵들에게는 內務室 環境이 情緒에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內務室 環境美化 및 內務室內 福祉施設의 擴充이 時急하였다. 環境美化로는 室內外壁 塗色作業, 公共施設 및 各 號室 補修作業, 大型時計塔 設置 및 顔子 30個 製作設置, 休憩室 및 體力鍛鍊室 擴充, 圖書室 擴張 및 各種 圖書定期購入으로 圖書確保를 통하여 多數將兵이 利用하는 圖書室을 完備하였다. 이를 통하여 營內士兵의 士氣 極大化와 內務生活의 安樂함에 크게 寄與하였다.

(아) 福祉施設 補完

即營內 福祉施設은 將兵들의 肉體的, 精神的 充足感을 滿足시켜주는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다. 福祉會館 施設整備, 營外者 寓身者 宿所 內部 環境美化, 테니스場의 補完, 充分한 물의 供給을 위한 湯水場의 新築으로 좀더快適하고 安樂한 營內生活의 營爲는 可能하게 하였다.

(바) 內務生活 明朗化

內務生活은 營內 將兵들의 家庭生活와 같은 것으로 內務生活 明朗化는 基本的인 休息을 提供해줌으로써 勤務 意慾 鼓吹와 部隊에 대한 애着心を 갖게 한다. 月1回 大隊長이 參席하여 懇談會 및 內務室長 會議을 實施하고 分期別 面談調査를 통하여 福祉施設 改善, 勤務의 公正性 確保, 陸路事項 受檢 및 改善策 開發 士氣振作에 힘썼다. 또한 兵營生活內의 惡習인 毆打防止를 위하여 毆打根絶大會를 開催하였으므로 分期別로 誓約書를 提出하고 특히 毆打行爲 誘發者에 대한 積極的 處罰로 毆打行爲를 技術擯出하고 毆打行爲 脫離場所外 時間帶에 巡察活動을 強化하고 各 所屬長 主營으로 自體 討論會, 隨時面談을 實施하여 兵營生活內의 惡習行爲를 根絶하여 安樂한 內務環境을 造成하고 休息空間을 마련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3) 地域特性上 阻害要因 除去活動

官舍周邊 地域의 高所得 住民들 그리고 消費指向的인 文化風潮로 인한 官舍家裏들의 經濟的 萎靡感과 軍人

家族으로서의 自負心 缺如를 解決하고 外部指向의 性向을 部隊에 대한 愛着心과 關心 増大로 轉換시키는 것이 指揮管理活動의 目標었다.

(가) 官舍 環境 改善

官舍 居住 營外者들의 部隊에 대한 愛着心を 갖게 하고 官舍生活의 満足度를 提高하기 위해서 全般的인 官舍 環境改善을 實施하였다. 環境改善은 官舍居住 將兵 및 管理要員들의 自發的인 努力으로 進行之었는데 官舍周邊 및 内部의 大掃除, 어린이 놀이터 塗色作業, 官舍外廊에 鐵條網 을타리를 設置하여 外部民間人의 出入을 統制하였으며 官舍周邊에 汚色세척을 減하여 空氣美에서도 沈水防止가 可能하게 하였다.

또한 낡은 官舍를 修理하여 入住家族을 擴大하였으며 老朽된 煤炭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交替하여 最大의 安樂함과 官舍居住의 自負心을 심어주었다.

(나) 班常會 實施

官舍生活의 自負心과 軍人家族으로서의 矜持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施設의 擴充 및 補修 뿐만 아니라 精神的인

意氣의 高揚이 必要하였다. 每月 25日 實施된 班常會에서는 이러한 事實에 力點을 두어 官舍家族들의 精神的인 力氣의 提高와 軍人家族으로서의 矜持를 信念化 하는데 主力하였다.

經濟教育을 통하여 에너지 節約, 奢侈浪費追放, 貯蓄生活化에 대한 弘報를 꾸준히 하였으며 軍事保安에 대한 教育, 立看板 設置, 弘報物을 통한 保安意識 鼓吹, 1日 1件 좋은일 하기, 새秩序 새生活 運動 實踐의 生活化를 통한 先進 市民意識을 鼓吹하였으며 1 部隊 1山 가꾸기로 노인봉을 指定하여 自然保護運動을 先導的으로 遂行한다는 目標心을 심어주었다.

또한 軍宗室長, 政調室長의 定期的인 情緒教育 및 教養教育을 통하여 精神修養과 基本的인 教養을 갖추게 함으로써 空軍 家族이라는 自負心을 심어주었다.

나. 目標指向의 指揮活動

目標指向의 指揮活動은 完備한 空中監視와 裝備無中斷 運營이라는 部隊 目標을 直接的으로 達成하게 하는 指揮活動이다.

이 활동은 部隊 全 部署間의 有機的 關係에서 가장 內實있게 達成할 수 있는 目標活動으로 各 部署의 職務能力 向上과 相互 協助體制的 構築이 指揮活動의 主眼點이었다.

(1) 職務教育의 專門化

職務遂行能力의 向上은 基本的으로 職務教育의 內實化에 의해서 左右된다. 教育의 內實化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教官과 受教育者가 教育內容 知識을 充實하게 熟知하게 하였으며 教育體系의 確立을 통하여 段階的이고 體系의인 教育으로 業務의 全 領域에 內實熟知度와 理解力을 增進시켰다. 그리고 討論會를 持續적으로 實施하여 教官要員의 實效向上과 業務에 對한 立體的인 理解度를 達成하였다.

(2) 公正한 評價에 基礎한 徹底한 賞罰制度

教育의 內實化는 一方的인 教育의 傳受와 더불어 定期的인 評價를 통한 教育內容 및 體系의 改善이 必要하였다.

毎日 마지막을 全曜日에는 大隊長이 教育實施에 對한 確認點檢을 實施하여 未檢點을 補充하였고 分期別로 自體

評價計劃書에 依據하여 評價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分析 檢討하여 任務指向의 方向으로 教育이 遂行되도록 教育의 實과 量을 改善하였다. 또한 評價 結果에 依據하여 成績이 높은 將兵에게는 特泊, 表彰 등의 價賞, 낮은 將兵은 再教育 營內待期 등의 罰을 導入하여 積極的인 教育 遂行에 對한 動機를 試誘하였다.

(3) 協同 體制 強化

各 部署別 職務遂行能力의 提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部隊의 上位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協同體制的 構築이 必要하였다.

協同體制的 構築은 部署別로 他 部署에 對한 理解度를 增進시키기 위한 特技別, 部署別 討論會, 特定 模擬狀況을 設定한 後에 이에 對應하는 武器 레이진 訓練 등이 大體 目標達成을 위한 部署間 協助의 必要性을 提高시키는데 큰 效果가 있었다.

5. 指揮管理活動進行上의 阻害要因 및 解決方案

指揮管理活動의 過程을 體系적으로 設定하고 段階別로 遂行해 나가는 데

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代表的인 것으로는 脆弱한 參謀組織에 따른 指揮管理活動의 妥當性에 대한 理解不足, 特技 및 階級間的 葛藤을 들 수 있다.

가. 脆弱한 參謀組織

本人이 部隊長으로 赴任하여 새로운 指揮管理活動의 實寫像을 提示하였을 때 將兵들 뿐만 아니라 參謀들까지도 '部隊事情을 잘 모르는 新任 大隊長이 재히 저런다. 이러다가 얼마 지나면 潰潰해지겠지'라는 懷疑感과 이에 따른 惰性的인 態度가 業務遂行에 역력하게 드리났다. 특히 部隊 與件上 參謀組織을 將校와 下士官이 50%씩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初級將校, 下士官들이 參謀活動을 함으로써 指揮管理活動에 대한 理解不足과 消極的 行動 및 回避的 不滿 吐露로 一部 將兵들 間에 批判的 集團까지 생겨났다.

이들에게 指揮管理活動에 대한 理解와 同參을 誘發시키는데에는 眞心어린 說得, 胸襟있는 對話, 日日朝會, 週會 등 통한 繼續的인 敎育, 眞實性있는 持續

的인 行動이 要求되었다.

그 過程은 餘他的 어떠한 指揮管理活動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時間이 지나면서 部隊長과 指揮管理活動에 대한 理解度가 增進됨에 따라 不信感이 解消되고 積極的으로 活動에 參與하는 參謀 및 將兵들의 數가 늘 어남에 따라 指揮活動에 活力을 띠게 되었고 하나씩 그 成果가 可視化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 特技 및 階級間的 葛藤

將校, 下士官, 士兵, 短期士兵, 軍務員 등 各 身分別 葛藤要素와 14個 特技間的 理解不足으로 部隊和合과 任務遂行, 効果的인 指揮管理活動의 遂行에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고 있었다. 各 特技 階級間 業務協助과 理解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週會時間을 最大한 利用하였으며 隨時 體育大會와 特技 및 階級間 懇談會, 討論 등을 活性化시킴으로써 特技, 身分間的 理解度를 增進시키면서 서로를 理解함으로써 任務指向的 零亂氣 創出로 '完璧한 空中監視하는 目標아래 우리는 하나다'라는 意識을 심어준 結果 相互間的 理解와

業務遂行의 協助을 이룩하고 成功的인 任務遂行을 위한 基盤이 造成되고 團結하는 空氣氣가 만들어졌다.

6. 透徹한 國家觀, 使命感 確立

모래알쟁이 같이 出身도 다르고 性格도 다른 將兵 個個人을 하나로 묶어 完璧한 空中監視라는 城壁을 築造하기 위해서는 透徹한 國家觀과 忠誠心,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使命感을 가슴속에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政訓將校는 遇會時間과 離會討論會 時間을 活用하여 國際情勢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好戰的인 北韓 共產集團 常存이라는 將兵危機意識 堅持, 部隊內에서 “나”라는 存在의 必須 不可缺性을 認識시켜줌으로써 使命感을 鼓吹시키는데 主力하였다.

또한 大隊長은 持續的인 教育을 통

하여 外部環境에 對해서 內部的으로 萎靡되고 움츠러들지 않도록 積極的인 意志의 高揚과 進取的인 氣像을 심어 주었다.

이에 따라 將兵들은 透徹한 信念을 가지고 烈風과 暴雪이 매섭게 몰아쳐도 이를 克服하고 各自의 業務에 邁進할 수 있게 되었다.

7. 맺 음 말

한 單位部隊의 効率的인 指揮管理는 單純히 卓越한 業務遂行能力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部隊가 現在 처해있는 諸般狀況, 部隊를 둘러싸고 있는 外部條件, 部隊員 個個人의 性向과 資質, 그리고 이러한 要因들로부터 發生되는 여러 問題點들을 Open-system¹¹⁾ 的인 思考로 把握하고 部隊의 에너지들 業務遂行度의 向上이라는 目標達成에 쓰여지도록 組織化하는 의

註 11) Open-system은 어떤 組織의 構成 成分이 그 組織의 境界를 넘어서 外部環境과 相互作用하는 것을 許容한다. Open-system에서는 資源, 에너지, 情報을 外部環境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를 變形시켜 外部環境으로 產出을 한다(廣伯根, op. cit., p.83). 本 事例에서 部隊의 問題點을 導出하고 그 解決方案을 搜索하는데 있어서 外部環境과의 關聯性과 Feed back에 對한 것이 그 좋은 例이 될 것이다.

머릿집의 確立이 必要하다.

지금까지의 指揮管理活動에서는 이러한 思考에 基盤을 두고 部隊의 여러 問題點들을 때로는 個別的으로 때로는 綜合的으로 解決해 나가려는 體系的인 努力을 경주해 왔다.

또한 더 높은 業務投入度를 形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精神教育, 國家觀 確立, 忠誠心 提高에邁進하였으며 그 結果 全 將兵들이 透徹한 精神力으로 武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過程에서 體系的인 指揮管理過程.

科學的인 指揮管理技法의 重要性을 새삼 깨달았으며, 體系的이고 科學的인 指揮管理의 展開가 앞으로의 指揮管理가 나아가야 할 方向임을 알았다.

또한 이러한 모든 成果들은 本人의 힘뿐만 아니라 部隊員들이 本人의 指揮管理活動을 믿고 自發的으로 따라주었기 때문에 可能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軍 發展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使命을 義務를 다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라 믿고 있다.

〈參 考 文 獻〉

1. 鐵衛戰, 組織行爲論 泰山出版社, 1985.
2. 鐵衛戰, 韓國企業의 特性과 課題, 서울大 出版部, 1984.
3. 金石會, 企業行動科學論, 博英社, 1978.
4. 李福麟, 리더의 統率作戰, 言語文化史, 1977.
5. 空軍指揮統率, 空軍大學編, 1984.
6. 統率法, 陸本編, 1981.
7. 指揮成功事例 및 論文集, 第6輯, 國防部
8. 指揮成功事例 및 論文集, 第7輯, 國防部
9. 梁承勳, "軍 指揮官의 리더십에 關한 研究", 東國大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1981.
10. 白鍾烈, "軍 士兵의 士氣 昂揚의 阻害要因에 關한 研究", 慶熙大 經營大學院, 1984.

指揮成功事例

11. 鄭鍾鐵, “組織士氣 影響要因에 關한 研究”, 延世大 經營大學院, 1982.
12. 權準澤, “사단장官 士氣에 關한 理論的 研究”, 東國大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1983.
13. “鮮高地 要員 人事管理”, 空軍規程 2-33, 1990, 空軍本部
14. “鮮高地 要員 人事管理”, 空規 2-33, 補版 1, 空軍 第 30 防空管制團
15. 軍人服務規律 및 規程, 陸本編, 1981.



2000 년대를 내다보는

한국공군의 위상과 당면과제



이 선 호

(한국전략문화연구소장)

1. 문제의 제기

2000년대를 목전에 둔 탈냉전시대의 신다극화체제를 비롯한 오늘의 국제질서는 파스유엔(Pax-UN)을 지향한 집단안보정신을 부각시킨 걸프전쟁에 이어 고르비의 페레스트로이카 열풍이 6년 여만에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종식을 고하고, 세계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과 모험이 큰 대일을 위한 생존과 번영의 가능성을 앞잡모색하고 있는 전환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물속한 상황하에서 동서간의 핵전쟁가능성은 줄어들고, 군축기운이 절고되어가는 가운데, 국제제한전쟁과 저강도전쟁은 세계 도처에서 여

전히 민발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유일한 알타제제의 유산을 간직한 진찰고조저대로서 신대양트와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갈등의 병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고백컨대 방아지치듯 군사대국외로 치닫는 경제대국 일본의 가시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며, 북한의 핵무장의 저와 능력을 아직 완전히 접지 못한 채 남북한간의 화해·불가침·교류의 기본합의가 이루어져가는 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방방국은 군대정력이 전무한 김정일에게 헌법상 국가주석이 맡도록 되어 있는 군물수권을 부여하여 100만대군의 인민군출사령관직을 맡김으로

서 부차세습과 카리스마적 신격화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김정일의 군장악과정에서 힘의 대외적 투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군축이나 핵개발포기의 의사표시는 선언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진의를 정확하게 포착 못한 상황에서 그들을 압박 및 유도하고자 조급하게 비핵5원칙과 핵선택권 포기를 포함한 비핵화선언 및 핵무기 부제선언을 했으나, 북한의 상투적인 조건부 지언약전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막스·헤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깨어났다해도,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의 전단계인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상, 자유민주·자본주의의 시방축이 완전승리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특히 한반도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강도높게 부르짖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가장적이지 아닌 현실적인 적대국으로 엄존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양궤진작(Two-Track Strategy)으로 신속성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한 세는 북한에게 개혁과 개방의 변화지향점을 불어넣기 위한 평화

공존체계의 모색이고, 다른 또 하나의 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김정일의 새로운 불장난을 경제·감시하면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결정자나 국민은 언론의 부정경한 과장 보도에 마취되어 전자와 이상론에 쫓겨만 열중한 나머지, 우발사태에 대비한 후자의 현실적 재를 소홀히하고 있지 않나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산주의가 완성단계에 육전에 두고 밖에 부딪치자, 변장·변신하여 생존방향을 전환, 새로운 몸세를 위한 꾀복기에 들어간 것이지 결코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자의 전법인 소수결에의 의한 국부우세와 성동격서(聲東擊西)의 기습을 노릴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때, 비록 국력의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위장평화공세를 그 어느때보다 가열시키고 있는 적군의 형태는, 제대형 전력의 축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달면서, 핵무장에 의한 군사력의 대남선제공격주도권장악기도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NPT 가입에 이어 UN 가입을 발제토하여, 핵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대한 핵우산제

배제 조건을 관찰함으로써 한·미세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책략과 병행하여 한반도의 핵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과 시비를 확대함으로써 IAEA의 안전협정서명과 핵사찰수용을 거부 또는 최대한 지연시키는 동안, 핵무기를 조립보유해 버림으로써 이를 창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고슴도치식 무법자가 되려는 감추어진 속셈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불안한 안보환경과 더불어 성장가상으로 외무환경에 의한 경제위기의 심화, 4대선거를 앞둔 정치적 궁핍몰드의 증폭, 지역·노사·빈·군집등과 사회병리현상의 만연 등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현현상을 과부로 느껴면서도 아의 처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것 과민한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탈권을 자행한다면 저후 반세기도 못되는 안건한 우리의 민주헌정체제 발전은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21세기의 해적양식대에서 열강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국제사회에서도 민족국가논의의 기본단위로서 과거나 현재와 다

름없이 존속할 것이고,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력의 척도가 경제력으로 그 비중을 더해가고 있다. 한지라도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평화의 교호적 약순환이라고 전제할 때 군사력은 주권 국가의 존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권력수단으로 계속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촌이 실현되고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바뀌는 현대사회에 있어 군사력은 양보다 질이, 병력보다는 기술이 지배하는 상징적 역할의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 끝난 걸프전쟁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듯이, 현대전에서 항공전력의 역할과 위상은 바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의 독립된 군종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였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한반도의 미래권이 더 이상 6.25전쟁때와 같이 진지고수형의 지구전으로 치러질 수 없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미래 군사력의 주력군으로서 미래전장의 역동성(Dynamics)을 좌우하고,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항공전력이라고 전제할 때, 2000년대를 내다보는 한국 공군의 위상을 어떻게 재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로 제기된다.

2. 공군의 사명과 역할 정립

우리 헌법에는 국군의 사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군은 국가인보와 국토방위에 대한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이와 관련하여 국군조직법에는 공군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국가에 있어서 군사력의 역할을 전쟁수행, 전쟁억제 그리고 사회개발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편적인 맥락에서 한국 공군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 전쟁수행

한반도의 정착전 발달시, 공군이 국군의 주력군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 현대전의 양상과 미래전장의 특징이 3차원적 입체전을 추구할 것으로 전제할 때 초현대화된 우주·항공전 무기와 전자장비는 지·해·공의 한원력에 걸쳐 3P(Find, Fight, Finish)의 기능을 주도적으로 담당

하게 될 것이다.

둘째, 만약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 한반도안은 주로 MIG계열의 항공기에 의존할 것이며, 그들의 선제 기술공격 역시 항공기에 의한 수도권 전략표적에 지향될 것인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경계·감시 및 보복·응징은 항공전력이 가장 적응력과 치사성이 높아 성공가능이 크다.

셋째,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하건, 하지않건 간에 집단안보·지역방위체제에 의한 한·미연합 합동작전에 동참하려면, 카운터파트로서 역할분담을 위한 지정규모의 항공전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미 지상군의 작전교리가 동지권투(Airland-Battle)인 바, 한·미연합군의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주도성, 기민성, 전장출성 그리고 동시화(Synchronization)를 추구하게 될 것인 바, 이는 항공전력의 고유한 속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하다.

한국 공군은 기술공군세력으로서 작차전에 있어서 항공우세 혹은 방공작전(Air Superiority or Counter-Air Operation),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전술항공정찰(Tactical Air Reconnaissance) 그리고 항공



수송(Air Lift)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직할군 및 해군 세력과 더불어 침략군을 저격·격멸하고, 조기에 정화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공군에게 주어졌던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적 사명완수이며 전박·전술적 임무수행인 것이다.

나. 전쟁억제

군사력은 전쟁과 평화란 두 날을 지닌 도구이다. 적이 선제·선수봉격을 하면, 외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란 것을 가지적·실리적 위협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세토록 설득시키는 것이 억제의 메카니즘으로써 이는 전쟁의 예방적 거듭이며 평화의 갈날인 것이다.

다른 한편, 일단 억제가 실패하고 나면, 지체없이 맞장구를 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쟁규모와 기간을 축소·단축하여 결과를 최북해야 하는바, 이것이 군사력의 방어적 기능으로서 전쟁수행의 갈날이다.

비록 한국 공군이 초강대국처럼 전략공군세력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협소한 한반도의 공역을 점재할 때 전술항공기 자체가 극히 제한전쟁 상황에서 전략·전술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 바, 비록 양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도기술, 정보, 은밀침투(Stealth), 속도, 화중, 정확도 등에

있어 압도한 질적 우위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힘을 감춤으로써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방에게 선택을 오도케 하고, 행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힘을 과시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동기능을 통하여 상대방을 제압·파괴시킴으로써 더욱 확실한 전쟁역제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개발

미래의 선진국에 있어서 군사력진설원칙은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게 되

고, 민간이 전략형성을 주도하며, 핵무기의 보유설이 감파되고, 군비통제가 군사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4가지로 요약·제시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자도 있지만, 평화기간이 전쟁기간보다 훨씬 길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평화시에 군대는 왜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유지함으로써 평화가 보장된다는 역설적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평화기간중의 군대는 여러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발전과 사회개발에 기여하게 된다. 대형 소비집단으로서 가장 비생산적인 공익조직이 군대라고 하지만, 군삼복합체제의 순기능을 통한 군사기술의 파급효과와 군 인력의 노동력으로서의 고용증대, 청소년의 극기훈련도장으로서의 국민위 애국심 함양, 대민봉사·지원과 재난통제 등에 의한 국가전입의 일익담당을 전제할 때 군대가 결코 무위도식하고 허송세월을 일삼는 곳은 아니다.

특히 현대국가에 있어서 초음속군용기와 대륙횡단 비행기의 수가 한나라의 국력척도가 된다고 전제할 때, 우

리의 2대 비행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하늘을 나는 힘은 물론, 우리 손으로 만든 제3기의 항공배비는 공군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늘의 물침벌으로서 급속한 우리 공군조종사는 숙달비행훈련시간에 있어서 북한 조종사를 훨씬 앞서는 바, 항공기의 성능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기량과 사기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인력과 고도기술(High Technology) 및 고도성능(High Performance)을 결비한 신예항공기의 거대조직인 공군의 정비가능력(Serviceability)과 운전가능력(Operability)은 부가가치가 높은 민항과 우주·항공산업 및 그 연관분야의 발전에 견인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군사기술과 군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제한 공군의 사회개발기능인 것이다.

3. 항공전력의 동태성 구현

「항공전력(Airpower)은 현대전의 최상요구인 선속성, 융통성, 이동성을 제공하여 모든 형태의 전쟁에서 부여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전투에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 통근교범에 기

술되어 있다.

항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전투력의 동태성(Dynamics)을 전쟁에서 적과 대항하여 싸울 때, 기동력(Manuevr), 화력(Fire Power), 방호력(Protection) 그리고 통솔력(Leadership)

의 배합으로 창출되는 효과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력은 가용능력의 정량적 측정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측정을 전제한 질과 조직을 다스리는 능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걸프전쟁에서



임증되었듯이 항공전력은 융통성(Flexi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생존성(Survivability) 및 감시능력(Surveillance)을 지닌 현대정력 중 가장 필수불가결한 전력으로서 전쟁을 지도하고 전쟁을 집행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는 신속한 전개 및 전투능력을 가지고 막강한 화력을 구사함으로써 적의 군사적 도발을 저지하는 억제력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이는 적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될 때, 비상대기력의 증가, 부대의 이동전개, 정찰·비행의 강화 등으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게 적회·출정·보복한다는 국가의지와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영향력 행사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 기동력(Maneuver)

기동력은 싸움에서 위치상의 이점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적과의 상대적인 전력이동이라고 하겠다. 이는 기습, 심리적 충격, 물리적 타격(Physical Momentum), 전투사기 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요지점에 전력을 집결하거나 화력을 집중투발하는 것을 뜻한다.

삼중적인 기동력의 발휘를 위해서는

항공자원의 항공운동력(Air Mobility), 적과 지형에 대한 정보, 효과적인 통제 및 지휘수단과 방법, 융통성있는 작전실행, 전진한 전투원성 그리고 신뢰성 있는 군수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 화력(Firepower)

항공화력은 적의 능력과 전의를 말살하기 위해 필요한 파괴력을 제공한다. 일찍이 세바스키(Alexand Seversky)는 「먼저 하늘을 지배하지 않고 적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으며 꿈꾸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력한 공군력을 지닌 적과 교전하는 경우, 상공의 제압은 지·해상 양면의 작전에 있어서 최우선의 필수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공전력은 가장 뛰어난 공격능력이며, 항공전에 있어서 공군력만이 제 공군력을 격파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항공화력은 가장 효과적으로 적의 적상·해상·공중화력을 제압하고, 적 군사력의 이동을 격파함으로써 아군의 기동력을 뒷받침한다.

적에게 극대화된 효과적인 항공화력을 발휘하려면, 세반 항공무기체계가 협조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작전의 우선순위 경질을 위한 제재와 절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표적이 증물적으로 표집·식별되어야 한다.

다. 방호력(Protection)

방호력은 전쟁잠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방호력은 적의 화력과 기동에 대항하여 야군의 병력, 체제, 시설을 보호, 타격, 파괴하지 못하도록

취하는 조치로서 경계, 발공, 분산, 억제, 위장, 기만, 제압, 기동 등 가시적인 방책은 물론, 주요인원(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출신사)의 건장을 유지케 하고, 집리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시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특히 각종 항공전력소스를 보존하고 있는 항공거지는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모함나 침공으로부터 항공자산을 인접하게 방호하고警戒하여야 한다. 한국 공군은 최근 합동·방공



무기체계의 단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육군의 항공포부대를 이관통합하게 함으로써 지·공방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 항공 전력 구조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통솔력 (Leadership)

전투력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유능하고 신뢰성있는 통솔력이다. 통솔력은 전투에 있어서 목적, 방향 그리고 동기를 부여한다. 지휘관은 거동력, 화력, 방호력의 극대화정도를 결정해야 하고, 이들 요소가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바 전투력발화와 임무수행의 실패에 책임을 지게 된다. 훌륭한 리더십은 전쟁을 기계와 과학이란 차원에서 전투력을 성공적으로 창출·지용하는 지휘관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고가자산인 항공기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요원들에 대한 엄숙한 통솔은 리더와 부하 그리고 조직 환경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조직구조와 기능의 「오케스트라」화와 「싱크로니제이션(Synchronization)」을 요구한다.

4. 선진공군이 되기 위한 과제

21세기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한국 공군이 지향하는 선진화를 위한 당면 과제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정립된 한국공군의 사명과 임무에 맞추어 항공 전력의 동태성을 구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현실적 요청의 충족일 것이다.

가. 조직의 보전성 추구

선진한 조직이 되려면, 내부통합, 환경적응 그리고 목표달성이 가능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공군구성군으로서 그리고 합참의 작전지휘를 받는 기동사령부로서, 그리고 공군본부의 행정지휘를 받는 예하부대로서, 공군작전사령부는 법적·제도적 근원과 현실적 융합성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공군의 전투·작전부대(비행단급)의 현행 조직은 행정조직과 거동조직으로 2원화되어 있으면서 일부법·기동병로 집단화되어 있어, 긴급시의 혼선전투편성을 위해서는 사원의 훈련, 준비 및 협조가 불완전할 수도 있다. 조직구성요소간의 내부통합과 작전환경의 집현투자를 그리

고 부여된 전략·전술목표의 적기 달성을 위해서는 각 전술비행단을 전 기종혼성의 유형전성(Type Command)으로 조직함으로써 행정·군수지원 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전투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전전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공군의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국반조직의 질적돌이 제기되어야 해군과 마찬가지로 공군의 편성이 전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참본부의 합동참모구성 비율을 2대1대1(육군 50%, 해군 25%, 공군 25%)로 법제화하였으나, 3군중간의 심한 배치불균형과 함께 합참의장을 비롯한 핵심 요직이 육군대의 세타적으로 독점되어 온 관행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향군이래 합참의장은 육군장성에 의해서만 임명되어 왔으며, 국방장관도 육군장성출신의 겸임체처럼 관례화됨으로써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이 편중되어 왔다.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이루려면 선외조성이 전개될 때 군축은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현상통제에서 쌍방이 균형축소를 지향하되, 1단계 목표



는 인구의 1% 수준인 45만으로 상
한선을 설정하여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육·해·공군의 병력비율이
2대1대1이 되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3군종간에 윤번제로 임명되게 하며,
국방장관은 비상정출신으로 문민화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과 갈등이 제
거되어야 장차전에서 항공전력이 해상
전력과 더불어 지상전력의 지원군이 아
니라,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가진 합
동군으로서 공유가치를 계량하게 실현
할 수 있는 「항공전력과 항공전력의
상호 융합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전진한 조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 무기체계의 고도화 지향

제1차세계대전에서 첫선을 보이면
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항공기는 기관
총에 의한 공중전, 폭탄에 의한 지상
공격 등으로 큰 전과를 거두었으나 전
세를 지배할 정도는 되지 못하였다.

그후 제2차세계대전시에는 전쟁말기
에 출현한 미사일이 급속도로 발전하
여 핵무기의 출현과 더불어 상거리폭
격기와 함재기가 전략·전술면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미
사일을 중점한 대공시스템의 급속한

한국공군의 위상과 당면과제

발전은 종래의 개념관계에 변혁을 가져와 항공기는 미사일운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지체의 전략·전술적 역할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항공기에 전선화, 레이더화, 컴퓨터화 및 자동화 체계가 도입됨으로써 각종 센서정보와 지상 항공시스템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합하여 전 항공기와 유관무기가 최적의 조건으로 운용될 수 있는 항공·우주·전자전무기 연동체계화가 실현되었다.

그러하여 정보전·전자전에 의한 전쟁수행이 항공우세권 획득과 제공임무

에 못지않게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한 대함·대잠임무수행도 병행발전되고 있다.

한국 공군도 이제 우주·항공권을 지향한 항공기의 미사일플랫폼화를 목표로 항공전력의 특유한 속성인 융통성, 속도, 사거리, 절밀도 그리고 타격력(Punch)의 조화적 발휘가 가능하도록 군사력을 조성·유지하되, 한반도의 장차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무기체계를 선택·장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란 전장의 특수성과 제한된 공역을 전제할 때, 속도와 사거리보다는 융통성, 절밀도 및 타격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간 냉전의 종식



과 더불어 탈냉전이 한반도에도 도래할 것을 전제로 군축이 주이슈가 될 것인 바, 항공무기체계확장에 있어서도 고가·소량·고질을 저가·다량·중질과 절충한 고저혼상전략(High-low Mix)도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지향한 지배로운 현실적 대북한 전력증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다. 인력의 고질화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고도기술, 고도접촉(Hightech-Hightouch)시대로 이행되고 있다. 이는 물질분명과 과학기술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체성의 위기(Crisis of Identity)에 직면하여 개인과 조직의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기계화, 동물화, 상품화로 치닫게 되자 인간성 회복을 통한 양자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다.

군대사회도 마찬가지로 제도나 규범의 개선발전노력이 중요하지만,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간성자애와 배려와 병리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력의 고질화한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할 현실적 요청이며, 특히 초고가장비를 다루는 중군의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인력의 변화는 유전, 환경 및 교육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사고, 습관 및 행동을 바꿈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만연되고 있는 잦아서 굴절사회적 신드롬(Syndrome)병상이 군대라고 해서 실역화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다. 군대는 폭력행사수단이고, 국가안보의 물리적 도구인 바, 만약 군대의 병리현상을 조기에 진단, 처방, 치료치 않는다면, 민주헌정체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년국군으로서 세계유수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군을 군대 밖의 국민들이 보는 눈은 차갑다. 군대와 군인의 대우·급여, 자정·식제조건, 무기·장비, 교육·훈련, 연구·개발, 규범·제도 등 「하드웨어」에 있어서 그동안 이룩한 장족의 발전과 개선을 통한 번모된 국면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간과할 수 없는 3가지 병리현상



인 군사조직의 창조성, 투명성 그리고
아전성 결여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병력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과 여건을 문수에 맞도록 개
선하며, 엄격하고 철저한 전문교육·훈
련을 강화한다는 변화지향적 병제하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처방으로 인력의
고정화한 당면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창조성 구현을 위한 전략적
사고로의 전환: 인간의 잠재적 가능
력, 실천적 의지 그리고 불굴의 신념

은 싸움에서 성공과 승리를 보장한다
는 빈센트 노먼(Vincent Norman)
박사의 과학적 생활의 불인 $I\ can +$
 $I\ will + I\ believe = I\ did$ 의 동
식을 생활화함으로써 정제된 사고방식
의 군인들을 유연한 망원경적인 창조
성 사고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군사의
민주화 실현: 한국사회의 정치·경제
적 민주화 전환에 비하여 군사의 민
주화가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군의 폐쇄성과 성역화 때문이

다.

열린 사회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 군대라고 예외일 수야 없을 것이다. 민주·자유·자본주의의 우월성이 동구와 소련의 대지각변동에서 입증된 이상, 투쟁한 유리용기속의 물체처럼, 국민의 활기찬 피드백을 곁히하게 수용하는 민주군대가 되어야 생존·발전할 수 있다.

군의 조직, 예산, 인력, 장비, 전학, 전술, 제도, 규범…… 등에 대한 공유가치는 제복요원과 정복요원의 협동적 노력으로 창출되어야 민·군 상호부과(Interpenetration)에 의한 국가와 국민의 공익조직으로서의 군대가 반석 위의 집처럼 풍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3) 수법적 조직관리에 의한 아침성 추구: 군대가 결코 박물관의 소우케이스 속의 집일품이나, 위비생활자의 장식을 위한 동물의 박제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 시행자가 용납되지 않는 조직, 연습결기가 아닌 내일의 실전을 위해 사전준비된 조직이 바로 군대이다.

군대가 온실에서 자란 화초모양으로 문약해지거나, 이조시대의 선비처럼 고압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동화·적응·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은 현대문명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생결단의 선택권과 부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원지휘관의 수법적 조직관리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현대전은 고대나 중세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싸우는 것이지, 로봇이 싸워주는 것은 아니다. 싸움은 제도나 장치(Mechanism)만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완력과 마음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일상 군대조직은 용병주의(Strategism)와 경영주의(Managerialism)의 조화를 통하여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심성을 소홀히 한 국방예산편성으로 운병유지비와 전력증강비가 6대 4에서 7대 3으로 왜곡되어가고 있으며, 전투부대보다 비전투·행정부대가 인력 및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현상은, 문자 그대로 전쟁을 위한 군대인지 의식(Ceremony)을 위한 군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외화내빈에 명존실망(名存實亡)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탄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남북한간의 화해·불가침·교류가 합의서대로 정착되어 나간다면, 군

측은 불가피할 것이다. 군대는 꼭 소수정예화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날과 같은 비안정으로 인한 동태경화현상을 빚고 있는 불건전한 조직은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한 평화공존체제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조정된 군사력의 질과 양은 위협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목적 군대의 핵심인 항공기와 합계 그리고 보병사단의 수는 전략적 요청(Strategic Imperative)과 경제적 요청(Economic Imperative)의 조화를 전제로 설정된 패러다임(Paradigm)에 의해 수반적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야전설을 결한 주력구구식의 특정기능·분야에 대한 과도한중심 정치권 자원배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맺는 말

일찍이 헤카스피가 그의 결정지역 이론(Area of Decision)에서 「세계는 대륙과 공중의 싸움이며,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대륙을 지배하고, 대륙을 지배하는 자는 해양과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 발언을 실감나게 하는 비파적 항공집적 주력사상이 21세기를 내다 보는 원지점에서 절프전경 이후 강력

하게 대두되고 있다.

거대한 한국공군의 조직구조속에서 항공중심이 차지하는 몫은 해상전력과 마찬가지로 지상전력의 몫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극히 불균형하게 패소하다.

이와 관련하여, 1991년도 국방백서에 의한 남북한의 기간전력을 비교해 볼 때, 지상군사단은 북한이 16개 군단(49개사단)인데 비하여 한국은 11개군단(49개사단)으로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전투함정은 북한이 436척인데 반하여 한국은 170척, 전술항공기는 북한이 850대인데 한국은 520대로 지상군과 해·공군력간의 심화된 불균형을 시현하고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한반도의 장화전을 대비한 합리적인 적정수준의 군병전력구조가 외려별 원존체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치동자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국 공군의 미래위상정립은 설정된 항위적인 사망과 추구하는 바 현실적인 항공전력의 종태성을 공유가치로 승화·구현함으로써 선진화를 지향한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 극복해 나갈 때, 국군의 주력으로서 보편적 정체성(Universal Identity)을 확립한 「공군다운 공군」으로 도약하는 일일 것이다.

걸프전쟁의 비화 (최종회)

송형 김 은 기
(공군본부)

메이커는 병력증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만났다. 고르바초프는 그 사건과 미국이 서무르는데 의문을 갖고 있었다. 미 의회도 병력증원 문제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라크는 쿠웨이트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를 연관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미 행정부가 공격능력의 구비를 위한 병력추가 증원문제는 새로운 생검화가 되었다.



걸프전쟁의 비화

11월 8일 오후 4시 부시의 제너는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다.

“나는 오늘 국방장관에게 “Desert Shield”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국적군의 공세적 군사방안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부시가 말했다. 때 공격전세를 사우디에 전개시키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방장관과 다른 여러사람의 건의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백악관은 정례적으로 일요일 TV Talk Show에 행정부 관리를 출연시켜 오던 것을 중지하였으며 주말 신문들은 다국적 참전국가들간의 불화와 전쟁에 따른 부시의 어려움, 전장(戰場)이 열리 멀어져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들을 주로 취급하였다.

Scowcroft가 생각하기에 행정부가 군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USA Today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시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걸프 위기시 82%이던 것이 지금은 51% 뿐이었다.

이 정치적 문제는 다음주 며칠동안 계속되었다. 의회에서는 “참론회” 개최를 원했다. 주된 문제는 공격안에 대한 것이었다. 부시와 Scowcroft는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경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1월 14일 부시대통령은 의회지도자와 양당지도자들과 만나 자신이 아직 전쟁을 결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일치”를 요청했다. 부시는 이라크 신문을 꺼내 사람의 “미국의 몰입치”를 언급한 내용이 머릿기사로 나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쿠웨이트에 계속 주둔할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말하고, 미합중국 헌법 2조 2항에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이 되어...”라는 조항을 읽고나서 의회를 소집하자 그의 결성사항에 철저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지도자는 의회를 소집보다는 합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세작전을 결심한 현 시점에서 포병은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일 이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는 Kelly에게 우수한 참모들로 “특별계획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Schwarzkoff의 계획관들과 모든 단계마다 긴밀히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포병은 그들에게 최고도의 절박감을 갖도록 강조하고 모든 필요 - 보급부터 무장, 의요지원, 교전규칙, 전쟁포로에 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 를 포함



하여 계획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극비에 속하는 이점(利點)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STOC(Special Technical Operation Center)로써 "벙커군 내의 벙커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그곳에 출입이 허가된 30명에 대해서도 출입시마다 보안유지를 위해 거룻발 탕커기로 검사를 받게하고 있었다. 이곳은 종종 "Starship Enterprise"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展示 체계와 컴퓨터 그리고 사우더 중부사령부를 포함한 각종 정보기관 및 사령부로부터 정보와 자료가 모두 집약되었다. 또한 STOC는 작전을 위한 지휘통신 본부로서 특수작전부대와 첩보위성, 정찰 무기체계 및 장비, 정보수집능력 등 모든 것이 통합 관리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최첨단 비밀무기는 하나의 목적 즉, 소련과의 전쟁을 가정하여 개발되는데 이따르는 대부분의 무기와 장비를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이

결프전쟁의 비화

이번 사태에서 사용하게 될 무기는 새로운 적에 대해 한심맞춤이었다. 미국이 수십년동안 "EYRE"라는 암호명으로 1급비밀에 속하는 계획을 집행해 왔는데 그것은 소련의 주요 전자광미, 레이더, 항공기, 미사일 등에 관한 설계명세서와 Test Data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 정보작전으로 첼타군은 실제 소련무기를 압수하여 소련의 무기를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기도 했다. 다른 1급비밀 계획인 암호명 "BARCAF"는 신호 차단계획(Signals intercept program)으로써 첼타군이 소련이 만든 통신장비를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이 중동지역 상공에 위치하여 쿠웨이트에 대한 실시간 사진을 TV 화면에 보내왔고, 전장의 지휘관들은 화면을 통하여 이라크군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었다.

이라크군은 흡사 자신들이 비화가 잘 되는 통신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으나 NSC(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는 이들이 쓰고있는 소련제 장비의 수파수와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도청이 가능했다.

공세적 군사작전의 성공요소는 이라크의 항공방위 통신망을 교란 또는 사용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Powell은 STOC의 이러한 능력에 매우 만족해 했으며 STOC의 예산이 1억 달러라는 데에도 놀라지 않았다. 포웰과 제너가 STOC에서 맡은 브라질 중의 하나는 공세작전지 미군이 사용할 AH-64 아파치 헬기에 관한 것으로 개전 초 8대가 이라크 내의 주요 방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11월 20일 제너는 공중공격계획, 공중전의 목표범위, 병합유지, 지휘, 통제, 통신, 공중전에서 다국적군과의 유기적 협조, 육군의 대 장갑차 능력, 상륙작전, 특수작전과 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지하게 듣고, 합동참모본부의 전문가들에게 갖가지 질문과 불확실한 것, 해결 등에 관해 보지보지 캐어 물었다. 한달이 채 목되는 사이에 제너는 15건의 브리핑을 받았었다.

마지막으로 Kelly가 제너에게 "절망계획" 과정을 수표하여 이제는 "합동계획관"이 되었다는 액자에 쓴 "수표장"을 선물하였다. 제너는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세적 전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Powell에게 가장 주된 임무는 3 단계
확정시 이라크 내에 주요 전략표적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표적은 각각의 범주로
나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초기표적 범주는

- 지휘, 통제, 통신체계
- 방공체계 및 레이더
- 사담의 800 대 전투기가 사용하는 비행장
- 30 개의 주요 SCUD 미사일 기지
- 이라크의 원자로
- 화생방 무기생산 및 저장시설
- 이라크의 증추인 8 개 공화국 수비대

걸프전쟁의 비화

- 보급망 - 아제잔, 무기저장소, 수송기지, 도로, 교량, 항도
- 3개의 정유공장을 포함한 12개의 석유화학 시설
- 전력/발전 체계
- 기타 전쟁지원 산업시설
-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40만 이라크 군대

Schwarzkopf의 계획관들은 20 내지 30일 동안 목적할 표적과 가용부기의 조화를 위해 램팔과 컴퓨터 모델을 이용, 작업하였다. 이것은 거대한 수수께끼 풀이로 이 방법을 통해 최소의 손실로 최대의 손실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네번째 단계인 지상전은 광증전에 의한 손실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다른 동맹국들이 동의하는 방법을 찾아 이라크군과 싸울을 해야했다.

다음날인 11월 29일 안정보장이사회는 만약 이라크가 다음해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기 위한 무력사용 권한을 승인하기 위해 투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만약 가결된다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치운있는 결의가 될 것이었다.

살입이사국 중 소련이 용어문제 - 무력사용이란 말 중 "부력(Force)"이란 용어를 모든 필요수단(All necessary means)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 코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소련의 주장을 수용하여 결국 이 결의안은 12 대 2 (에밀과 쿠바가 반대)로 기결되었다.

11월 30일 무사대통령은 "미국 국무장관과 이라크 외무장관이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 사이의 기간 중 서로 편리한 시기에 양국을 교환방문하여 협화를 위한 최공노력을 기울일 것"을 세웠다. 그날 늦게 부시는 각료실에서 의회지도자화 만나 의회파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유엔결의안에 서명해줄 것과 자신의 결정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12월 1일 토요일, 각군 참모총장들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램프 데이비드에 갔다. 그들은 대통령이 대급모 병력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한번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공군참모총장 McPeak 대장은 만약 통제권이 개시될 경우 공중작전은 지상전을 시작하기 전 약 30일 정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일일 4 내지 5대의 항공기를

잃게 될 것이고 30일동안 총 150여대의 항공기를 잃게 될 것인데, 조종사의 반은 구출될 것이고 남은 사망할 것이며 다른 남은 보트가 되어 바그다드의 TV에 선관들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 중 사고와 실수가 있을 것이며 정밀미사일과 폭탄도 새 설비를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군사목표를 폭격한다는 것이 시민 주거지역을 폭격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cPeak 이 예상하기로 폭격에 의해 2,000 여명의 이라크사람이 사망할 것이며 80일동안의 공중폭격으로 이라크의 주요 군사장비 - 탱크, 기관포 및 기갑호송수단 - 의 50%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너는 유엔의 무력사용에 관한 결의안이 대통령에게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은 지금 많은 국제적 친구, 그것도 대부분이 각 나라의



걸프전쟁의 비화

수반인 천구를 가지고 있다. 만약 사람이 향후 45일 내에 철수하지 않을 경우 부시가 이라크군을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चेनी는 잘 알고 있었다. 국방장관은 의회로부터 걸프 작전에 관한 청문회에 제일 먼저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चेनी는 거부하고 대신 청문회가 시작된 후 2주에 모렐과 같이 출두하겠다고 했다.

이 행정부는 청문회보다는 유연한보리의 결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더 원했다. चेनी는 그의 참모들에게 서두를 가급적 길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모든 이유를 매우 길게 설명함으로써 하원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수월하게 답변시간을 넘기려는 속셈이었다.



12월 3일의 청문회에서 체니는 걸프작전의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시 정리하여 큰 소리로 진 원인을 읽어내려 갔다. 그는 아마도 사람이 불패를 극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군사력만이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가 철수하도록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웰은 하루전날 문종일을 그의 증언을 제작하는데 소모했다. 그의 참모들은 포웰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포웰 자신도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 설명하고자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원의 공청회는 부시의 걸프정책에 관한 공개적인 주요 토론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포웰은 느꼈다.

그는 쿠웨이트에서 사람을 축출하는데 동군함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할 기회로 사용하고자 했다.

"많은 전문가나 비전문가를 막론하고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공군력에 의한 목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나 공군력만으로는 사담에게 주도권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육군의 기본교리는 주도권을 잡고 이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의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군에 의한 작전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기를 퇴각 하는 것이지 이기기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라고 포웰은 말했다. 포웰은 불패에 관한 달변에서 그 지기문제는 정치적 결정사항이지 군사적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것과 "불패"가 성공할지 여부는 생각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사담은 최종기한 3일전인 1월 12일 베이커를 바그다드에 받아들이 수 있다고 발표했고 부시는 이를 거절했다. Scowcroft는 사담과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4개월여의 외교적 경제적 문제는 실패했으며 전쟁만이 2내지 3주안에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확신했다.

12월 19일 체니와 포웰 그리고 Wolfowitz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여 Schwarzkopf의 전쟁계획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체니는 사담이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경우 1월 15일 직후부터 동군작전을 시작할 것이며 그때까지 공군과 해군의 항공력은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포웰은 사담이 최종기한에 임박해서 철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체니는 사담이 철수는 커녕 오히려 쿠웨이트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점으로

걸프전쟁의 비화



미루어 전쟁은 불가피하므로 Schwarzkopf에게 전쟁을 필자의 준비하도록 재차 강조했다.

제너는 아무도 낙관적인 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전에 돌입할 것에 대비하여 보급물자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Schwarzkopf가 보고한 전쟁계획은 지난번 Johnson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세번째 단계까지는 공중작전이고 이어 네번째 단계가 지상전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어느 단계가 예상외로 성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단계의 공격목표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처음 공중공격에는 이라크의 방공망, 통신기지, 800대의 전투기, 사담의 지휘통제 통신망이 목표물로 되어 있었고 한 정보분석관은 이 첫날 공격이 “전술적 기습공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공격으로 이라크 공군의 80 내지 85%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Schwarzkopf는 정치적 기구 - 대통령, 국방장관 또는 의회 - 가 공중이나 지상작전 단계에서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중지시키거나 앞을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자 Wolfowitz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Schwarzkopf가 현장 지휘관으로 작전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전쟁계획은 승인됐으므로 이제 모든 것은 Schwarzkof의 손에 달려 있었다. 대통령이 최종결정 즉, 제 4단계인 기상전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었다.

제니와 포웰은 사우디 전선에 있는 장병들을 돌아보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적시했다. CIA 정보분석가들은 사담이 그가 직면해 있는 현실 - 미군 및 다국적군의 전력과 유엔 및 무방국들의 결의 - 을 새달고 최종기한에 압박하여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DIA의 PAT LANG은 사담이 그의 군대규모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DIA 국장 및 군 정보책임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크리스마스 직전 “Time”지와 인터뷰에서 부시대통령은 “전쟁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의 정보참모들은 사담이 철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제니와 포웰은 사우디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햄프 네이비드로 대통령을 찾아가 중동 상황에 관해 보고했다. 기상군은 2월이 될 때까지 준비되지 않았지만 공중작전은 곧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현지 사령관인 Schwarzkof는 정치적 최종 기한인 1월 15일을 공적게시일로 잡고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으며, 여차와 계획상 공중작전이 먼저 시행되도록 되어있고 재전 후 당분간은 공중작전 위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1월 15일 직후부터 작전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요지였다.

부시도 만약 사담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1월 15일 직후에 작전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자고 했다. 공적작전 시행일과 시간은 달과 날 세에보에 따라 포웰이 Schwarzkof와 협의하도록 했다. 포웰은 이미 Schwarzkof 대장에게 하달할 임급비밀인 “경고명령(Warning order)” 초안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JSC 방간동에 의하면 “경고명령이란 끝이어서 시행할 명령 또는 행동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으며 일단 Schwarzkof에게 하달되면 전쟁계획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어 있었다.

Powell은 비화전화를 통해 Schwarzkof에게 유엔이 결한 최종 시한인 1월

걸프전쟁의 비화



15일 이후 추첨하는
등격 재시일자를 물어
사우디 시간으로 1월
17일 새벽 3시(미국
시간으로는 1월 16일
오후 7시)가 줄졌다는
건의를 받았다.
유엔이 결한 최종시한
을 19시간 경과한 이
시간은 우월함인 때로
F-117A Stealth
전투기 작전에 매우
유리하며 기상도 좋다
고 확보되어 있었다.

Schwarzkopf는 일단 작전이 개시되면 작전명을 "Desert Shield"에서 "Desert Storm"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12월 29일 포펜은 "Schwarzkopf 작전"으로 "경고명령"을 Schwarzkopf에게 전달했다.

1월 1일 저녁, 부시대통령을 폐입, 베이커, 체니, 포펜 등과 만난 자리에서 NSC에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소위 "국가안보 지시"라는 공식적인 대통령명령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베이커는 아직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람과 만날 것을 세의하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체니는 그럴 경우 다국적군에 합류한 중동국가들이 마치 미국이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였으며 사람이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최후순간에 술책을 부릴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부시는 공개적으로 1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베이커와 이라크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만날 것을 세의하면서, 그러나 이 회의에서 협상이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첫주동안 부시는 의회로부터 무력사용에 관한 동의

일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때까지 사우디에 파견된 미군병력은 325,000 명이며 매일 12,000 명이 사우디로 상륙하고 있었다.

사담은 이라크군 창설 제 70 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장기권을 치를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1월 8일의 백악관 회의에서 전직 메멘 대사였던 Rugh는 장기전이 될 경우 사담은 서방에 대항한 위대한 영웅으로 무각될 것이고 전쟁의 승패에 관계없이 사담은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CIA는 이스라엘의 전쟁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또한 DIA 정보분석관인 LANG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편견에 대해서 말했다.

“ 그 전쟁의 첫번째는 이라크인이 침략이라는 것으로 그것은 철대로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상대하기 어려운, 잘 싸우는 거칠은 병사들로서 결코 함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쿠웨이트에서 아들을 축출하



걸프전쟁의 비화

논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현안은 사람이 범죄적이며 비인간적이므로 그가 정통성을 지닌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사담은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은 그를 합법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시는 내일(1월 9일) 오후 베이커 장관과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놀랄만한 결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참모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1월 9일 베네치아에서 베이커 장관은 AZIZ 이라크 외무장관과 6시간 만에 결한 회담을 가졌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으며 미국대통령이 사담에게 보내는 시한의 수신을 거부하였다. 공세작전을 개시하기 전 사우디왕에게 이를 승인받기로 한 사우디와 미국 양국간 비밀협약에 따라, 사우디에 도착한 베이커는 공세작전의 승인을 Fahd 왕에게 요청했으며 왕은 전쟁개시전 통보해 달라며 즉시 이를 승인하였고, 베이커는 꼭 사건에 돌보낼 것을 약속하였다.

1월 12일 부시와 체니의 노력으로 의회는 부시에게 무력사용에 관한 권한을 승인하였다.

그 주말 Eagleburger 와 Wolfowitz 는 이스라엘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사미르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이스라엘이 절대 먼저 전쟁이나 선제공격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이 이라크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사미르도 이 경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약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미국과 상의할 것을 약속했다. Eagleburger 와 Wolfowitz 는 미국이 이번에 실전배치한 SCUD 요격용 페트리어트 미사일과 유클요원을 이스라엘에 파견하여 이스라엘의 방공능력을 보강할 것을 제의하였다.

부시는 펜타곤 작전본부와 헬라비브의 이스라엘 국방부 본부간에 직통비화 통신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체니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의 공격작전이 개시되기 전 이스라엘에 통보하겠다고 이스라엘에 약속했다.

1월 13일 일요일 밤, 부시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체니, Scowcroft, 포웰 등과 만나 야권계파에 관해 논의했다. 공격개시 시기는 현재시간으로 1월 17일 오전 3시로 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필요한 곳에 어떻게, 언제 통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작전개시 1시간 내지 2시간 전이 종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체너는 대통령에게 표적목록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부시가 반대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대통령은 표적목록 중 이라크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국가적 실정인 사담의 동상과 개선문은 제외시키도록 했다.

1월 14일 부시대통령은 McPeak, 체너, Scowcroft를 백악관 관저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2차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였던 그는 공군을 제1로 여겼다.

McPeak 공군 참모총장은 10일동안 걸프지역의 16개 기지를 순시하고, 조종사를 만나 격려했으며, 이라크 내의 표적 공격시 조종사가 비행패 같 유사한 경로를 선정하여 실제로 비행을 하기도 하였다. 공군총장은 대통령에게 "공군 조종사들은 전쟁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으며 그들과 같이 비행을 했는데 사가는 최상의 상태"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의회지도자들과 만난 부시대통령은 개전시기에 관해 "늦게 보다는 빠르게 좋다"고 대답했다. 1월 15일 아침, 부시는 성직자(신부,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0:30분에는 집무실에서 그의 측근 참모들과 일급비밀인 "국가안보 지시"에 관해 얘기했다.

이 지시에는 "비행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는 커녕 오히려 병력을 증원하고 있고, 쿠웨이트의 재산을 약탈함은 물론 양민을 학살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를 계속 점유하기 위한 땅어기지를 요새화 하는 등 시간이 경과할수록 미국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미국은 부득이 공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라크의 양민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이슬람의 성소는 모호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후 5시에 로웰은 자신이 직접 쓴(작성) 시행명령을 가지고 체너에게 왔다. 만약 이 시행명령이 예사로울 것이었으면 서명란에 Initial만 뒀겠으나, 체너의 로웰은 이 문서가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 전부를 써서 서명했다. 이 시행명령은 즉시 "Schwarz - koft 작전(Eyes only)"이라고 표시되어 Schwarzkopf에게 FAX로 하달되었다.

걸프전쟁의 비화

이제 약 26시간 후면 “Desert Shield” 작전이 “Desert Storm” 작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날 오후 Bandar 왕자가 체니를 방문하여 “무슨 소식이 없느냐”고 묻자 체니는 “좋은 주말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Bandar는 “곧 작전이 개시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나 확증은 얻을 수가 없었다.

Kelly가 느끼기에 포병은 자군 참모총장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시운때 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호의적으로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육군 참모총장 Vuono는 Schwarzkopf를 돕기 위해 최신판장비를 쓰도록 해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최신판단장비가 장착되어 있고 射距離도 T-72의 2배가 되는 M-1A1 탱크를 사용하도록 Schwarzkopf에게 권하였다. 처음에는 Schwarzkopf가 장병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탱크에 익숙되어 있어 새로운 장비의 사용을 꺼려했으나 전투성능이 월등히 개선되고 장병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새로운 탱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Vuono는 또한 J-STARS (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장비는 최신판장비로 적의 탱크나 차량 등의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상의 AWACS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2개의 J-STARS 부대는 Schwarzkopf에게 쿠웨이트와 이라크 내 100마일까지의 지형 지물을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작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다.

1월 16일 아침 체니는 출근길에 머뭇은 센타론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옷가방을 꾸렸다. 그러나 지랄할 경우 이 알려하여 주위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것을 염려한 체니는 H-HOUR에 운전수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날 아침 Baker 국무장관은 Bandar를 국무성에 불러 작전개시 시간을 알려 주었고 이 사실은 안호를 이등 Fahd 왕에게 보고되었다. 오후 4시 50분 F-15가 첫 출격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Recall된 예정이었다. 체니가 보기에는 아직 밤송이에서는 실세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부시는 체니에게 이스라엘에 공격소식을 통보하되 사실상의 다국적군 일원이 되지 않도록 따라고 말했다.

사람은 만약 다국적군이 자신을 공격해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다.

오후 5시경 해니는 직통라인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공세 작전이 시작된다고 통보하였다. 오후 5시 30분 정각 페르시아만에 기 배치된 비행모 *Bunker Hill*로부터 이라크 내의 기 계획된 표적을 향해 Tomahawk가 발사되었다. 약 20개의 Tomahawk가 H-HOUR에 사담의 대통령궁과 주 천 화교환기, 바그다드의 발전소를 타격하도록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

9척의 군함이 개전 후 24시간 동안 106개의 Tomahawk를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이 순함미사일이 실전배치되어 사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군 폭격기가 예비로 배당되어 있었고, 24시간 내 공중전세 1,000소터 이상이 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Cheney는 CNN을 계속 시청하였다. H-HOUR가 다가오자 Cheney는 운전수를 집으로 보내 옷을 가져오도록 했다.

Powell이 Schwarzkopf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은 그날 이른 시간이었다. 비화전화로 포웰은 *행운을 비네 / Norm. (Schwarzkopf의 애칭)*이라고 말했다.

포웰의 생활신조 중 8번째 항목이 "사소한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포웰은 공중공격표적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표적은 적함인가?, Tomahawk로 공격하는 것이 좋은지 F-15로 공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두가지 모두 투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투입하지 말 것인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포웰은 이제 생각을 그만해야 한다고 느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모든 이점을 - 기술, 우수한 정보능력, 저의 완벽에 가까운 계획 - 을 최대한 이용했다. 그런데도 포웰은 포커(도박의 일종)할 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추사위는 던져졌다.

포웰은 공중작전이 약 3주정도 지속될 것이며 그후 다국적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상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펜타곤에서는 전쟁을 마치 큰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전쟁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전쟁은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포웰은 생각하며, 그러나 전쟁은 현실이며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새 다짐했다.

합참의 참모들은 이번 전쟁에서 약 1,000명의 미군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나 포웰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손실되지 않기를 기원했다. 자기 생애 중

걸프전쟁의 비화

가장 중요한 이날, 포웰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단지 한가지 생각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그의 뇌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백악관에서는 루시 대통령이 웨일과 Scowcroft, 그리고 Sununu 와 같이 대통령 참무실에서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TV 아나운서 뒤편에서 폭음이 들렸을 때 루시는 "계획된대로 잘 진행되고 있군"이라고 말했다. 걸프전쟁은 42일동안 지속되었으며 공중공격단계는 38일간 계속되었고 지상전은 대통령이 전쟁중지를 선포할 때까지 4일간 실시되었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행방불명이 7명, 전사자가 137명이었다.

△ 편집자 주 : 밥 우드워드와 "지휘관들"에서 발췌·번역한 마지막회입니다.



戰鬪狀況室 속의 法務官들

— 스티븐 키이바(STEVEN KEEVA) 씀 —



중령 유재풍
(공군본부)

譯者 註 : 걸프전의 포화가 멈춘지 1년이 지난 지금 걸프전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空軍은 지난 2월 역사적인空軍輸送團의 참전을 기리는 기념비를 제막하였다. 譯者는 1991년 2월초 多國軍의 일원으로 걸프전에 참가하는 우리空軍輸送團 先鋒隊의 法務官으로서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되어, 약 1개월 간에 걸쳐 아랍에미레이트 軍 當局 및 현지주둔 美空軍 當局과 協約締結을 위한 協商과 그 초안작성, 기타 현지 민간업체들과의 各種 契約締結을 위한 協商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한 바 있다. 그런데 현지에서 발견하고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수백명에 이르는 美軍 法務官들의 다양한 활동상이었다. 우선 그 많은 숫자도 놀랄만하였지만, 단순한 懲罰事件의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각종의 法律支援으로부터 作戰計劃 樹立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그들의 활동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空軍에 있어서도 法律相談, 法律救助, 協定書・契約書 검토자문, 戰爭法 및 作戰法의 교육・전파 등 軍 法務官의 역할 증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침 걸프전에 있어서의 軍法務官의 역할, 그중에서도 作戰法 분야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관한 近著 美國辯護士會雜誌(ABA JOURNAL)의 특집기사가 있어 이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I

제1차세계대전을 위대한 전쟁이라 하고 제2차세계대전을 醜한 전쟁이라 하며, 베트남전쟁은 우리에게 안남에서의 전쟁을 가지다 주었다면 걸프전쟁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뭐라고 알려질까?

떨어지는 스바트족탄의 원뿔형 탄두가 말하는 불빛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생중계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전쟁이라고 불리지는 않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다른 가능성을示唆한다.

즉, 미국 역사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페르시아만 전쟁은 法律家의 전쟁이었다 라고, “‘사막의 폭풍’ 전쟁은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전쟁중에서 가장 適法한 전쟁이었다”라고 전쟁 중 미국중앙사령부의 法務參謀 兼 노란 슈왈츠코프장군의 개인 법률고문이었던 레이몬드 루버트 대령은 말한다. “중요한 決定들은 모든 단계에서 심층적인 法的 檢討를 거쳤다”고 美合同參謀議長 폴린 파벨장군은 말했다. “法務官들은 決定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위한 존재임이 증명되었다”고 그는 또한 덧붙였다.

걸프전 기간 중 法務官들은 모든 곳에 있었다. 그들은 사우디의 리야드에 있는 중앙사령부에서 일하면서 野戰의 다른 군인들과 같이 모랫길에서 잠을 잤다. 그들은 駐屯軍地位協定을 협의하고, 공격목표선정 및 무기 사용에 內포된 法的인 問題點을 指揮官에게 조언했다. 여단급 부대에서는, 慣習과 國際條約에 기초한 것으로서 軍事上 必要性和 人道主義的 고려 사이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戰爭法을 개개의 병사들에게 가르쳤다.

刑事事件, 懲戒事件 등 다루어야 할 懲罰에 관한 문제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法務官들은 중요한 法律的인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 “軍 刑事事件으로 인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평소 우리가 다루는 것과 다른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파벨장군의 法律補佐官인 프릭스 그린 대령은 말한다.

걸프전은 베트남전 이래 최대규모의 미군이 파병된 전쟁일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法務官이 파견된 전쟁이기도 하다. 陸軍만해도 약 200명의 法務官이 戰線에 있었다. 2차대전시의 전형적인 육군사단이 1, 2명의 法務官



밖에 갖고 있지 못하였고, 베트남전쟁에 있어서도 1개 사단에 4명의 法務官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베트남에서의 法務官 숫자는 극히 많은 것이다. 예컨대, 제1기제하보병사단의 경우 사단내의 9명의 法務官에 더하여, 軍事法院의 開廷에 내비해서 美陸軍辯護人團에서 파견된 4명의 法務官을 포함하여 13명의 法務官이 있었다. 그러나 ‘사막의 밤에’와 ‘사막의 폭풍’ 작전을 특이하게 만든 것은 그 숫자만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중 수행한 法務官의 역할이었다. 물론 그들은 베트남에 도착함과 동시에 군요원들이 遺言狀을 작성하고 代理人을 선임하는 것을 돕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일무를 수행하였지만, 戰爭遂行努力에 가장 직접적으로 공헌한 것은 指揮官들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에 있었다.

‘사막의 밤에’와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法務官들 자신은 決定權者들은 아니었다. 決定權은 嚴格하게 指揮官들에게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助贊적인 기능을 가지고 그들은 과거의 어떤 法務官들보다도 긴밀하게 高位 決定에

개입되어 있었다.

指揮官들이 戰略的・戰術的인 문제와 싸웠지만, 法務官들은 다음과 같은 憲法性의 문제와 씨름했다.

- 이풍스커드미사일이 야간에 다른 인간 자동차와 구별되지 않음에도 이를 공격하는 것이 國際法上 허용되는가?
- 중립국 상공의 미사일 격추의 허용성 여부는 어떤 法이 規制하는가?
- 50일리 기관총을 적군에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또는 단지 적의 장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함에 포함된 생각은 종종 法的인 관점 뿐 아니라 政治的인 것도 있었다. 예컨대 스킨드발사대에 관한 문제를 보자. 軍事上の 必要性이라는 原則에 의해서(결국, 그 스킨드미사일은 미군과 무방국군에게 명백한 위협을 가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대해 무차별하게 발사되었다) 야간에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스킨드발사대를 추적했을 때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指揮官이 인식하면, 그는 그것을 비코검토하여야 한다”고 美陸軍法務廳의 戰爭法 特別補佐官인 헤이즈 맥스는 말한다. “그 指揮官은 法務參謀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와 그것이 憲法한가를 물어볼 것이고, 法務參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指揮官, 특히 슈판츠코프와 같이 뛰어난 指揮官은 이것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戰爭方法에 합치하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이것은 法的인 決定이 아무런 다른 고려사항 없이 決定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들은 종종 政治的 및 道義的인 고려로 가득 차 있다.”

50일리 기관총을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러나, 다른 종류의 模糊性을 보여준다. 맥스에 의하면, 비록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憲法하다고 한다. “그것은 戰爭法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戰線에 있는 將校들 마음속에 그것이 法的 禁止事項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論點이 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50킬로 기관총을 사용하는 것은 베트남전쟁 동안에 금지되었지만 그것은 法的인 이유가 아닌 군사적 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몇몇 장교들이 그 制約性을 이유로 戰爭法을 비난하는 것은 非法的인 고려들이(이 경우에는 政治的인 아닌 軍事的인 동기가) 어떻게 論點을 흐리는가를 보여준다. 可用한 여러 國際事項들에 대해서 指揮官 및 다른 장교들이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法務官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法務官의 업무는 그것에 전하지 않는다. “指揮官이 내리는 모든 決定은 適法할 수도 있고 不適法할 수도 있다. 그러한 決定을 適法하게 하도록 하고, 適法한 여러 선택사항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法務官이 도와야 한다”고 버지니아의 샬롯츠빌에 있는 美陸軍法務官學校 國際法課長 제인 앨러웃은 말한다.



II

베트남전쟁 이후의 두 가지 발전사항은 軍에 있어서의 法律家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戰爭法에 대한 관심증가와 作戰法이라는 專門領域이 그것이다.

무장하지 않은 수백만의 베트남 민간인이 죽은 1969년의 미라이 학살사건 후, 그 사건에 책임있는 군인들은 戰爭法上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지에 관해서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

자신들의 無知가 불을 가져오는 것을 증명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그들을 戰爭犯罪人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捕虜者들 앞에서 취약한 자신을 발견한 美軍 戰爭捕虜들이었다. “비록 그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치는 혐오감에 빠져 있었다”고 美空軍 國際作戰法課長 로버트 브리지 대령은 말한다.

베베로 그 戰爭捕虜들은 國際法上 허용되지 않는 폭탄과 미사일을 목표물에 대해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브리지 대령은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정신적 고문으로 쇠약해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法的 基礎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犯罪”을 자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자백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였다”고 그는 말한다. 이 고통스런 경험은 美國防部를 움직이도록 자극했다. “우리측의 실제적인 또는 인식된 戰爭法違反 보다도 그 베트남 전쟁포로의 경험이 國防部の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戰爭捕虜들이 정신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捕虜를 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美國防部の 이러한 노력은 1974년 모든 軍要員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함께 戰爭法 교육을 받도록 하는 作戰命令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교육의 책임은 모든 부서의 法務官室에 지워졌으며, 각 法務官室에서는 포실에서의 강의와 야전에서의 실습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고, 작금도 시행하고 있다.

“그 作戰命令은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 우리에게 이런 問題點들이



있고, 우리는 그 교훈을 확실히 하였고, 베트남의 경험은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통합된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육균 법무장관 국제법과 경제법 제임스 버기 대령은 말한다.

베트남전에서 指揮官들은 특히 미라이사건의 激波를 통하여 단순한 遠征의 經驗만으로는 전쟁요소에 오직이 별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깨웠다. 여러가지 이유로 戰爭法 教育機構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은 감소될 수 있었고, 많은 指揮官들을 비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過當한 戰爭을 치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國際적으로 매스컴으로부터 질책받는 전쟁을 치르기를 원한다”고 브리지 대령은 말한다.

“그것은 베트남전이 우리를 민감하게 했던 것 중의 하나이다.”

1983년에 美合同參謀本部는 작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法務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役割을 확대하는 것을 成文化하는 備忘錄을 발령하였다. 그것은 모든 作戰計劃, 緊急計劃, 交戰規則은 戰爭法 및 美國國內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法務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작업을 담당하는 法務官들은 헤이즈 팍스에 의하여 처음 쓰여진 용어사용예를 따라 作戰法 法務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 들에게 戰爭法에 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고 말할 때가 가장 곤란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 태도는 말하자면 수포를 현금화하는 것을 강의하는 것과 性病에 관하여 강의하는 것의 중간쯤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태도를 바꿨다.

즉, 나는 말하기를 軍事作戰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뒤로 우리는 그것을 作戰法이라고 줄여서 썼다.”

戰時關係法에 관하여 새로운 관심을 촉구해서 오늘날의 作戰法이라는 法分野를 탄생케 한 것은 분명히 1983년의 두번째 대사건이었다. 軍法分野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라나다 侵攻이 戰時에 부딪치는 수많은 法律問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提携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준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일상적인 업무도 戰時 또는 그 準備期間에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特別部署들이 法務官候補生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훈련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戰時에는 심지어 契約問題 조차도 새로운 次元을 띤다”고 제9공군의 國際法擔當 法務官 해리 하인펠만 소령은 말하면서 한 시간 안에 500명을 위한 식사를 조달하여야 했던 경우를 예로 들었다.

III

作戰法 法務官들의 업무는 주로 憲法過程에만 관여하고 간헐적으로 제정되는 軍事法院 이외의 것에는 실질적으로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던 종래의 전통적인 軍法務官職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作戰法 法務官들은 반대로 오히려 대령이 말하는 바 소위 “軍人の 法”을 다룬다. 이러한 불쾌케이지 통상적인 법이라는 단어의 組合은 전쟁의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아는 法律家들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軍人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없는 作戰法 法務官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법률지식만 머릿속에 가득차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作戰法 法務官들은 항공기로부터의 낙하훈련, 전차의 운전고습,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와의 同行 등을 했다고 한다. “**法務官**이기도 한 직업군인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필요하다”고 앨리웃 대령은 말한다.

“나는 한 두번 交戰可能性에 관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大尉와 少將이 ‘交戰規則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고 물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훌륭한 作戰法 法務官은 交戰規則에 관하여 걸어다니는 말하는 사견인 셈이다. 나에게 있어서 向後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即時적인 決定過程에 참여하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美중앙사령부의 副法務參謀인 호머 포인티 대군중령은 그의 80년대 韓國에서의 경험을 말한다.



作戰班 法務官들이 그들의 선배들과 다른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指揮官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경향이다. 사실상 일분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전해서 指揮官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目標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조언하고 그것도 목소리를 높여서 잘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法務官들이 어떤 문제가 문안에 들어오면 그때나 한 번 쳐다보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왁스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고객을 위해 충실히 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辯護士 활동과 동일하다. 만약 당신이 활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또한 당신의 고객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주 유능한 法律家로 보여 지지는 못한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우리의 가장 뛰어난 法務官은 그들의 原則을 항상 認識시키고, 決定權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法的인 고려요소를 조언하려고 노력하는 活動家들이다”고 카멜 네장은 말한다.

베트남전의 또 하나의 유산은 法務官과 그들의 行動動機에 대한 근본적인 결심이었다. 그 전쟁 동안에 法務官들과 指揮官 간의 관계는 指揮官의 권에서는 法律家란 政治家와 함께 전쟁의 승리에 장애물이라는 의심과 확신으로 특징지어졌다. 軍事法 專門家들은 말하기를, 문제는 指揮官들이 어디에서 끊어 끝나고 政治家 시작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동료를 설득해서 우리 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브러게 대령은 말한다. 그는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폭탄으로서 소위 附屬的인 피해가 작은 반면 조종사로 하여금 目標物에 근접해서 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사를 위험에 처하도록 한 指揮官들을 그 예로 들었다.

“그것은 조종사들을 불필요하게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보다 더 자유스런 接近法을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말로 戰術法은 우리에게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들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法務官의 업무는 모든 作戰關係 要素와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살상하는 공격목표에 관련되는 것이다”라고 前 美陸軍大學 國家安保法 課長이었으며 現

駐韓美軍 法務參謀인 레너스 루브 대령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방해받지 않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때로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할 커다란 문제점을 만나 비록 요청받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에 관하여 언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그 때로서 攻擊目標選定委員會의 경우를 들어 보자. 집프전 동안 法務官들은 이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중앙사령부 슈왈츠코프의 사부실에서 그들로부터 作戰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目標選定委員會는 중앙사령부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目標目錄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我軍의 전투행위를 규제하는 交戰規則과 地上條件을 고려하여 戰術을 발전시켰다. 위원회는 그 다음날 攻擊目標 目錄을 작성해서 指揮官에게 넘겼다. 그 목록은 戰爭法 위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法務參謀에 의해 작성된 法律附錄을 포함했다. 그 목록을 손에 들고 指揮官은 다음날 最終目標을 결정했다.

제9공군의 하인철크 소령은 이러한 攻擊目標選定委員會에 참여했다. “나는 루웨이츠시에 사는 사람들과 루웨이츠 광고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게 루웨이츠 내부의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나는 다시 그것을 指揮官에게 넘겨 그로 하여금 공격목표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의 攻擊目標 選定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말하곤 하였다. 指揮官들은 이러한 조그마한 정보에 대해 매우 민감하였다. 作戰分野의 法務官으로서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정말로 新松進行者 같았다. 法庭에 가면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IV

집프전에서 행해졌던 많은 것들이 아직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전쟁 중에 무뎠혔던 法的 問題點들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훈련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法的 問題點 파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假定的인 狀況을 부여하고 있는 作戰法教材들이 이에 관하여 우리에게 약간의 시사

준다. “合同戰 遂行者를 위한 書”이라는 美陸軍大學院의 教材가 보여주는 한 예는 ‘사막의 폭풍’ 작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友邦軍이 적의 목적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적의 砲兵觀測所가 修道院의 담위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修道院에는 귀중한 예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情報報告에 의하면 修道院의 벽과 지붕에 몇몇 標識들이 부착되어 있다. 그 標識은 청색과 백색의 삼각형과 방패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런 방패모양들이 항상 한 개의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다. 그 修道院은 特別保護對象인 文化財로서 등록되어 있다. 이 경우 修道院을 공격할 수 있는가?

이 事例에 뒤따르는 論議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목적물들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히 이라크와 같은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2차대전 당시 이 문제는 본래카시노 전투에서 제기되었는데 미군은 한 배 내머트 修道院을 軍事上 필요가 있다는 指揮官의 결정 뒤에 공격했다).

위의 假定的인 事例에서, 修道院은 武力衝突中の 文化的 目的物의 保護에 관한 協約에 의한 標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協約은 그러한 목적물이 軍事的인 目的으로 사용될 때는 공격할 수 있다는 條項을 가지고 있다.

그 教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때의 공격은 보호받는 目的物에 대하여 적당한 시간내에 그 誤用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事例에서 적의 砲兵觀測所를 죽자 파괴하는 것은 만약 어떤 境界線을 설정하여 공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적으로 하여금 砲擊을 계속하여 심각한 追加的 파괴와 손해를 입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教材에 의하면 가능한 한 그 공격은 觀測所가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야 하며, 파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 있어서 文化的 目的物을 공격목표로 삼는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法的 人間的 관점을 지나 政治的인 차원에서 행해졌다. “우리는 文化的 및 宗教的 차이와 齟齬를 유지함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왓슨은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군사장비를 文化財 주변에 배치하기

시작할 때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다. 예컨대 우르사건의 경우 두 대의 미그기가 이 古代의 寺院 바로 곁에 배치되었는 바 우리의 느낌으로는 거기에는 할 주르도 없고 정비시설도 없으며 그 항공기가 이륙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므로 전혀 위험이 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공격한다면 寺院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므로 동격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假定的인 狀況들은 예컨대 醫療要員이나 避難者의 처음, 戰爭進行 수단으로서의 선전물의 배포 등과 같은 수십 개의 作戰上의 問題點들을 다루게 함으로써 作戰法 訓練의 기초를 받게 한다. 다른 法領域에서도 마찬가지지만 問題點을 즉각 파악하는 것은 法實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法律家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不具라는 느낌이다. 우리는 아무 게나 참고할 만한 책을 고르거나 證據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잠깐의 생각으로 몇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약간의 法律的 論點을 찾아내기 위해 2~3일을 소비할 수는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新任法務官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조언할 때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브리지 대령은 말한다.

V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고 이란측이 주장하는 要軍의 이타크 병기 공격이라는 이번 전쟁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의 경우, 사실상은 고려해야 할 어려운 法律的 問題點이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출발만한 일일지도 모른다. “法律的 觀點에서는 그것은 명백했다. 그 目標地點이 이란 이타크 전쟁당시 이미 作戰 療養所로 개조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참조망들이 주위에 널려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출입문에 서 있었으며, 위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저 정밀한 방공호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콕스는 말한다.

그러나 問題點들이 할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 現代戰의 무기와 전투행위가 점차 복잡해질수록 새로운 法的 問題點들이 제기되고, 최근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指揮官들은 더욱 法務官의 助言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指揮官이 法務官의 助言을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또는 전혀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예이긴 하지만 指揮官이 戰爭犯罪人으로 告發된 경우 그가 法務官의 助言대로 행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法務官은 단지 助言者일 뿐이다. 그들은 作戰에 관한 어떤 決定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더구나 그들은 指揮官에게 조언하는 유일한 參謀도 아니다. 또한 다른 보좌들과 마찬가지로 指揮官은 그의 辯護士(法務官)의 조언을 받아들이든지 발든지 자유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指揮官의 決定事項이다. 나의 임무는 그가 戰爭法을 違反하고 있는가 그것도 고의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指揮官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나는 그를 다루는 軍事法院에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라고 포인티 중령은 말한다.

指揮官이 그의 違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法務官에게 轉嫁시키려는 경우에 관해서 역사는 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차대전 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戰犯裁判은 日本의 야마시타장군에 대한 戰犯裁判에서와 마찬가지로 指揮官이 자신의 權限으로 취한 行爲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窮極의 責任을 진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法務官을 비난하는 나치스들도 있었다. 2차대전시 그들의 잘 알려진 特殊部隊員 중의 하나인 오토 스톨페니는 자신의 행위를 法務官과 상의했고, 法務官이 그것을 해도된다고 했노라고 抗辯하였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轉嫁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랑스는 말한다.

應答하는 戰時 法務官의 역할과 영향력이 이러한 責任問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도록 부추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法務官이 刑事責任을 지아할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고 랑스는 말한다.

“만약 어떤 命수이나 提案이 명백히 違法한데도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法務官이 말하는 경우 내 생각으로는, 그 法務官은 指揮官과 마찬가지로 責任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法務官은 명백히 책임이 있다. 그는 자신의 任務로서 指揮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辯護士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범죄 두리 안에서 指揮官을 지원하여야 한다.”

미래의 모든 交戰行爲들과 함께 새로운 作戰法상의 問題點들도 제기될 것이다. 예컨대 지금 우리는 目標物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하여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違法行爲를 행함으로써 戰爭法을 違反하였다는 고발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은 많은 作戰法 法務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의문들의 하나이다.

브리지 대령은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만약 法이 技術을 따라 간다면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法이 技術을 앞지르곤 하는데 그것은 어떤 問題가 발생했을 때이다."

VI

베르시아만 전쟁의 激戰을 겪으면서 軍事作戰에 있어서의 法務官의 役割이 줄어들 수 없을 만큼 현역하게 변모하였다는 데는 의문이 없다. 베트남전이 남긴 유감스러운 유산의 하나였던 戰略의 法的 助言의 가치에 대한 指揮官들의 의심은 거의 사라졌다. 代表理事에 대한 會社顧問團律師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法務官의 역할은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개인 指揮官의 目的을 비록 그것이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일지라도 달성할 수 있는 法的 方法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指揮官들은 깨닫게 되었다.

메이츠 장사는 덧붙였다. "나는 슈왈츠코프장군, 파렐장군 또는 내가 함께한 어떤 다른 장군도 異口同聲으로 軍事作戰에 있어서 法務官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이야말로 군에 어느때 보다도 法의 支配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다. 유엔은 강력한 國際條約의 집행자임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專制政權에 대해 강硬的 태도를 취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美國機構가 지난 가을 하이에에서 일어난 군사쿠데타에 대해 그 威力를 과시했다.

이러한 분위기과 法의 支配에 대한 美國의 강한 전통하에서 戰爭法과 그것을 해석하는 法務官의 역할은 미래의 군대에게는 중요한 관심거리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美國律師會雜誌: 91년 12월호, ABA JOURNAL/DECEMBER 1991에서)

공군으로서 공지를 갖고 있는가

자기의식

- 자기질학과 자기의식을 갖고 활동하는가
- 치밀하게 계획, 분석한 뒤 일에 들어가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꼭 하는가
- 늘 자신의 업적도야에 힘쓰고 기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가
-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생기더라도 화제와 흥기로 대처해 나가는가
- 창조적으로 입안하고 실현하는데 주저하는 일은 없는가
- 자기를 기만하고 과장하는 일은 없는가
- 충분한 식견과 자기개발에 노력하고 있는가
- 자기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부하들 앞에서 출선수범하는 관리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늘 정보에 민감한가
- 어려운 문제해결에 철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

지도력

- 부하의 의욕과 활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가
- 부하에 대한 신상필벌에 자신의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가
- 부하를 감정표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대하고 있는가
- 사태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사고와 분석을 하는가
- 타인 앞에서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가
- 부하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하는가
- 늘 부하에게 신뢰받는 상사라고 생각하는가
- 부하 앞에서도 자기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는가
- 상사다운 용기와 야량으로 부하를 대하고 있는가

업무능력을 15 배 향상시키는 업무개선 포인트 15

1. 현재의 일에 낭비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2. 타부서와의 연계는 잘 되고 있는가.
3. 업무에 보다 책임지는 일인가.
4.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일인가.
5. 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가.
6. 업무를 현재보다 절반 가량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7.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양을 줄일 수는 없는가.
8. 더욱 계획적으로 일할 수 없는가.
9. 약속날짜나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10. 비용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11. 오류나 실수 등으로 수정되는 일은 없는가.
12. 더욱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가.
13. 회의를 줄일 수는 없는가.
14. 회의시간을 줄여 줄일 수는 없는가.
15.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는 원만한가.

Cockpit에서 바라본 세계



이 원고들은 영공 수호의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종사들의 수기를 모은 것입니다.

생생한 체험과 진솔한 감정을 바쁜 와중에도 글로 옮기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난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대출격, 최대비행



대위 김해봉
(제 5672 부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우리도 분명히 평화가 아닌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시대 이래 지상에서 1천명 이상, 해상에서 5백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두력분쟁 발생횟수는 우리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중동전쟁에서의 교훈에서 보듯이 평화적인 국제질서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실로서, 특히나 동서 이해 융통의 최후 방전지역인 한반도, 우리는 그 분단된 현실을 적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자면 누구나 생애 한번쯤 전쟁의 참여를 영광으로 생각하듯, 이번 걸프전에 부조종사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백리케리의 발처럼 나에게 있어서 비행기는 결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나를 창조해내는 수단입니다.

농부가 괄기를 사용하여 밭을 갈듯이 나는 비행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갈아 나가는 것입니다.

꼭 50여일동안 73소타의 임무비행과 147시간 25분의 비행을 함으로써 최대출격, 최대비행시간 조종사가 된 것은 잊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훈련이 결집되고 나서, 누구나가 겪었던 심리적 갈등이 있었지만 제게도 사실 전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파동의 혼돈이 있기도 했거니와 그것은 압신한 아내로 인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대화와 굳은 선념으로 기꺼운 마음을 안고 출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출격, 최대비행



우리의 군사력 구조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 구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공군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새로운 국방 정책에 따른 압도환경 변화와 태평양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의 작전 영역을 한만도 밖까지 확장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걸프전의 한국 공군수송단 파견의 의의는 군사적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던 나날들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물론, 환경구조와 무기체계 등 많은

상이점은 있지만, 작은 힘이나마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우리의 여전과 현실에 맞추어 좋은 점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매일밤 야간비행시에 보았던 오리온 별자리와 걸프만의 아침 풍경 그리고 콜롬보 해변가의 만조 등 아름다운 기억들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지구상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같은 출발 끝날 것 같고, 등 돌리게되며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이 있는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금수강산과 우리네 이웃,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F-15를 잡다!



서 구 명
(예비역 소령)

1978년 6월 7일 최초비행을 시작으로 '91. 5. 9에 이르기까지 비행생활을 하면서 '86년도 1차 통일훈련 기간중 실시했던 한·미 상호 전개 훈련에 관하여 기록하고자 한다.

그당시 계급은 대위였으며 고권을 주요한 편대장으로 기종은 F-4E였다.

'86-1차 필승훈련 기간중 우리 00대대와 미 36대대간 조종사 및 항공기를 상호 전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상호 지원체제의 발전

및 항공기를 상호 전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상호 지원체제의 발전 및 전지/전계기지 작전능력을 배양하며 전술전기의 습득 및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6년 6월 18일 설배일과 기대김으로 미군기지로 전개하였으며 전개전력은 항공기 4대 조종사는 총 10명(전방석 5명, 후방석 5명)으로 교관과 편대장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가본 곳이라서 상당히 낯설게

생각되었으며 대대 건물은 당시에 이미 방호벽으로 둘러쳐 있었으며 반지하화된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창구반, 식당 및 기계실로 이용되었고 2층은 작전계, 관제방, 휴게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대대편성은 대대장실에 비행대장반 위치하였고 비행편대는 우리와 상이한 3개편대로만 분리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너무나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평소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소 괴로움을 느꼈다. 일반적인 대대전물 및 구성에 대하여 형식없이 소개받고 당일 오후에 미군 2대의 F-16과 한·미 합동, 4대의 F-4E의 DACT 임무를 ACMI VAN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전술은 Pincer Attack을 사용하였다. 저녁에 미군의 초대로 ORIENTAL HOUSE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시 북한이 MIG-25를 도입하였으므로 MIG-25의 전방 무장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으며 MIG-25의 전방 MSL 및 기동성에 대하여 신중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으로 비추어보아 기동 성능 및 무장 능력이 우리의 F-4E에 비추어 보잘것 없거나 아직은 적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화식이 끝난 후 그들이 준비해준 숙소로 들

어가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자리에 들었으나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피로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쉽게 적응되지 않는듯 생각되었다. 늦게 잠든 탓인지 다음날 아침의 기상은 살피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대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1층에 위치한 식당으로 갔다. 계급에 구애없이 줄을 서서 취합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의 음식에 비해 기름지고 익숙치 않은 전통적인 양식이라서 비위에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만감마저 들지 않는 식사였다.

이 날의 주어진 임무는 대지 사격장에 연습탄을 투하하는 임무가 주어졌으며 편조는 1번기 2번기가 미군 이었고, 3번기 4번기가 우리편이었다.

그들과 브리핑 및 약속동작을 같이 하고 비행에 올라갔다. 대기사격 패턴에서 우리와 다른 것은 상당히 쉽게 패턴을 잡는 것이었고, 그들의 항공기에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 무기 투하 체계를 갖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계수는 우리가 월등히 높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은 맨 마지막에 생삼원 것으로 무장투하 능력 및 항법계통의 장미가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비행 및 대대생활을 그들과 함께하면서 좀 더 색다른 것은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것과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그것은 기계화된 4대의 비행편조수에 한사람이 브라핑 시간이 늦었는데 그 이유로 해서 1

대의 비행편조가 임무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엄격한 사고방식이 다소 배울 점이 있음을 느꼈고, 그날 그곳의 전대장인 대령이 유지비행을 실시하였는데 휴게실에서 샌백주를 직접 들고 들어가 다 브라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새롭게



F-15를 잡다/

느껴졌다.

대대 일과를 끝내고 우리는 한식을 먹기로 하였다. 그들의 식생활에 편승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일 듯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식과는 차이가 많았던 탓일 제다. 그날 저녁 한식집에서 먹은 열큰한 여게버 김치는 새삼스럽게 느끼는 우리 음식의 고마움이며 한 마디로 살 것 같았다.

셋째날로 접어들면서 조금은 그들의 생활에 익숙되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날 주어진 임무는 저고도 참투하는 미군을 뒤따라가며 호위하는 임무였다. 저고도 참투비행중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가상적군을 우리의 레이더로 근거리에서 포착하였다. 우리 편에게 적기의 위협상황을 알리고 그들을 요격하기 위해 레이더에 의한 전술을 적용하니 2대의 F-15기가 좌측 방향 10시 방향에 있음을 목격하고 기동을 시작하였다. 아직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듯 수평비행을 실시하다가 후미로 접근하자 좌측으로 급전환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내 나는 F-15기의 후방에 가까이 접근하여 있

었고 후방 가상무장을 발사하였고 기총공격의 거리로 접근하려는 조작을 실시하였다. 이때 F-15기는 다급한 상황을 인지한 듯 후기 연소 장치를 작동하여 시뮬전 불기둥을 뿜으면서 기절게 빠져나가려는 조작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내가 본 F-15기의 후기 연소장치는 그 덩치만큼이나 크게 보였으며 성공적으로 기총 무장 발사를 할 수 있었다.

항공기의 특성상 F-16과 F-4E는 비교할 수 없는, 한마디로 세기가 다른 뛰어난 항공기였으므로 내가 성공적인 무장발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운이 따랐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교전에서 느낀 것은 아무래도 훌륭한 항공기라 하더라도 조종사가 적기를 확인하지 못하면 잡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3년동안의 비행생활을 통해 그 당시와 같은 흡족한 임무는 그것도 상대가 되지않는 미군 F-15기를 가상적추시킨 기억을 지울 수 없는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 것 같다.

대대일과가 끝나고 미군들은 다음날 떠나게 될 우리를 저녁파티에 초대하



었다. 파티장은 미군 장교장임으로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으며 음식은 매우 맛의 기대할 의사파이가 2개나 준비되어 있었고 맥주와 약배일이 마련되어 있었다.

딱고 마시고 이야기 하면서 아쉬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이상한 게임도 즐겼고 30살이 넘는 노총각 미군대위는 식사를 부리면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파티를 마치면서 미리 준비된 선물을 교환한 후 우리는 그 자리를 아쉬운 마음으로 비

나 숙소로 왔다.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일찍 돌아올 준비를 서둘렀다. 장구를 메고 숙소를 떠나는 우리에게 그곳 대대장과 비행대장은 대대 말까지 배웅하며 사진을 찍고 서로 아쉽고 감사하면서 헤어져 돌아왔다.

비록 짧은 3박4일의 일정이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무척 길게도 다른 면에서는 너무 짧게도 느껴진 그때의 한·미 합동작전에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

F-15를 잡다!

첫째, 유익했던 사항은
실질적인 한·미 전개훈련 계획
확립 및 실시,
한·미 생활습관 타득,
미군의 대대생활 및 비행생활
에 대한 안전의식,
비행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토론
둘째, 추후 요망사항은 지속적인
한·미 전개 합동훈련이다.
특히 비행 이외에도 한·미 외교적
인 입장에 있어서 상호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다고 생각된다.



1991년 4월 어느날



대위 김 대 중

(제 5672 부대)

쿵쿵쿵 쿵 아득히 잠결에 들려 오는 소리가 해간잠을 깨운다.

최치한 어둠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불꽃 고는 저편인양 저놈의 발전기는 쉼이 없다. 그리고 모리, 판자집, 철조망 그리고 AL AIN.

막아놓은 창가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에 보인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킨다. 이런 세기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저녁내내 후줄근한 더위와 모기 때문에 잠못들다가

김사관. 아들 생각에 더욱 마음이 괴로웠다.

동서남북 방향감각도 없는 이곳 버려진 방 사막에 온저 한달이 넘었건만 계속되는 비행과 모래바람, 더위 이렇 쉬고 싶다는 생각도 힘들다는 생각도 모두 잊어버린지 오래다. 다만 하루하루에 안주할 뿐이다.

똑똑똑 비행나갈 시간입니다.

오늘 비행이 4시 30분 이륙이던가?

오늘만큼은 그냥 끊임없이 자고 싶
은데 현실은 나를 그냥두지 않는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비행 KIT
를 챙겨서 두거운 팔걸음을 옮긴다.
와! 이런 분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바람이 어토록
불다니? 마스크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보호안경을 쓰고 식당으로
가서 도시락을 챙겼다. 비행대대로 가
는 비행 CREW 들 일곱명 할식적인
인사뿐 아무말들이 없다. 비행대대화
고는 천막 밖에 있지만 그래도 모래
벽지 않는 곳이라고는 이곳밖에 없다.
WX BRIEFING와 정보 BRIEFING을
듣고 간단하게 비행 ROUTE 를 확인
하는데 이게 웬말인가? 지금까지 우
리가 사용하던 전술비행 ROUTE 가
점무 폐쇄되어버렸다.
비행 이륙시간은 한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어색한 말인가? 부랴부랴
JERSON CHARTER DOD 차트를 뒤져
서 가야할 목적지에 대한 IFR ROU-
TE 를 작성하고 FLT PLAN 을 제출
하고 접근절차를 확인하고 나니 뽕 한
조각 먹을 시간도 넘치지 않다.
정말 이런 날씨에 비행기를 띄울

것인가?

바람에 탬트가 필력이는 소리, 모래
바람, 간헐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 ...
ST-BY, ST-BY, ST-BY 할 중 알았
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나가는 거지 뭐
AL AIN TWR, ARMO 71 TAXING

IFR DHARNA.

ROGER ARMOR 71 CLAGAR TO
TAXI WIND 190 AT 35 GUST 45.

와! 정말 기가 막히다. 아직 해
도뜨지 않은 새벽 4시 10분 비바람,
모래바람에 단 몇미터 앞도 잘 보이
지 않는다니! 엉금엉금 기다서피 할
주포에 도달하니 또다른 한대가 용감
무절하게 이륙한다. 그제 죽기 아니
면 까무리치기다.

PWR INCREASE BRAKE RELEASE
함급기가 굴러간다. 날개를 기우뚱거
리며 겨우겨우 발향유지를 하여 이륙
을 한다.

고요! 정적

이륙한지 채 5분도 안되어 이렇게
고요한 또다른 세상이 있다니 전쟁이
있는 이곳의 하늘에 이렇게 고요함이
있다니



저쪽 하늘들이 빛을 말하며 서서히
땀아온다.

주여! 이번 이세상에 전쟁이 없게
하소서. 이런 고요함과 정적임을 편
안한 마음으로 즐기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비행을 마치면 집애다 전화를
해야겠다.

아들녀석 얼굴을 잊어버리지나 않았
는지.





특집 / 잊을 수 없는 나의 동료

화살과 노래

하늘을 우리리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땅에 떨어졌다. 어디인지 모르나.
그렇게 빨리 날으니
날아가는 걸 누가 볼 수 있으랴.

하늘을 우리리 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땅에 떨어졌다. 어디인지 모르나.
눈이 아무리 졸다한들
노래가 나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오랜 다음에 느티나무에
화살은 아직 그대로 박혀 있었다.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천구의 가슴속에서 다시 찾았다.

- H. W. Long fellow -

그 리 운 친 구 여!



중사 양 하 운

(제 5672 부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친구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뜻을 함께 하기에 슬픔은 반으로 나눌 수 있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라다. 그런 파도에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형제같은 친구가 있다. '84년 군 입대 동기이면서 같은 부대에서 7년을 넘게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이별갑 중사가 바로 그 친구다.

첫 시집을 출간할 때의 일이다. 주어진 군 임무를 마치고 밤을 새워가

며 작품에 대해 주고받던 진솔한 토론, 벼룩 하나를 놓고 며칠을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던 할들과 경험치 없는 탓에 여러차례 좌절하고 실을 써서로써겐 새로운 채색과 격려로서 이겨내고 끝내는 목표한 시집 출간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부터 계속해서 세워 이겨야 하는 숙제가 있었다.

그때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진솔하게 전해주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운 친구여 /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만큼 마음의 끈이 어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던 나의 진실한 친구 별갑이가 어느날 파루네로의 원숙을 간다는 것이다. 행일인지 그 날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 없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다해서 길게 응고된 우정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이별의 순간에 우리는 술잔에다 못내 아쉬운 마음과 굳은 약속을 쏟아 넣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생활 속에는 늘 너의 체취를 기억하는 마음이 자리할 것이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가도 변할 수 없는 참아움이 있는 한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별갑아 / 우리가 추구하던 세계를 향한 작꽃의 꿈을 높이는데 어둠을 쏘개어 육신을 불태워 보자. 자네가 떠난 후 문득문득 떠오르는 모습에 톨로 웃음지워 본다. 그때마다 자네와 나의 땅방울이 엉ळ진 첫 시집을 읽으며 취안을 삼는다. 지난날 파루의 늪에서 과감하게 일어서 나섰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리운 도전에

도 자네는 분명 해쳐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다. 우리의 소중한 약속들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알차게 꾸미어 보자.

또 자네와의 7년, 평생의 기억으로 남겠지. 언젠가는 다시 만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함께 할 날이 있겠지. 그때까지 친구여, 마을의 동반자여,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자. 나 역시 항상 자네가 옆에 있는 듯 생각하며 발전하는 내일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네. 아무튼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길 바랄게.

새로운 무대에서의 적응은 순조로운지 궁금하구나. 명심하게 자네 곁에 늘 내가 자리하고 있음을, 그리고 좋은 소식이 바람을 타고 내 곁에 날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겠네. 끝으로 평화로운 태양의 비소가 자네의 미래에 웃음지우며 서 있길 바란다. 그리운 친구여 /



잊혀지지 않는 나의 동료



충청 송 경 호

(제 5718 부대)

신은 우리 인간에게 가끔씩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내일을 계획하도록 적절히 세월의 매듭을 허락해 준 것 같다.

여월이 지나지 않으면 임박 15주년 이 된다. 생도생활 4년을 더하면 20년에 가까운 세월, 철들고 나서 보면 인생의 대부분을 푸른 동군제복을 입고 보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하였고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어릴적 동네 친구들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 친구들과 저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 몇몇 되지 않는다. 이제 오히려 굳이라는 딱딱하고 특수한 사회가 나의 마음에 고함이 되었고 그 속에서 새롭게 동

료를 만나며 마음을 주고 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보람자리가 되었다.

우리들의 인생을 만남의 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즐빈한 그러한 동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래전에 위었던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그 줄거리는 전쟁중 휴머니타에 입각한 인간관계라는 이론을 찾고 창산촌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들어가 포로들을 관리하게 된 한 젊은이가 포로들을 미수사전으로 인하여 불의한 사형이 계획되고 있을 때 자신이 밀고 또 그렇게 심원하려 했던 일본주의 이념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잊혀지지 않는 나의 동료

그것은 평소 포로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강조하고 노력했던 그였지만 어불의한 사형에 반기를 든다면 반역의 오라에 묶여 최일선 전투지역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외로운 투쟁과 내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망황하고 있을 때 포로대표가 찾아와서 “가지세 고독이란 인식부족입니다. 이제살 어느 한구석에 당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식하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가지는 마침내 불의의 사형장에서 용기를 내어 사형을 거부하고 포로들을 구했지만 결국 전방전선으로 끌려가 최후를 마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모퉁이에서 배로는 용기를 필요로하고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인식의 대상이 있다면 주저함이 없어 우리의 뜻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이러한 인식의 대상으로서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다.

우리의 만남은 비행단장과 정가과장



이라는 엄청난 작위와 연렐의 차가 있었으나 다만 한가게 정예조종사 양성이라는 공통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격이 없는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조종학생교육에 적지않게 이바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3군비는 뚜렷한 장기발전 계획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그분을 통하여 계획이 가시화 되었고 그 계획의 일부분에 참여하면서 공군생활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당시 구상하고 추진했던 장기발전계획을 몇가지 예를 들면, 조종학생 타운을 구상하여 현대적인 숙소를 설계하고 종합제련단련시설 그리고 수영장 을 비롯한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구상하여 장기계획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비록 예산이 삭감되어 본래의 계

획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부하에게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알찬 숙소와 시청자교육실을 비롯하여 경시할양을 위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장기적으로 신혼련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고등비행훈련기인 T-33 항공기의 가장 큰 단점인 사제계지를 신행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저급은 제레식 자제제로 인한 조작의 어려움이나 불필요한 비행소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일일이 나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보다 그 작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대 최고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잊지 않고

부하들과 더불어 열려하고 연구하므로 출산하여 참여하였고 진행과정이나 결재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신 그 지휘관에게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트는 다른 상관과 대화나 결계를 받는데 있어서 쫓듯하게 서서 정직한 분위기와 위세에 눌려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시에 대한 수용을 감요받으며 뛰돌아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분은 하루리 반듯한 결제라 하더라도 꼭 차례에 얹히고 지시를 하기보다 오히려 듣기를 즐겨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인 지시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제시로서 참모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부하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으므로써 열심히 일하게 된 동료들을 볼 수 있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부하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그처럼 큰 힘과 결속력이 되어 부대

잊혀지지 않는 나의 동료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음을
자신과 동료들을 통하여 실제로 체험
하게 된 것이다.

나는 군생활의 여러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같은 이
념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분들 바로
나의 동료로서 인식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의 조건 속에서 주인공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인식의 순간
처럼..... 나는 또다른 인식의 대상을
찾기를 원하고 한번 나 자신도 그러한
인식의 대상이 되어주고 싶다.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한귀절로
글을 맺고자 한다.

..... 전락

온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
울 때도 '저 말아야' 일어지는 그사
람 그대는 가졌는가

..... 중략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리줄

그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 중략

온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사람
을 그대는 가졌는가.



기 획 화 보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안동천호마을 풍경 신 연 기

푸른 들
푸른 山河,
푸른 하늘 위,
번득이는 銀翼에 바음이 날온다.
조국의 영광을 안고 젊음이 난다.
오늘도 온누리에 흐르는 복음은
벅찬 내일への 희망의 노래,
노래 속에 이어가는 조국이 빛난다.
아아! 하늘이 오란다,
하늘로 가자.

李 閔 秀

— 하늘로 가자 中에서 —

기 회 화 보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단양 소림 김 영 석

푸른 하늘을 응시하고
 보라매의 날카로운 눈매에.....
 먹구름 걷히우고,
 햇빛 찬란한
 조국은 빛난다.
 오! 나의 땅,
 우리의
 나의 조국,
 그 어느 한치의 그림자가 덜하랴.
 가슴에 명울진 뱃 그림자,
 노여움에 떨고
 완勝을 다짐하며
 보라매는 치솟는다.

윤 정 호
 — 執念중에서 —

기 회 화 보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동대 중위 김 용 홍

우리는 날고 있다.
우리는 날아야 한다.
이 비행은 관촬이 아니라
이 고생은 사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력은 공연한 것이 아니라
先祖代代 열이 담긴 이 땅의
장한 아들들이 지루어야 할
값있는 희생이라는 것을
날면서 알아야 한다.

田 在 深

— 하늘을 날면서 中에서 —

기 획 화 보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인동호 음탕 최 장 기

하늘을 찾아오르는
우리의 젊은
우리는 空軍이다.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조국을 위한 숭고한 결의의 길
그 누구가 우리를 달하랴

田 在 洙

— 찾아라. 空軍이어! 中에서 —

기 획 화 보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현 라 산

저 푸른 비탈을 보라,
내 당산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
동해 토함산 해돋이로부터
시작하여 多趣湖의 오후
그 조류별 물길로부터 시작하여
유유히 한강에
아! 금빛 노을이 되어.....

아 조국의 하늘은 오늘,
합창 개신가를 마련해 두었다.
저 경활한 자유를,

馬 鍾 基

— 祖國의 하늘은 中에서 —

기 획 화 보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전 투 대 교

그러기에
하늘의 看守는
바와 바람과 안개도
벗어나고
반짝이는 물결으로
照明彈을 발하여
祖国을 날으는
의연한 보라매 —
세월에 열룩진
푸른 조국의 하늘을
타고 있다.

하 룡 승
— 祖国의 하늘 중에서 —

기 획 화 보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만산반도 출판 권 일 만

그대 하늘의 용사들이여!
 그대 일길래
 조국하늘 아래 사는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숨길 수 있고
 내일향한 영광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거늘
 폭음도 우렁차게
 높이, 가차게 날으라,
 날으라, 하늘의
 용사여,

朴 和 穆

— 하늘 용사에게 부치는 詩 중에서 —

기 획 화 포

전투조종사가 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서해안 소란 송 일 호

보라배여!
너는 한국의 空軍,
너의 고향은 하늘이다.
네 날개는 조국에
너의 動力은 민족의 피다.
날개 부러지고 영웅마저 되지퍼
너는 萬春의 꽃일처럼
碧空에 활날란다.

조 지 훈

— 너의 功勳으로 백일이 빛났다 중에서 —

보배 같은 선물



5급 이 회 호

(재 2762 본대)

새 달이 바뀔 때마다 전출임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무실내 변동
이 많이 생긴다. 그 때마다 우리는
직별의 정과 환영을 대신하여 간단한
게 회식을 하고 정원이 모여 기념촬영
을 하여 두었다가 얼마 후 그 사
진을 보면 현재의 요원들은 그 백의
모두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
이 되어 변화가 있음을 볼 때 “새

월은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가끔씩 앨범을 펼쳐보면 지난날 같
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찮은 일
무 미흡조로 회를 내면서 얼굴을 붉
힌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은 덕담과
함께 보르게 사평과 지도 편달로 마
음에 새길 수 있는 주옥같은 말씀을
하여 주시어 나의 일상생활에 필수적

보배 같은 선물

인 인생의 지침서로 과후명을 만들어 주신 잊을 수 없는 선배님 한 분이 계셨다.

이 분의 생전 철학은 「一切唯心造: 매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이란 사 고 방식이다. 물론 이 말은 불교에서 나온 고승 원효대사의 유명한 말 씀을 인용한 것인데 훌륭하신 선배님 이 나에게 물리준 보배같은 부형적인 선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먼저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일들이 다반사 였다.

일례로 주어진 업무가 이 일 말고 도 주워줄 다른 일이 있는데 왜 나 만이 해야 하는지, 공동 생활에 왜?, 나혼자만이 하면서 ... 폐사를 부정적으 로 생각 하다 보니, 자연히 요청과 적당주의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 위로부터 실절 하다는 평을 듣기가



어려웠다.

선배님께서 배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너무나 고지식 하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살아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분이 정년 퇴임을 하실 무렵 조심스럽게 선배님 권역을 하시면 부디 사회에서는 “배사에 적당하게” 살아가주세요. 너무 무리 하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세상 만사를 적당하게 살아가시면 크게 하자가 없을 것이니 한번쯤 생각하여 보세요.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법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이란 처신이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니 선배님께서는 그래도 자신의 생활 철학은 「一切唯心造」 즉 “NO” 보다는 “YES”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신을 성공시키는 비결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여 주셨다.

세 사람의 작품 중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배필 망치질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늘 물결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고, 두번째 사람은 이것이 나의 운명이니 되는데로 망치질로 하루 하루를 보낸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세번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훌륭한 작품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애송품으로 사랑을 받고 어떤 훗날 후손들에게 유물로서 보존도 된다면 이 일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 일까 하면서 일을 하는 석공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좁은 소견에 퇴임을 하시는 선배님에게 마지막 좋은 선물이라고 드린 말씀이 배사에 적당히 그리고 요령있게 생활에 임하시면 항상 마음이 편하여 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차원이 낮은 나의 사고방식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후임인 나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은 一切唯心造란 그



보배 같은 선물

깊은 뜻을 듣고선 그동안 배사의 부정적인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좋은 동기가 되었다.

자신의 강력한 소망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따름이 있을 때마다 시련만큼 설득이 온다는 생각을 가져보니 추운 겨울 아침에 구보는 자신의 체력 단련과 건강을 위해서, 삼관으로부터 지시된 새로운 업무나 개발을 요하는 일들은 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음하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이 그렇게 면할 수가 없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은 선배님을 모셨지만 내가 그런 훌륭한 보석 같은 분을 일찍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나 자신의 부덕함을 알 수가 있었다. 이제는 회담을 하시고 우리 집을 떠나신지도 벌써 수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한민씨 그 분이 보고실고 그마워 진다. 무척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로 모든 후임들에게 존경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삼관이 된다면 후임들이 나처럼 따라 갈 수 있는 내사람들이 있어 주도록 원만하게

살아야만 할 텐데 하고 어떤 훗날 나의 자화상도 상상해 보았다.

지금은 찍어나 많이 늙었으리라 생각을 하여 보니 지금은 모든 일들이 이미 과거로 흘러 가버려 추억 뿐이군 무척 좋으신 분, 옛날 나의 삼관으로 멋진 대장부로 술도 매우 좋아 하였고 가끔 파음을 하시던 건강이 열려도 되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도 하구나?

지난 연말에는 보고 실다고 포함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그 이튿날 대교로 올라 오시며 보고 실면 그 분을 다시 만나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우리 집을 떠나신지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에 머리는 벌써 반 백이 다 되었고, 한껏 잃은 피부와 얼굴에는 잔주름이 너무 많아 인생 무상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아주 한잔 권해 드리면서 선배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복잡한 세상 적당하게 살아야지 너무 적극적으로 살아 이렇게 많이 늙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니 이사람아 / 자네도 이제는 멀지않아 조금만 있으면 나처럼 초로

의 세월이 눈앞에 와있지 않는가?

늙어도 젊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젊음이 아닌가?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있고 "못한다고" 생각할 하면 못 한다면서 배사를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신에게 명령을 하라고 의미깊은 말

씀을 또 하셨다.

큰 그릇 큰 인물 진짜 일찍 알아서 모시고 많이 배워서 할 것을 하면서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버려 옛날처럼 매일같이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이나 아쉬워 해보았다.

- 풍군 제 2762부대 제 40 보급창(관)

5344, 5334 사무관 이 회호 '91. 2. 6 -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중위 권 승택

(제 3591 부대)

생도 1학년배일 것이다. 당시 대학 신입생 등 젊은이들에게 폭넓게 사랑받았던 유안전씨의 '저한 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이 있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자신의 치부를 들어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갖고 싶다는 것이 그 수필의 내용이었다.

그 수필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던 친구의 상을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한데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반 늦게 찾아가도 거역이 반기며 차 한 잔을 나누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에게는 격려와 치장없이 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나 사이에는 나이와 직업, 그 외의 모

든 것도 겹쳐버릴 수 있고, 단지 그와 내가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친구.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기쁘기만 하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 관포지교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친구를 갖기를 희망하고, 그런 우정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진리 앞에서 자신 있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4년의 생도생활과 2년여의 비행 훈련을 보내고, 전투 비행 대대

에 계속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똑같이 힘든 과정
이었어도, 동기생을 위해 끌어주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많은 동기생
들이 있었기에, 힘들 때 처지는 동기
생을 위해 한편의 '파이팅'을 외쳐
주는 동기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

다른 사회에 비해 조금은 절제되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기에 다른 이
들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어려울
때 웃을 수 있는 여유와,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훈
훈한 온기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
까? 더구나, 우리들은 액트는 피를 합
쳐 나눌 수 있는 전우적기때,



「 1 - 8 1 」



일병 박 준 호
(방공포병학교)

며칠동안 내린 눈이 녹아 떨어거리
는 연변장에서 화이팅을 외치며 시작
되었던 군생활, 벌써 1년전이라는 아
득한 옛일처럼 여겨지지¹⁾ 돌이켜보면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다.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빙벽처럼 여
겨졌던 조교들의 숭박함²⁾ 듯 조여오는
발 한마디에 거부할 의사조차 없이 응
할 수 밖에 없었던 훈련소시절, 「1-
81」번 이름조차 기억해내기 힘들정도
로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그는 아직까지 내 가슴 한구석을 틀어

박고 있다.

내가 그와 말을 나누기 시작한 것
은 평소한지 며칠이 지나서였다. 바
로 열자리에 있었던 그에게 쉽게 말
을 붙이지 못했던 이유는 나보다 적
어도 한두살쯤 많아 보였고 자유시간
이나 기차 등나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지 기도 하는지 알 수 없
을만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활한 키에 비해 형형없이 말하던
그의 육체를 보면 약골이라는 생각을

하지않을 수 없었다. 행동은 지나칠 만큼 느렸으며 복창소리는 조교가 서너번 다시 시키고 결국엔 육종 한바탕 해대야 겨우 입밖으로 원소리를 내깬곤 했다. 그런 그였기에 아무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특히나 내 시작에서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로만 비쳤다. 누구에게도 도와 달라는 말 한마디 없었고, 또 남을 일부러 도와주는 기색도 없이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했다.



컴퓨터를 잘 다루었는지 가끔 토론 시간에 열외하여 여자가 가곤 하였다.

참으로 우수한 것은 그는 결코 군대라는 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말이 시원하다고 흰 양말을 몇 켤레씩 숨겨놓고 신고는 했다. 나중에 동료에게 들은 말로는 처음에 왔을 때 두툼한 책 몇권과 어머니님이 쓰시던 큰

로션을 통째로 가져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내복까지 챙겨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불편 했으며 여러가지로 힘들었다. 행동이 항상 남보다 늦어서 처음에는 몇 번 도와주곤 했는데 나중에는 짜증을 냈고 “아! 입마 정신 좀 차려”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표정과 또 인생경험을 다 해 본 고령자의 목소리로 허허로운 웃음을 내 뱉곤했다. 마치 동생을 대하는 듯 혹은 무엇인가 풍담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말투 때문에 그와 말도하기 싫었다. 내 심중을 간파하고 있는 그에게 도둑질하다가 붙인 사람처럼 변명하곤 했지만 아무튼 나로서는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한 순간일 뿐이야, 그 일수도 있지” 그가 잘 내뱉던 말이다.

그러던 어느날 훈련소 생활도종반은 발점으로 토요일 점심식사 후 더블백을 써서 연필장을 받게 되었다.

순전히 시뮬레이션에 걸려든 것이다. 우리들 속에 끼어있는 그를 발견하고 찢찢했다. 분명히 뒤쳐 질 것이고 그 이유로 욕 먹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잿빛 겨울하늘 아래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두시간이면 끝날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두시간이 지나도록 가끔씩 멀리서 지켜보는 조교만 잠시 왔다 갈 뿐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일이 흐트러지면서 그는 맨 뒤에서 빌빌대고 있었다.

철모 밑으로 맑은 비오듯 쏟아지며 거친 호흡에도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뒤를 완전히 따랐다. 찌푸린 하늘은 마침내 눈물을 쏘내고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다.

수분을 한껏 머금은 안개속을 우리는 부유하듯 걸어가는데 철모에 물기가 묻혀 한방울씩 어깨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서서히 젖어들었고 군화에 흙탕물이 들었다. 오랜 침묵을 끊고 말을 던진건 오히려 그랬다. “어때 힘들진 않아” 어이가 없었다. 분명 빌빌하며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은 그였고 그래도 답한건 나였으며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아”라는 말이 적당할때 그는 오히려 나를 염려해 주고 있었다. “걱정마 난 끔찍없어”, “그땐 제 톤톤 하군 난 이곳에 와서 백운케 하나 있지, 가끔씩 육체를 괴롭혀 줄 필요가 있다는거야 그동안 내 육체를 한 번도 괴롭히 본 일어 없어, 그전 내 살수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곧 극복해 낼 수 있겠지” 그는 자못 심각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한시간도 채 안되 그는 다리가 꼬여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일어나면서 허허로운 웃음을 토해냈다. 처음으로 그와 그리 오랜시간은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었다.

아니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나의 분격이었다. “넌 너무 완전하려고 하는데 완전 해 하지도 여기는 군대야 힘없는 숨은 쓰러지는 곳이란 말이야” 그때 빌빌서 조교의

손짓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뒤로 어느때와 다름없이 그를 재
했고 변화가 있다면 가끔 그가 먼저
말을 전내는 거였다. 막바지에 참여
들무렵 마지막 고비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40km 행군' 모두 긴장했고
마치 전투에 나서는 별사처럼 두려움
에 떨기도 했다. 하늘은 우리를 시
험하려는지 행군준비를 막 끝내고 연
병장에 집합할 무렵 손톱만한 눈이 내
리기 시작했다. 행군은 예정대로 실
시되었고 "정전차려 땅이 일면 미끄
러워진다. 조심해라" 라는 조교의 고
함소리만 커져갔다. 눈은 그칠줄 모
르고 하염없이 커부었다.



한 두명씩 미끄러지는 사람이 나타
나면서 속도는 지연되었고 모두 "눈
만 아니라면" 하며 울상을 지었다.

온 산야가 눈에 뒤덮여 눈부셨고

경첩이 뿔어있는 산이 바닷가 파도가
부딪쳐놓은 못발처럼 하얗게 일어나 넘
실거리며 우리에게 달려들것만 같았다.

"눈물고개" 그냥 오르려고 해도
땀줄어 눈물이 날 "눈물고개"를 미
끄러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아무
도 소리치지 않았다. 조교의 고함소
리도 사라졌다. 나는 신음을 토해냈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끝이다, 여기
가 나의 한계다" 터질듯한 가슴을 억
누르며 발악 하였다. 그때 어디선가
나즈막한 목소리의 노래가 들려왔다.

그것은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희망
이 있었다. 지금도 환송가인지 굿가
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 모두들 고개
를 둘러 굿이 확인해 불리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노래소리에 동화되
어 묵묵히 무거운 발걸음만을 내딛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바로 내 일자리의 「1-81번」 그의 목
소리라는 것을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따라 부르려다 그만 두었다. 그때야
만 알 것 같았다.

눈물고개를 넘어 휴식시간, 그는 한
쪽 벼랑끝에서 눈부신 산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걸 알



아왔는지 조용히 웅얼거렸다. “현실이 교활수록 자연은 낭만적인 것인가.” “그래 자연 아름답구나.”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분명 저쳐 있었지만, 조용히 내려다 보고 있는 그의 눈만은 결코 저쳐 있지 않았다. “그만 출발” 모두를 지원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행군이 계속되는 순간 나는 심한 질막감에 빠졌다. 견딜 수가 없었다.

주저 않고 싶었다. “세발 세발”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알이 가물거리고 내가 과연 견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쓰러지고 싶다. 그 순간 내 어깨를 누군가 잡아 주었다. 그였다. 그는 내 아살을 베어뜯어 주었고 부축해 주었다.

“도대체 이럴수가 있나 이놈은 악 끝이야, 이놈은 악끝이란 말이야” 언젠

하고 싶지 않았다. 나를 부축해 준 사람이 그가 아니길 바랐다. “자네 보기보다 학하군 아니 자네의 육체는 강하지, 하지만 자네는 육체를 괴롭히는 일만 했을 뿐 가끔씩 정신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았군. 나두면 그 내로 질지때 버리지.”

아, 난 눈물이 나올려고 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이었고 동시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을까. 가까스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물집은 잡히지 않았다.

반나절 자고나니 쉬지는 곳도 하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세게 발뚎어 쪼여져있고 그로인해 의무대에 들어가 하듯동안 있다가 왔다. 그런 그에게 부축당해서 온 것이다. 나는 끝내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할파하게 숨어있던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열차를 타기 위해 연병장에 집합해서야 그가 이미 입소대에서 풍수특견단에 지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1-81” 그는 더글백을 색고 색어

지면서 나에게 잠시 손을 흔들고는
허탈한 웃음판을 남기고 사라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잊을 수 없는 나
의 동료라는 미명하에 그를 기억해낸
것은 아니다. 물론 혼란소시절 잠깐
의 만남이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연결
되지 않지만 가끔씩 그를 기억해내고
나 자신이 육체와 정신을 괴롭히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그에게 말
해주고 싶기도 하다. 그것은 인간의
애어내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며 약
해지지 않기 위한 인간의 발악적 본
능일 것이다. *1-80* 이 번호는 혼란
병 때의 내 번호였다. 그래서 여기 1-
80 도 곳곳하게 잘 있다.



한 밤에 걸려온 전화



중위 문 종 진

(제 3252 부대)

휘몰아치는 바람소리가 창문을 뚫고 조용한 밤안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는다. 잠이 오질 않아 얼치각 귀치락 거리고 있는데 벽표를 거리며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재빨리 일어나 수화기를 잡고 있으니 「여보세요, 여가 부산민태요. 문 종진씨 데이 맞지요?」 패나 먼 장거리 전화다 음성을 듣고보니 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뻔하니 「음 너 종진이구나 이만갑다. 나 최성규야」 성규! 죽지

않아차필수가 있었다. 「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처음엔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때 요즈음 근황은 어때?」

「나야 잘있지, 전장은 좋으나?」 「그때 덕분에 이자숙아, 친구지간이란 서로 자주 보고 왔다갔다 해이 친구가 아남가」 「그때 미반해 도무지 겨주지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일마 나 KAL에 앉았나」.

우리는 이런식으로 30년만의 긴 세월 속에서 잊혀간 친구를 알게 된 것이다.

그 옛날 30여년전 공군에 함께 입대하여 젊은날의 꿈과 남만을 군에다 바치고 그는 10년전에 군복을 벗고 나와 헤어졌다. 그 이후 그는 대한항공사에 들어가 군에서 익힌 숨쉬를 그대로 인정받아 과장까지 승진했었다.

그 직장에는 나의 동기생들이 많이 있어 마치 옛 군생활의 연장처럼 오손도손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릴 몇번 들은적이 있었다.

그와는 유별리 흰군갑을 입고 살아왔다. 초년병 시절 한 비행단 한 대대에서 동고동박했고 술도 배나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술타령을 했었다.

생김새는 석류선수처럼 체격이 우람하고 키가 장대하여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점이 있었다.



말수가 적고 생장한 얼굴. 처음 사귀기에는 힘이드는 그런 인상이었으나 하루 일년 지내고 보면 인경미가 넘치고 유머가 풍부하여 내두반네치는 안기가 대단했었다. 그 당시엔 군기가 얼마나 엄했던지 동거생 한 사람 잘못하면 전체가 하사관실에 불려가 말하기 힘든 물리적인 벌을 받고 왔었다.

그는 특히 술을 찾았다. 술이 아니고서는 화를 풀길이 없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점호가 끝나기를 기다려 동거생은 모두 주보(현 BX)로 몰래 가서 끼엿는 술로 청춘의 외로움을 달랬던 것이다.

사실 다 잊어도 옛 동거생들은 잊을 수가 없다. 옛말에 애머편이 친구라 하지만 그것은 유년시절의 소꿉동무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여 몇 개 된 친구는 뉘너해도 군의 동거생이다. 그때 우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고 문장 간다는 곳이 군대였다. 하사관이 된지 병이 된지 모르고 들어와 보니 장기군부자란다.

한 밤에 걸려온 전화

우리는 방면지상하고 이를 악물며
억겨운 군생활을 해오면서 어느새 동
갑이 가고 신세가 똑같은 동기생들
끼리 친구처럼 우정을 쌓아가면서 작
구한 꿈군의 역사와 함께 생활해 왔
던 것이다.

꿈안같은 지나간 세월이었다. 지금
은 다 50 고개를 넘어섰고, 모두가 다
방면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주로 항공사나, 대기업 항공산업 분
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각 지구별로 동기생 모임을 갖고 한
두달에 한번씩 만나 옛 정담을 나눈
다는 것이다.

내 동기생들도 얼마 안있으면 모두
정년퇴직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
랑이한 나이가 들수록 옛날이 그리워
지는 것일까. 지금처럼 그들의 아는
얼굴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다.

초창기 시간 깊은 명상속에서 떠오
르는 것은 동기생들 뿐이다.

몇년전만 해도 이렇게는 알았었는데
지난 겨울 대구에 갔었다. 물론 동
기생 차에 결혼식이었다. 20 년만에
살롱했기에 그런지 처음엔 열 누군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러나 식사를
하면서 옛 추억을 꺼내놓고 얘기 하
다보니 바로 내 구대에 있었던 사람
이었다.

오랜시간 얘기하다보니 차 시간이 임
박했다. 일어서려니 못가게 잡는다.

하룻밤만이라도 자고 가라는 것이다.
끝내 간다 못간다 실림이를 발인 것
이다. 우리는 정말 떠날 수 없는 인
연들이다. 며칠간이고 눌러 앉아 30
년 세월속의 만남이라 밤을 지새우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나는 정년이 끝나면 이들을 찾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예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어 볼 작
정이다. 물론 무산에 회심규예게도
가보리라.



갈매기조나단



중위 **홍 순 택**

(제 3758 부대)

생도생활을 비롯해서 졸업술 하고, 지금까지 비행생활을 해오면서 참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 모두들 한 사람씩 배어놓고 버울리민 다 좋은 사람들, 그대도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있으니 지난 불국탑표지를 함께 하고 적은 그날의 일기에서 잊을 수 없는 우리 동료의 가르침을 지켜볼까 한다.

박형 /

형을 잃은 슬픔이 세 가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우리의

동료 한 사람이 그대 철으로 떠나갔소. 그동안 꿈꿨었는데 쓰라린 기억들이 뇌리에서 잊혀질만하면 라나씩 생각나게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모든 불완전한 복잡 요인들이 어느 한 곳에서 모여서 이루어지는 확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외에 우리들 나약한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관여할 수 없는 무엇이 속을 저편에 걸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버티고 있기 때문일까요?

형?

그러나 더욱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고민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횟수가 적어지고, 느낌이 감소하고, 신문 한 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사건으로 밖에 점점 그 의미가 무디어 지는 것은 또 어떻게 지나온 길을 성찰해 보아야 할런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늘 나에게서는 예외일 것이라는 내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로 아무 노력없이 하루 하루를 생(生)의 일부에서 지워나가는 우리 모두, 혹은 그럴듯하게 매워나가고 있다는 우리의 망각이 더 큰 불행임을 불러오는 그림자는 아닐런지요?

박철 /

행을 어떻게 대하고 있노라니 문득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조나단이 생각나오. 날고 있다는 것을 날만으론만 묘사하지 않은 - 날개가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는 출항 역경을 헤치고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억이를 참는 비련의 삶을 초월하는 외로운 갈매기 말이오. 그렇다면 이렇게 날아 있는 우리들도 삶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할줄 알고, 끊임없이 번거

해 참 자신과 싸워야 하는 의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의 죽음은 창으로 승고 했습니다.

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떤 할당한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청춘을 다해서 이 세계에서 끝까지 날 수 있는 생(生)을 오로지 비행으로 일관할 수 있는, 어느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지 않는 자아의 확고한 논리 말입니다.



때문에 평소 나머지 삶에서 우리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역경이라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청진하면서 이런 우리의 생활이 이 땅 어느 사람에게나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논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오. 그렇다면 조종간을 놓는 그 순간까지 삶을 되돌아보아서 절일을 쓴았던 지 하늘에서 새 발을 얻는것, 그리하여 하늘에 걸었던 형과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코 헛

되지 않았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테니까요.

형!

행운 잃은 슬픔은 컸지만, 우리 모두에게 잊혀질 수 없는 영원한 친구로 이런 깨달음을 준 형의 죽음은 결코 화를일 수 없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요행은 아닐 것이오.

신(神)이 거두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상의 모든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정신을 행운 앞에 두고 전지하게 다짐하면서,

신념(信念)의 조인(知音) - 역시 형은 죽어서도 말을 하는군요.

아름답고 값진 고인의 그대앞에 삼가 명복을 빌며 국화꽃 한송이를 놓고 길너다.



友 情 의 意 味



중위 홍 준 표
(제3975부대)

우정의 친구여,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쌀쌀하군. 친구! 자네의 소식을 기다리다 지쳐서 잠시 풀어진 날개를 가다듬고 있다네.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보도를 들을 때마다 친구의 안부가 더욱 걱정이 되더군.

친구여!

꿈은 여전한가. 사람이 꿈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은 꿈은 쫓는 것이라 생각하네. 사관학교 가입고 직장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군. 무론 꿈, 상상의 꿈을 품고 성문대 언덕을 넘어오는 설고 배기 넘치는 날카로운 눈매의 독수리 새끼들 말아야. 물론 자네와 나는 추구하는 생각이 같지만 행동하는 공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우린 진정한 부른 세복의 사나이라는 분명한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

는가! 물론 자네와 내가 조그마한 선술집에서 조국의 운명을 오직 우리 불쌍이 떠맡은 것처럼 주고 받던 이야기가 생각나는군.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네. 우리가 맺은 友情의 결의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신성한 약속이라 생각하네.

요즘 주운 날제와 산악과 속에서 조국 안화를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자네의 모습이 눈에 선하군.

나 역시 보이지 않는 휴전선에서 네모습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네. 가끔은 너무 번개처럼 내모습에 실망도 하고 있다네. 생도 1학년때의 그 꿈들이 지금은 내 가슴 어느 구석에 남아 있는지, 그 형기, 그 당당함, 그 기백, 더욱 앞뒤 생각없는 행동들이 있고 속이 빈 겉치레같은 행동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순수한 생각과 행동보

다는 현실에 너무 급급한 것 같다네.

3차원 공간에서의 내사랑 타이거는 가끔씩 나를 조롱하고 있기도 하구말야.

친구!

작음엔 F-5라는 친구와 싸우느라 사 고니, 잔리나, 잔실이네 하는 것을 생



각할 여유가 없었고, 또 그럴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 하지만 버릴진 채꽃 이에서 누워 먼지를 킁킁어 쫓 물고 성전을 꺼내며 먼지를 닦아 내는 순간 뭉득 스쳐가는 깨달음이 있었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내 호흡과 진 리와 믿음으로 숨쉬는 내 영혼의 호흡이었네.

산다는 것은 죽음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듯이 진리와 신앙 또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작은 깨달음의 종소리가 한시 내 주위를 맴돌아치고 있다는 사실말일세.

내가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의미

를 찾고 실다는 생각을 했다네. 무 작정 감정적이고 과학적인 혹은 전투 조종사의 절반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 하네. 자네 역시 고공 낙하의 빠릿한 순간의 기쁨이 자네 인생의 전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네. 나는 가끔씩 비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다네. 이십은 백두산에서 자네와 부 뚱켜 안고 국산 맥걸러를 한잔 마시 고, 현실의 냉철한 이성을 힘써 자신 이 받고 있는 작우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언제나 서 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우정의 상아탑을 쌓는 길이라고……

친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나에게 자 네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 는군. 정말 어려운 곳에 있었단 자 네와의 추억들이 내게 힘을 주곤 한 다네. 서로 도우며 서로의 꿈을 이 루어 가세. 꿈을 잃은 젊음과 배기



들 잃은 젊음을 푸른속에 임목재를
잃은 나팔구는 낙엽이라 생각하네. 우
리의 우정은 낙엽처럼 슬한 사람들에
게 밟히는 낙엽보다 모든 이들에게
편안한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파릇
파릇한 잎이 되도록 서로 도와 나가
세.

친구/

자네는 지상에서 그리고 나는 하늘
에서 열심히 생활하세. 그리고 한가
지 더 부탁한다면 우정보다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후

회를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의 友情 그
튼튼한 意味는 자연스레 이어져 나갈
것이라 생각하네.

친구/

백두산 정상에 배극기를 쫓는 날까
지 진감하게나. 언제나처럼.

1992년 1월 25일

여천에서 준표가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변화

- 현재 1특별시 · 2직할시 · 9도 · 22시 · 149군 -

남북분단의 세월은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에서도 실감된다. 분단 4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은 너무나 많이 변해 옛지도로는 묻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된 것이다.

북한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모두 약 45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으며 1천여곳의 지명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6도 · 8시 · 89군이던 것이 1특별시 · 2직할시 · 9도 · 22시 · 149군 · 37지역 · 424리(동)으로 변했으며 (한국 1특별시 · 5직할시 · 9도 · 67시 · 137군) 유사같은 옛지명들도 엉뚱한 이름으로 고쳐졌다.

북한이 행정구역을 개편한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통제를 위해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52년 12월 기존의 도 · 군(시) · 면 · 리의 4단계 행정구역체계를 면을 제외시킨 3단계 행정구역

체제로 개편, 군(시)을 행정단위의 중심으로 삼아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행정구역의 수를 한국과 같은 수로 늘림으로써 그들이 즐긴 주장해온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경우의 지역대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양강도 · 차강도(兩江道 · 楚江道)를 신설하고 북한지역에 편입된 강원도에다 경기도지역과 함남도(咸南道)의 일부지역을 통합해 강원도를 보강했으며 황해도를 남북도로 분도(分道)함으로써 도의 수를 한국과 같이 9개로 늘리는 한편 3단계 행정구역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폐지된 면을 정리 · 병합하여 군을 대폭 증설했다.

52년부터 행정구역체계서 면 제외시켜

그리고 북한이 고유한 지명을 대대적으로 개조한 것은 지명조차 김부자(金父子) 및 가계수상화에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부자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변화

및 가계무상화를 위한 직접 개조에는 특히 김경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될 '80년대 이후 부쩍 늘었는데 무상화외 관련된 지병만도 무려 1백여곳에 달한다. 이를 무상화 관련 지병은 김

부자가세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해 지명
으로 사용한 것과 김부자의 「위대성」
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를 사용
한 라정적인 방법 등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81년 8월 양강도

《北韓의 行政區域圖》



신라군을 김일성의 전처이며 김정일의 생모인 김철숙의 이름을 따서 「김철숙군」으로 개명한 것을 비롯해 '88년 8월 양강도 후창군을 「김형직(김일성 부)군」으로, '90년 8월 양강도 풍산군을 「김형권(김일성 숙부)군」으로 개명한 것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김부자체제를 완전화하기 위한 낙원군(구 피로군)·영광군(구 오횥군)과 김정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새별군(구 경원군) 등이 해당된다.

북한이 처음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은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전인 '46년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시를 평남도에서 분리,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경기도에 있던 연천군과 함남의 원산시·제천·압변군을 분리해 북한지역에 편입되어 있던 강원도지역과 통합함으로써 강원도가 도단위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직후인 '49년 1월에는 평북의 강계·자성·후창·위하·초산·회천군과 함남의 함진군 일부를 통합해 차강도(慈江道)를 신설했다.

유진 이듬해인 '54년 10월에 이르러서는 함남북부 신안자재로부터 1개 시·8개군과 함북의 백학군·자강도의 후창군을 각각 분리·병합해 양강도

(兩江道)를 신설하는 한편 황해도를 태령강·병학강·예성강을 경계로하여 동부의 사리원 송림의 2개시와 풍산군 등 14개군을 황북도(黃北道)로하고 서부의 해주시와 백성·청단군 등 16개군을 황남도(黃南道)로 분도(分道)했다. 그리고 '55년에 개풍·관문군을 개성시에 통합해 직할시로 승격시킨데 이어 '80년에는 대안시와 용강군을 남포시에 편입시켜 직할시로 승격시켰다. 현재의 북한행정구역은 이로써 골격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종성군(鍾城郡)등은 이에 사라져

그러나 북한의 행정구역이 현재와 같이 1특별시·2직할시·9도·22시·149군의 골격을 갖추기까지는 여러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60년에 함흥·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켰다가 '67년에 일반시로 격하시켰으며 다시 '74년에 청진시에 무산·경성군을 편입시켜 직할시로 승격시켰다가 '85년에 이르러 이를 또다시 원강으로 환원시킨 것 등이 그것이다.

도단위 행정구역의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군단위 이하의 행정구역에서는 북한이 3단계 행정구역체제를 개편함에 따라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상은 해방당시 98개에 불과했던 시·군에 현재 208개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변화

의 시·군·구역으로 들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시·군·구역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편단위를 행정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존의 편단위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행정구역 중 군의 명칭중 상당수가 예전의 면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함북의 연사군·웅기군은 무산군 연사면과 경흥군 웅기면에서, 함남의 요덕군·덕성군은 영흥군 요덕면과 북청군 덕성면에서, 평북 동광군·파산군은 황성군 동광면과 청주군 파산면에서, 그리고 평남 증산군·대흥군은 장서군 증산면과 알원군 대흥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와같이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군이 여러개

로 나뉘어지기에 군의 형태가 없어지고 따라서 군의 명칭이 바뀌는 예도 있다. 이러한 예로는 함북에 속해 있던 증성군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어느정도의 율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유의 지명이 엉뚱하게 바뀐 군이 상당수 있다.

이는 북한이 지명을 김부자가계무산화 및 세제선전에 더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말에서 언급한 김정숙군·김형직군·김형권군 그리고 낙원군·영광군·새병군 외에도 함북 성진시·웅기군·병원군·점흥군을 김해시(金海市)·선봉군·화성군·온덕군으로, 함남 영흥군을 김해군으로, 그리고 황남(黃南) 송화군을 파일군으로 재명할 것 등이 있다.

내외통신에서



어서 어서
타세요~

즐거은 휴가

글그림 고석현
(방곡포병학교)



어서 부모님과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 영?



이거 참~
자리를 양보해야
하나?



에라~ 사회에서라도
좀 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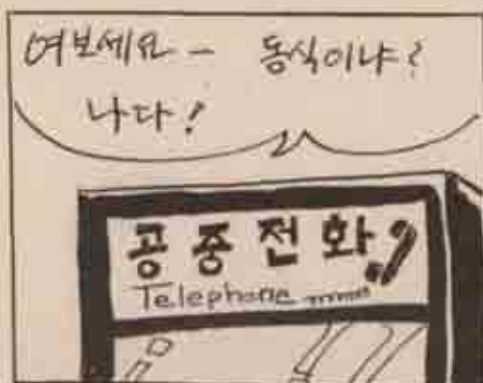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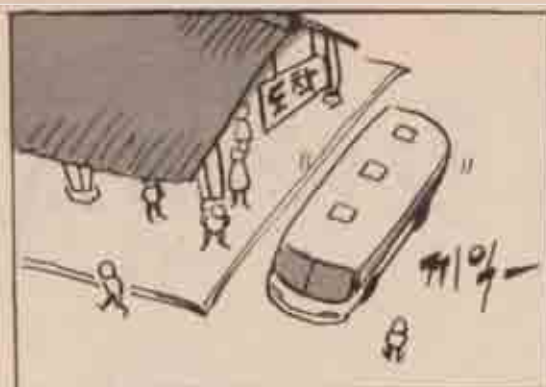
마주머니 여기 앉으
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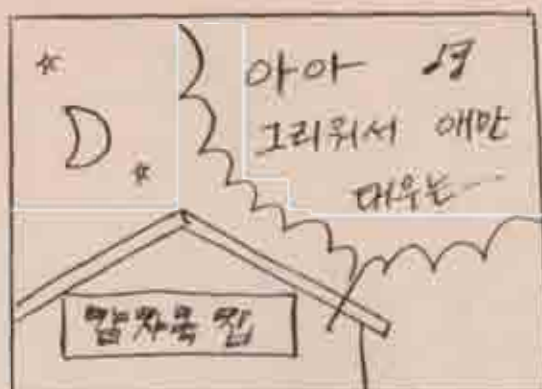
근아무이
점문이



체! 잘난체 하긴...

원~
별말씀은







서 평

일본인은 왜 사과를 잘 하는가



짧은 시간 일본을 관광하고 돌아간 사람들이거나 오랜 기간동안 여러가지의 목적으로 재류하다가 귀국한 사람들이거나 일본땅에 한번 발을 디뎠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나루세로의 『일본인론』 혹은 『일본관』을 소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개하는 대부분의 일본론이 보고 배워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태도이거나 아니면 비난과 비판의 구별이 모호한 부정적인 평가, 어느 한 쪽에 경도의 어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를 객관적이고 멀쩡하게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결코 용해하지 못한 역사적 기억,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상의 위치, 국제사회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주는 모호한 태도, 그리고 일본과 일본인만이 지니고 있는 복잡·비교할 등은 우리가 일본과 일본인을 한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식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

일본은 왜 사과를 잘 하는가

다. 따라서 대개의 결론은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점은 비판하자는 다소 원칙론에 입각하면서도 무원칙적인, 그리고 애국적이면서도 방법론을 세심하지 못하는 쪽으로 내려져 버리고 만다. 이만큼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히 우리에게 친해지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일본열반론」의 저자로 국내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사와타요타로(澤田洋太郎)가 쓴 「일본인론」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면 하겠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일본인의 생활습관, 대인관, 사회구조 등 전체 10장의 소재마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일본인의 생활규범은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가」에 대해 작가 나름의 질문과 답변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는, 일본인은 너무 쉽게 외국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지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45년전의 패전의 실의가 대국이 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일본인은 외국인으로 부터 「이해하기 힘든 괴짜한 국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이 일본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동양권 사

회로서 일본인의 의식세계와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도 삼당부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책은 우리의 생활습관, 사회구조, 미래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냉철하게 관찰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고 하겠다.

저자는 뛰어난 사회·인류학자도 아니며 단지 일본의 평범한 자살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말마따나 남다른 지성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급적 조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국과 자국민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전황을 이용하는 느슨한 구조」, 「젊은이들은 다른 민족, 일본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가」를 통해 일본인의 장래를 우려하면서도 일본의 일본인의 새로운 삶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일본인의 애아로운 자기 반성인 동시에 일본인을 자신의 과기장래 해신 그리고 절친지 제우장을 위한 제창(提唱)인 것이다.*

전투조종사의 요람

115 대대를 찾아서



문 위 문 종 진



하늘의 서사시

개척의 역사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싸워서 흘린 피땀으로
성취된 것이나
바늘을 개척하고 지배하는 자만이
세계를 지배한다.
무한의 하늘 뜨거운 태양
끝없는 운해(雲海)와
무수한 섬파(島嶼)
그속의 우리는 선날의 조일이 되어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개척자의 세상이 된 것이다.

115대대를 찾아서

이 이야기는 1968년 5월 5일 제115대대 창설시 만든 「하늘의 서사시」 첫 연이다. 제115전투비행대대가 창설되기는 1968년 5월 5일 □지 ○○기지의 한 전위전투대대가 되어 조국하늘 임무를 맡은 것이다. 1968년은 국내, 국외로 가장 다난한 해였다.

세계는 월남전으로 들끓었고 미국은 세계의 여론과 이목속에서 60만 대군의 월남 파병으로도 보았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으며 끝내는 휴전과 평화협상이 보여되었으나 결과는 없다.

북괴는 1.21사태를 비롯하여 비, 정보함 무예불로 강제 납치사건과 수질차에 걸려 침략적 도발행위를 해 왔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한국 공군의 증강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고 증강을 위한 우리들의 호소와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었다.

차세대 새로이 F-5 1개대대 창설을 수원케 된 것은 1968년 공군사에 특기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처럼 115전투대대가 전비를 갖추어 하늘을 맡기에는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었다. 가장 고심한 것은 대대원의 구성과 장비의 지급한 확보였다.

유능한 지휘관 밑에 우수한 부하가 있는 것이거든 자 전투대대에 우수한 특수기를 누가 섰든 내 줄아주려! 설득과 용기와 인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들어 드디어 제115대대 이름 밑에 하늘을 우러러 뭉쳐 살아 간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때는 무진년 5월 대대건물도 없어 작전부 사부실 한모퉁이에서 가장 우수한 대대로 별례와 전분을 약속하며 절속한 구성원들은 대대의 안전과 함께 그 용기와 개혁 정신으로 오래오래 영원토록 그 이름들이 하늘에 남아 있을 것을 확신한다.

초대 대대장 박철주 중령을 중심으로 각 대대에서 선발된 창립대대원들과 예하 정비대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역군들이었다. 제1차로 F-5A 6대를 인수받아 모기지여 안착시킴으로써 고고의 함성을 운구시켜 뿌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전투대대의 틀을 잡기 시작했다. 어느 기존의 대대보다 창의력, 근면, 정성을 다하여 조종술을 연마하고 정비질을 높이며 공지 일체감이

무르익어갔다.

그 이후 2차로 항공기 증강계획으로 F-5A/B 전투기 10대를 ○○기지에서
임수받아 모 기지로 안착시키에 따라 명실상부한 전투비행대대의 면모로 일신했
고 비로소 작전가능한 대대 호를 부호도 갖게 되었다.

당 대대는 완전 작전태세로 돌입하면서 서해상공의 초계임무를 수행해오다가
1969년 2월 12일 밤 중무장한 북한 대형 간첩선이 「대륙산도」에 출현했다는
보고가 왔다. 이미 작전태세에 들어간 동 대대 조종사들은 긴급 출동하여 아

간 조명탄을 투하시키고, 도수하는 간
첩선을 무차별 폭공공격하여 그 자리
에서 깨끗하게 격침시킨 개가를 올렸
던 것이다. 그 이튿날 동남 해안 간
첩작전에도 수차례 참전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1969년 10월 14일 또다시 긴급출
동 보고가 들어왔다. 북한 무장간첩
선이 소록산도 서남방 해역에 출현했
다는 보도다. 동 대대는 2개편대를
출동시켜 자정부터 06:00까지 파상
공격을 퍼부어 완전 침몰시켰던 것이

다. 정규전력 아닌 비정규전에서 위험부담을 두들쓰고 전투기가 참가한다는
것은 이땅에 간첩이라면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끔 철저한 동 대대의 작전개념이
있던 것이다. 이번 수차례에 걸친 작전가담으로 출격할 조종사 및 정비사들은
정부에서 수여한 두들훈장으로 그 빛나는 전과를 과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 대대는 끊임없는 선술전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적단련에도 병행해서
전 부대대령 배니스, 수명대위 배는 바의 수준을 높여하고 우등의 영예를 독차
지했고, 내조자들의 정실배 보답하기 위해 가족친선 야유회, 체육대회의 모임도
실시하여 가족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71년 1월 23일 그때는 동 대대 일부편대가 ○○기지에 파견되어 초계비
행 및 ALT 비상대기 근무를 담당해 있었다. 이날 정오를 지나 비상출격 벨



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대기중인 편대는 즉각 출동하였다. 내용은 속초비행장을 이륙한 대한항공 소속 F-27기 1대가 승객으로 가정할 리한 1명에 의하여 북한으로 납북되기 직전 형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에 동 대대 조종사 4명은 피납기에 위협사격을 가하여 결국 DMZ 전방 5NM 간성해안 모래사장에 불시착시킴으로써 극적인 납북자처에 성공했던 것이다. 만약 그 여객기가 이북으로 도망쳤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하는 것을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1971년 4월 29일 대대 공중사격 대회를 실시했다. 평소 얼마한 전기를 이번 대회서 필히 필승을 다짐하면서 각 편대의 명예를 갖고 향과 사, 급삼승, 급강하의 승천 기동, 단 한발의 기관포를 가상 적기를 쳐주시키는 전술, 아군기의 식별능력, 야간 전투사 과공할 폭탄을 무하시켜 백발백중의 명중률, 기상변화에 따른 애기의 대처능력, 비야간의 공중전술, 비를 달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하늘의 전쟁, 이 피나는 가상 하늘의 전쟁에서 제 3편대가 최우수 편대로 뽑혀 드거운 경일의 빨간 아플리로 그 영광을 수상했다.

작전임무 수행과 조종학생 훈련강화

1975년도부터는 동 대대에 F-5B기를 추가로 도입하여 제가비행 미숙자들을 위



하여 제기비행과목을 별도로 설치하여 제기비행임무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각 기지에서 선발된 조종사는 필히 제기비행을 수료하고 그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약월후 기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뛰쳐뛰니 해도 제기비행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이런 이종의 작전 및 훈련을 꾸준히 수행 해오다가 드디어 창대 이후 최초로 1975년 7월 12일, 대방의 9,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의 대 업적을 세웠던 것이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이는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들의 꾸준한 단결력과 기인동체감의 화합으로 맺어진 결실이었다. 이 빛나는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기 위해 전 대대장병은 대대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우리 공군사에 빛날 장거였던 것이다.

본격적인 고등비행 교육이 시작되었다. 동 대대의 임무는 갈수록 중복되어가고 있었다. 비정규전 작전담당, 전술대대임무, 조종학생 비행담당, 매일 비행출격수는 증강되고 학생훈련에 따른 무답갈 비행횟수증강에 따른 정비사의 업무과다 세비 별을 보고 밤이 으스스해야 귀가하는 정비사들이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오직 열과 성으로 또한 강인한 집념으로 무사고 비행을 향하여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공군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으니 18,000시간 무사고 비행을 수립했던 것이다.

진실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었다. 불굴의 무지, 이것만 지켜간다면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이겨낼 수 있는 바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 믿었다.

기성 조종사 작전임무 수행도 어렵다는데 조종학생을 데리고 하늘을 날르는 교관들의 사명은 날로 험악해져 어려운 고생이었다. 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투기의 성능은 그야말로 최첨단의 항공기며, 초음속이라는 점이다. 이제 탑승한 학생들에게는 비참 조종이 되는 것이다. 애기가 첫 걸음마를 시작한 과정이다.

그러나 화면된다는 신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오기, 이런 집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행해 오면서 동 대대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저 항공기에 세웠던 것이다. 대방의 27,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전 부대가 환영일색이었고 비행대기선은 축하의 꽃다발, 축하의 아우성이 매아리 치고 있었다. 18,000시간 무사고 이후 꼭 일년만에 얻은 기록이다. 만 일년만에 9,000시간 비행을 수립한 기록은 세계 공군사에는 유례가 없는 많은 비행을 했던 것이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77년의 마지막 해이기도 했다.



등 대대는 하늘에서 이렇듯 참란한 기록을 획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78년도 전투대 기갑사격대회에서도 된 4회에 걸쳐 연속 우승을 안았다. 또다, '83년도에는 항공군 비행안전 최우수대대로 선발되어 참모총장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88년 2월 19일에는 30,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으로 115대대의 전력을 용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115대대는 하 부대에 비해 창설이 늦어졌다. 그러나 대대 운영면에서는 어느 대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다. 오직 「비행전선 제제」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왔고 하늘에서는 안전한 비행, 땅에서는 완벽한 정비에 입각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던 것이다. 수많은 조종사들이 전투조종사의 첫 걸음 이 대대에서 시작했고, 여기서 배출된 원역 조종사들은 우리 공군의 주역으로 일하고 있다. 비행관리 철저, 개인 건강관리 철저, 비행규정 엄수, 전투조종사의 긍지, 정비사 기술적식 엄수, 정비군기 확립, 비행하는 데 애인, 착자

이집 조직으로 최상의 항공기 가동률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 지난 한 혁명속에서 곳곳에서 살아온 115대대 전장병은 정말로 우리 공군의 선택된 명실상부한 군인이 아님이 생각된다.

편안한 날이 없었다. 기상악화로 비행이 없으면 교육으로 바꾸었고, 자질향상만이 항공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철저한 교육제도.

동 대대는 드디어 '91년도를 마지막 결산하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학생훈련을 시키면서 재운 50,000시간 무사고 비행이다. 어떻게 보면 꿈만같은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로 나타났다. 동 대대장 김재봉 중령의 탁월한 공중 지휘를 중심으로 교관, 학생, 정비사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대역사가 아니던가? 말이 50,000시간이지 그 짧아울면 한 시간 한 시간속에 전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91년 7월 16일 그날은 절기도 배정했었다. 115의 혼익의 날개는 무덤고 허준난 비행장 상공의 고도를 한바퀴 선회하고 긴 여정이, 긴 피로의 육중한 F-5B 전투기는 활주로에 바퀴를 착지시키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시킨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끈질긴 인내와 활기 어려운 행군의 길이었던가, 정말로 믿을지스라운 공군 전투 조종사의 요행지가 아닐 수가 없다.

말이 시작이된 말이 있다. 영광스런 115대대는 이제도 오늘도 쉬지않고 전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10만시간, 백만시간의 무사고를 위해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다. 우수한 전투조종사 배양은 우리 공군의 필수적인 임무이다.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받고 있는 115대대에 하느님의 은총과 무궁한 발전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탄원의 글을 올린다.

편집자주 : 이 필방을 위해 수고해주신 문종진 준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 그림에는 두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
비모의 젊은 여성이 보이기도 하고,
노파가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비친 모습만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쌍용사회보 - '여의주'〉

‘小圓’ 과 ‘大圓’ 반지름



(소장 박창규 제2701부대)

사람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개인 개인은 모두 제 갈난 땅에 살아 간다고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기 마련인 모양이다. 어린아이는 오로지 욕구로 행동한다. 어릴수록 본능에 더욱 강하게 집착하고 본능의 욕구에 만족한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서 본능의 욕구가 아닌 더 많은 더 값진 욕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더 가치있는 욕구만족을 위하여 내적인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 사람이 사회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부딪치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되는 것이 있게 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개인적 욕망과 그 충족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군중속의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위한 집단활동이 이루어지고 집단활동속에 자기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속의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데 내면적 진정한 가치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집단속의 자기의 위치를 설정하면서 모든 주변의 여건을 자기분위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속에 다른 사람의

소원과 대원

육방도 포함하여 집단의 가치로 승화시켜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의 육방과 타인의 육방을 하나로 하는 과정에서 필히 생겨나는 내면적 발효는 '사랑'이라는 정신적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한문의 '仁'자를 보면 사람이 풀이 모여서 사랑이라 하였고 '他人'을 풀이하면 '人也人'으로 타인이 곧 나요, 내가 곧 타인이 되는 것이다. 곧 더



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仁(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이 문자를 만들어 낼 때부터 인식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오래전 군인이면서 학자였던 어느 선배의 얘기가 생각된다.

영국의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보면 강의실이나 강당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수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학교의 교수였던 분들로서 1,2차 대전이나 기타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조금도 미련없이 군에 입대하여 명예롭게 전사하신 분들의 사진이었다고 하며, 그분들의 나라사랑의 큰 뜻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내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물론 국민학교급까지도 그 학교 출신의 애국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아아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영국 뿐만 아니라 삼천국 대부분이 국가와 봉역을 위해 헌신한 큰 뜻을 전국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태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의 본능과 육구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만의 한 인생을 마무리 한다고 할 때 이것을 '小圓'이라 한다면 자기의 한 인생의 순환기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인생은 '大圓'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小圓'의 인생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손자보고, 늙어서 죽어가는 하나의 나뭇대로 박은 완성을 이루기는 하지만 약자발전을 위해 원동력이 되는 큰 자원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大圓'의 조그만 한 부분이라도 희을 갖추고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의 시대에 그 '大圓'을 완성하지 못하고 더욱이 자기의 '小圓'의 인생을 살아 가는데 큰 타격을 입는게 통상이다. 또한 희행적으로는 '小圓'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뜻은 항상 자기 헌신의 정신적 기를 위해 국가와 공익을 위해 '大圓'을 그릴 수 있는 반겨쁨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저서 '용감한 사람들'에서 예를 든 8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小圓'의 희행적 인생을 살아가지만 '大圓'의 반겨쁨을 키워 고난과 역경을 거쳐 미국의 역사발견이라는 '大圓'의 한 부분을 기록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 존 퀸시 아담스와 다니엘 웹스터의 예를 들어 보자. 존 퀸시

아담스는 1800년의 존 배사쿠세츠 출신 연방당원으로 상원에 진출하여 나중에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3대)으로 아담스의 아버지 존 하시 아담스(2대)의 제선을 지지했었기에, 말하자면 그때엔 정적인 셈이었다. 그런데 존 아담스가 상원에 등원하자마자 그의 앞에는 매우 난처한 문제가 하나 다가왔다. 토마스 제퍼슨의 서부 진출정책에 대한 상원의 추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출신 수인 배사쿠세츠는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방이라서 서부 개척이 본격화 되면 자원의 영향력의 감소와 산업 쇠퇴가 불가피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러서는 출신 주의 사정을 보더라도 정책의 아집적인 정책을 반대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담스는 외리로 토마스 제퍼슨을 지지한 것이다. 그러자 동부지역 여론에선 "적과 결탁한 배신자", "미련을 자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연일 그에게 맹공을 퍼부어댔고, 동료들은 "아담스와는 식탁을 같이 할 수 없다."며 그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아담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다음엔 배사쿠세츠의 산업에 일대 타격을 주게 될 '대멸(對滅) 금수 조치'까지 찬성하고 나섰다. 동료들의 격렬과 공격이 풀렸듯 요탄해냈을 뿐 아니라 그는 고향에 밭도 들어놓을 수 없는 선제가 되어 인생의 희불이가 되었을지언정 그

소원과 대원



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해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리가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한 소신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일로 의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공직 이익에 반대할 수는 없다. 내가 현

재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일기에 적혀있는 한 구절이다.

그는 정의라고는 숨두리째 포기하고 목전의 이익과 방편에만 급급한 현실 정치를 개탄하여 아예 정치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의 행동은 분명하고 솔직하며 정백하다.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 길이 정의이기 때문이다.”라고 격려하며 그의 손을 밀어 주었다고 한다.

아담스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서 은퇴한 뒤엔 유권자 요청으로 하원에 진출했다. 그가 하원에 나가라는 유권자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두 가지 조건 즉, 후보자로서 철대로 자신을 선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하원에 나가면 정당·지역의 이해와 완전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돌아올 것을 세지했다.

그는 그럼에도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의사당에서 죽을 때까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하원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대통령 당선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또 한 사람, 다니엘 웰스터는 1800년대 중반에 활약했던 상원의 거물로서 그 역시 매사추세츠 출신이었는데 당시 국론 분열을 몰고 왔던 노예 제도에 대해 남부의 타협안에 동조함으로써 출신구와 동료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노예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북부의 여론에 등을 돌리고 남부가 대



좋은 타협 안에 동조했던 것은 남북의 분리 사태와 유형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소명감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연방의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것 같은 지역 감정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그것을 물리치는 일에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명성을 투자한 것이다. 그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남북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지만 사가(史家)들은 웰스턴의 노력이 전쟁을 10년쯤 연기시켰고 연방 유지라는 대의 명분을 확고히 한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웰스턴은 그의 행동 때문에 출신 주 언론으로부터 “가장 천하고 바보같은 배신자”라는 욕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70고령의 몸을 달고 비난이 쏟아지는 뉴잉글랜드 지방을 돌며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나는 듣기 좋은 말보다는 필요가 내게 요구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 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간에 나는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만일 내란이 일어날 확률이 한에 하나라도 나는 그 하나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웰스턴은 죽는 순간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슬회했다.

“나는 이 순간까지 나답지 않은 말을 한마디도 안했다”고. 그가 남부 타협안에 동조했던 의회 연설의 서두는 오늘도 많은 미국 상원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는 오늘 매사추세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더욱이 북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는, 그리고 미 합중국 상원의원으로서는 발언하고 싶다.”

많은 역사속에서도 오늘날 미국의 국력을 저토록 강대하게 만든 것은 아담스나 웰스턴 같은 진정 용기있는 사람들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결과임을 쉽게 짐작하게 해준다.

최근 우리의 사회풍조를 보면 위기가 일상화되어 위기 의식의 불감증 사태가 되어 가는 것 같다.

‘뉴키즈 사진’에서 보는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생각은 친구가 많아 죽어도 상관치 않고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小團 中の 小團’의 사고를 갖도록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또한 삼촌뎌를 고집하는 거식세대들에 의해 조래되었으니 철

소원과 대원

소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大圓'의 반지름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런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군인은 本質적으로 '小圓'의 人生과는 거리가 먼 집단의 구성원이다. 할랄 수의(군복)를 입고 언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군인의 理想을 살아가는 군인정신은 근본적으로는 '大圓의 반지름'에 일치되는 체험적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인정신을 오염시키지 말고 순수한 정신으로 갈고 닦아 1년에 20~30만의 젊은 장년이 거쳐가는 군의 집단속에서 생활하면서 '大圓'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적응도록 하여야 할 사명이 군의 간부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의 세반 개인주의적 사고에 오염되지 않도록 간부 스스로의 노력과 정화운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간부급의 양성시에도 개인의 능력위주보다는 정신적 기질을 중요시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유 있는 삶



한국 체류기

왕 봉 련

本文은 '91.8차 공군대학 고급
지휘관참모과정에 수학했던 中華民
國 曹吉祥 空軍中領의 夫人인 王
鳳蓮씨가 [中國의 空軍]에 기고
한 것을 要約한 것이다.
(역자: 공군대학 중령 주호태)

중화민국 공군의 한 가족으로서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남편의 유학생생활을 뒷바라지 하는 일 이외에도 1년간의 귀중한 경험을 빌어 시야를 넓히고 한국 공군가족과의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

나의 남편은 현재 도원기지에서 복무해왔으나, '90년 11월부터 한국의 공군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곳곳에 문의하여 해외 방문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의 1년 2개월 제한 기간중에 단 한번만의 방문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비행부대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헤어져 있는 날이 더 많았는데 이제 또 멀리 이국땅으로 떠나 만년이 지나야만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 이별의 아

픔을 금할길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한국으로 떠난지 한 달여 지난 어느날 뜻하지 않게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한국유학에 가족을 대동해도 된다는 정식공문을 중화민국 공군본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기뻐 어쩔줄몰라하면서 중국수속을 끝내고 2월 9일 두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날아 왔으니 우리가족의 정이로운 한국생활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이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한국 공군대학이 제공해준 18명 관사로, 서울의 높은 불가 상황에서 거주할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반족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공군대학의 관사내에는 오직 3개국 의 외국학생이 있는데 남편외에 대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으로 그들의 가족들은 아무도 동행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족은 관사내에서 유일 무이한 외국가정인 셈이라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다음날에는 온 관사내에 전해지기 마련이었으며, 한국사람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호기심은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을수도, 슬수도 없는 일을 자주 발생하게 하기도 했

다. 지나치게 우리 가족에 주의할
기울여서 학간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
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평
상시 한국학생 장교 부인들과 이웃간
의 정을 쌓아 우리가족에게 아주 호
의적이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서 집
생각나는 것과 서글서글하하는 마음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당면한 곤
란은 바로 언어장애였으나 다행스러웠
던 것은 내가 8년간의 신문기자 경
력이 있었서 적극적인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업훈련을 받은 덕
분에 비교적 빨리 언어소통상의 곤란
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한번도 영어로 입을 열어 말해 본
적이 없었으나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모르니, 영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고 문법이 빗겨나
틀리거나 관계할 겨를도 없이 알고있
는 모든 단어들을 써잡어 대었다.

아주 재미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보편적인 영어능력도 그리 높지가 않
으며, 내 말하는 속도 또한 대단히
빨라서 갑자기 들어보면 아주 유창하
게 들렸던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이웃 부인들이 나를 영어회화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이것 또한 나와
그들 사이에 깊은 우정을 나누는 하

나의 통로가 되었다.

지금에 와서 나는 “書到用時方恨
少”¹⁾ 라는 옛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에 오게 될 군인가족들
에게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한국으
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부터 빨리 한국말을 배울 준비를 하



거나 혹은 간단한 생활 영어를 배운다면 최소한의 언어소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 우리 부인들 사이의 언어소통 방법을 회상하면 아주 우습기도 하지만 재미가 있다. 우리는 모두다 영어로 말한 경험이 없어서 아주 수줍어 했다. 한국 사람들은 문법상의 차이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편이고 따라서 한국 부인들은 한국말을 하고, 나는 영어를 하니 자자가 자자의 말을 하게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손발을 동원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되면 사전까지도 가져와서 꺼내오곤 했으니 온몸에 팔이 청진기 쫓기도 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서로의 뜻을 알아 하리게 되었을 때는 서로 난처한 모습으로 망장대소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러한 실수가 서로 교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 같다. 현재는 나도 약간씩 한국어를 배웠으나 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여전히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 사용하니 듣기에 아주 우스꽝스럽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는 전세계의 여자들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국적을 불문하고, 그들이 관심가지는 것, 사랑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며 따라서 女人圖를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한 언어는 필히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적극적인 정신이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줍음이 많은 편이라서, 만약 내가 주도적으로 우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그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오늘날에도 그들은 단지 호기심어린 눈으로 밑에서 살펴보기만 하고 있을 뿐 같이 나와 원불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애들을 학교에 보낼 때 간혹 문간에서 얼굴을 대하게 되면 항상 내가 먼저 그네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혹은 함께 한담을 나누게 될 때는 한마디의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이나 미소표시 외에도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그중은 처음에는 나의 명칭을 묻하고, 이성스럽게 생각했으나 곧바로 나의 우와표시에 반응을 나타내었고, 두번째는 숙달이 되어 매일 애들을 보내라고 유치원차를 기다리는 문간에서 아주 빠르게 서로의

저리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이곳의 유일한 외국가정이라서 처음 왔을 때 관사의 많은 동거생들이 모두 우리집 식구를 손님으로 초대했으며, 역시 친구사귀는 것은 미처간의 할래가 좋은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가족도 “好客精神”⁽²⁾을 심플 발휘하여 일일이 그네들을 청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결혼생활 7년만 동안 주방일에 익숙해진 덕분에 한상차려 손님을 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셈이었고, 최고의 기록은 작년 5월에 만습에 세차례 손님을 청

한적도 있었다. 나의 전향에 의하면 한국사람들은 “靑靑牛肉麵”⁽³⁾와 바로 두부를 매우 좋아해서 손님이 올때마다 이 두가지 요리를 올려놓으면 나의 요리술비에 대한 칭찬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가지 맛불이거면, 한국은 비교적 넓은 곳으로 운동을 배워서 걷는 것을 대신하고, 메로는 손수 운동으로 이곳 부인들과 함께 시장을 보러가면 이것 또한 우정을 쌓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이웃 부인들 모두가 나를 중요처럼 생각해 주고 있어서 내가 아픈 경우에는 의사를 소개해 주는 등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감격하게 될 때가 많다. 이러한 상호간의 도움, 친밀이런 관심과 훈훈한 인정미는 아마도 오직 군인들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주 복이 많고, 행운이 많아서 낯선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소위 “在軍日子好, 出門事事難”⁽⁴⁾이라는 말처럼 이국에 와서 1년이 살면서 생활상의 곤란이란 별다른 어려움이거나 돈마음을 다해서 대치한다면 할일을 말닥뜨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친구를 사



귀고 이웃을 만드는 일과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향수명을 해결해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국의 풍속, 문화 등을 빨리 배우고 깨닫게 해주

어 생활상의 갖가지 도전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자아실장의 과실로 향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 註 解 釋 —

- 註 1) 舊利用時方很少: 객은 차를 잘 배가 되어서야 많이 비록 적은 것을 한탄한다.
- 2) 舒客精神: 손님을 영접하기를 좋아하는다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정신을 일컫음.
- 3) 青椒牛肉絲: 풋고추와 쇠고기를 가늘게 썰어 넣어 볶은 요리의 이름.
- 4) 在家千日好, 出門事事難: 집에 있을 때는 편하지만 객지에 나가면 만사가 고생스럽다.

심 상(心 像)

준위 서 선 원(제2762부대)

두메산골에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날마다 객가 돌아오는 즐거움에 하루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어느 날 밤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준 아내는 시원한 물을 뿌려 부엌에가

서 물항아리를 열었다. 순간 아내는 깜짝 놀랐다.

물항아리 안에는 웅크로 아비파우 여자가 들어 있었다. 물에 비친 여자가 바로 자신의 얼굴인 줄도 모르고 아내는 세파랄게 질러서 뛰어나왔다. 남편이 자기 몰래 아름다운 여자를 숨겨두었다고 생각한 아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아내의 난데없는 말에 놀란 남편은 부엌으로 달려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남편이 들여다본 항아리 안에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가 들어있었다.

화가 난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아내의 뺨을 후려갈겼다. 아내가 잘생긴 젊은 남자를 항아리 안에

잡추어 두고 오히려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젊은 부부는 언제 그렇게 사이가 좋았냐는 듯이 서로 팔뚝고 때리며 싸웠다. 두 사람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을 탈러러왔던 이웃사람들도 할아리 안을 보고서는 저마다 화를 내며 돌아갔다.

산비가 불 때는 산비가 나타나고, 무덤이 보이면 무덤이 들어있고, 노파가 바라본 할아리엔 노파가 있었기에 젊은 부부가 자기들을 놀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의 싸움은 할아리 안에 들어 있는 각기 다른 사람을 꼬집어 내기 위해 할아리를 켜 뒤엎어 깔이



여유있는 삶

났다. 깨어질 할아리에서는 물이 쏟아질 뿐 사람은 아무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맑지 못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는 것을 새말은 두 부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세상살이의 모든 일에 마음 먹기에 달렸고 온갖 병이나 화(禍)의 근원이 마음 가지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민담(民談)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신분이나 방층에 나으면 그렇거나 하면서 지나치지만 잘 아는 사이라면 금세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 좋은 일이거나 잘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부정한 곳, 못한 곳을 들추며 책악화 한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되기를 무추거는 시기(忌忌)가 가슴에 호르고 있다.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좋은 점을 내세우며 애중해 한다.

왜 이럴까. 잘 되는데 전 보지 않고 죽으면 안됐으니 그게 자신보다 한수 아래에서 뒤따라 오기를 바라는 심정이랄 일컬까. 위선이랄까, 괴짜라시킬까.

우리는 저울에 나타난 자기의 질

모습만 바라보고 산다. 저울이 자기의 만을 비라볼 수 있는 도구로서 마음도 비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기질을 가졌으면 좋으련만.

세상살이의 모든 일이 마음 가지기에 달렸다고 하였으니 팔말하기 보다는 진취적인 사고(思考)로 화근이 될 수 있는 일일 수록 원명하게 대처해서 모함으로 이끌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증오하기 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심장(心量)이었으면 한다.

순리(順理)란 무엇인가. 순수한 이치, 순수한 마음가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살이에서 한방씩 밖으로 나서면 어느새 보로색으로 변하는 나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있다.

빛 바 랐

크리스마스 카드

소경 박 홀 부 (제3258부대)

『사랑하리라』

나는 새롭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 선택할 것이며, 보다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저급의 모든 환경을 이용할 것이다.

선행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람의 습관을 가질 것이다.

나히 모든 노력은 사랑하는 습관을 위해 거둘어질 것이며, 이것에 따르는 어려움을 참으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히 나의 노력을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 故 이상의 대위의
일기문 중에서 —

사무실 탁자에서 선기침을 하듯



웅크린 할상을 하고 있는 故 이상의 대위의 유물상자 하나가 서늘하게만 느껴진다.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길고도 먼 여행은 인생이라는 과정인 듯 싶다.

그 과정속에서 두된 사오 사랑하며 미워하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실존을 느껴기도 하고 때로는 신의 권능에 대해 많은 원망과 불만을 범하게 된다. 그리기에 무릇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보다.

늘은 뜻을 남기고 하늘의 뜻으로 피어난 故 이상의 대위의 일기 속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원리, 명예, 부에 대한 욕심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오직 인간적인, 신하고 참된, 소박하고 순수한 사랑을 향하여 했던 따스한 승결로 가득하다. 주일이면 절대자의 권능에 무릎을 꿇는 어방양으로, 조종식에 들어서면 자신의 모든 자만과 욕심을 윤식의 사랑으로써 승화시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했던 故 이상의 대위.

그 무엇이 되려하지 않았고, 그 누가 되려하지 않았으며, 오직 조종사인 자신의 참모습과 신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일관되었던 이 대위의 삶의

여유있는 삶

빛깔.

이 대위의 승결과 온기가 느껴지는 비행연구 노트 사이에는 올해 크리스마스 카드 서너장이 차가운 겨울 내기에 뵈고 있지만, 이 대위의 정성 어린 손길은 싸늘한 겨울하늘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카드를 보낼 당사자는 명면에 들어맞지 않고, 올 겨울에도 이 대위가 보내준 카드를 받아보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을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말이 없다.

빛바랜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사람아 님의 가슴에 정애(情愛)를 심어주며 그 사랑의 진폭 위에 온온한 향기를 전해주려던 소박한 마음이 묻어있다.

영결식장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던 후배들과 동료 조종사들.

그당시 그들의 가슴은 운명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어했고, 다시는 신을 믿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대위의 영혼이 희 살아 그들의 꿈꿨던 잃어버린 가슴을 녹여주고 조국의 푸른 창공을 대신 지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영감으로써 증오를 사랑으로, 신에 대한 불신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 둘씩 부활시키고 있다.

모두는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조국의 푸른 하늘에 흠연히 방주에 몸을 실은 이 대위의 의연함에 나의 아픈 마음은 화산지 위에 석불처럼 굳없이 물들어간다.

나 이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리라.

저 하늘에 반짝이는 순결한 별, 갈토속에 버려진 돌맹이, 우리들의 삶, 그리고 散人의 아픈담고 순수했던 삶의 빛깔들이며, 하늘속에 남겨진 충혼을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하리라.

이제 고인은 잠들었어도 죽음으로써 우리를 가슴속에 더욱 선명하게 살아있고 영원히 기억되리라.

고이 잠드소서.





전통의 향취, 문배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외국인학교 초임에 살고 있는, 올해 일흔다섯살인 이경환 였의 지난 여름 한철은 유난히 뜨거웠다. 8.15재방이 된지 아흔다섯 해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가 만나 일키릴 기 험한 문단이라는 실타대를 물어보는 자리에, 그가 평양에서 그 옛날에 선명을 다 때 빛던 문배주를 대접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줄 뜻이었다.

고향인 이북에서 이 뜻을 찾게 될 귀한 손님들에게 그가 손수 빚은 술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북이 천대 피 벼가 물린 곳이자 삼십대 중반까지의 삶의 허락이기도 했던 그에게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

“그들이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즐겨 마시고 또 갖고 가기도 한 모양 이오만 술맛을 알고 마신 것은 아닐 것이오, 땀술이나 인삼주 같은 것은

있어도 평양에서만 만들어졌던 문배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씀이야.”

5대째 양조업을 하는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

1986년에 문배주로 무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받은 그는 평양에서 5대째 양조업을 하는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일꾼을 일 명들 둘 세법 규모를 갖춘 양조장을 스무서너십이 될 무렵에 떠맡아 꾸려나갔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문배주는 고려 태조인 왕건이 진상 받은 술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이전부터 있어 온 술이라 짐작되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있거나 ‘종류’를 아는 ‘사람들이 즐기던 고급주였던 만큼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 평양의 몇 군데에서만 그 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자본가 계급이었던 양조업자들은 거의 모두 피난을 내려왔지만, 이경향 등 만환 젊은 나이에 문배주를 빚던 사람이 없었고 보면 이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거나 더 이상 술을 빚을 힘에 있지 못할 만큼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다.

양조주가 아닌 40도가 넘는 증류주

문배주는 막걸리나 약주와 같은 양조주가 아니라 양조된 것을 증류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만든 증류주 곧 화주이다. 막걸리는 시민적인 술의 대명사이자 먹거리 대용으로도 애용되는 쓸모있는 술이지만 위상하락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주도가 40도가 넘는 증류주

는 서양의 위스키처럼 오래 묵힐수록 좋은 술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새끼지 술 가운데 달진의 진달래술(두견주)이나 경주 교동의 벌주도 모두 발효주인 탓으로, 국주(國酒)로 삼을만한 술을 든다면 문배주 밖에 없다고 그가 호언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질척하듯이 문배주는 '늘글나무와에 속한, 배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는' 문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배주의 주원료는 조와 수수이다. 지장에서 햇곡식이 나올 때쯤이면 이 읍은 시장에 나가 손수 그것들을 사들이는데, 이런 집폭들은 질척 끓여배지고 있어 그것도 수월한 일이 아니다.

문배열매가 아닌 조와 수수가 주원료



문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조를 깨끗이 씻어 물이 팔아질 때까지 몇 번이고 빨군 다음 '보들밥'이 되도록 찐다. 그리고 미리 같은 양의 물에 잘 풀어둔 누룩을 섞으면 수곡 상태가 되는데, 이를 발효 최적 온도인 섭씨 25도 상태로 배넷에 걸운다. 그리고 수수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쳐 꼬들밥으로 지은 다음 헹가시리게 되는데, 수곡에다 덧넣는다는 뜻으로 이를 '덧밥'이라고 부른다.

익힌 수수도 역시 섭씨 25도쯤으로 식혀 수곡에 넣어 등 속에 자연상태로 둔다. 이렇게 해서 염분 남았지 않으면 숙성이 끝나는데, 이 동안에도 주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열흘까지는 굵이 안 들어가지만 그 시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산배하게 되므로 그 전에 증류할 한다.

증류기는 그동안 그의 초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배주 빙는 증류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일이 뜻있는 일이었으니 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의 어려운 세월을 말해주듯 고집스럽게 생긴 용기였다.

3달으로 된 증류기를 소나무로 불을 지펴 '늑은 불(약한 불)'을 때주며 슬근슬근 기화시킨 다음 차게 해화시킨다. 그리고 옥에다 넣어 착사 결선을 위해 지하수이다를 깊은 배에 25도 정도로 보관하는데, 최소한 한 배 이상은 '백화마' 깨끗이 난다.



고 한다.

'86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올해엔 그 제조권까지 얻어

1986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뒤 4년이 지난 올해에는 문배주에 대한 제조권까지 나왔다. 이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술을 맛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수자로 지정받은 그의 첫째 아들과 막내 딸이 이 일을 거들기는 하지만 시찰이나 그에 따른 일풀이 아저는 어쩔없이 보인다. 그 뿐만이 아니다. 술의 원료인 수수와 조를 조달하는 일, 경영단을 쓰지 않은 술 독을 확보하는 일 따위도 문제지만 풀이 더 문제이다.

술맛이 좋으려면 대동강 유역의 물처럼 석회암층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서울에서 얻는 물은 화강암층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효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여전만 허하하면 그가 눈여겨 보아줄 충북의 단양 지방에서 술을 빚고 싶어한다.

괴난을 온 뒤로 서울에서 장한 술을 빚어 보았지만, 1955년에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어 곡류로 술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자 그 일도 관두게 되었다. '술이 볼에 댈 사랑'이라 그 일 말고는 다른 일에 도무지 손대볼 열미 나지를 않아 하는 일 없이 놀았다고는 하지만, 다섯 남매 키우며 지금까지 보내온 세월이 그의 말처럼 권하기만 했겠는가. 그러나 그는 "차례 때 빚어 올리거나 친구들 경조사 때 술을 병질어 두면(만들어 주면) 늘 칭찬해 두니, 그 재미로 했다."하고 시찰을 맺 뿐이다.

"임에 대어 보아 먹히며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고, 냄새와 맛이 별거야 하고, 숙취에도 머리가 안 아파야 한다"는 좋은 술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춘 술은 세계에서 문배주 밖에 없다는 그의 말을 우리가 앞으로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멀지 않은 것 같다.

〈대한항공 사보 '창릉' 제공〉





신위를 향해 설 때



현재 보편화된 차례(茶禮)와 기제사(忌祭祀) 예법은 조선조 숙종 때 편찬된 「사대헌람」에서 나온 것이다.

「사대헌람」에서도 약간의 용통성을 인정하고 있듯이 차례(家禮)는 가가례(家家禮)라고 해 지방이나 집안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절만에 전례 내려오는 전통의식을 따르거나 가정의례준칙을 참고해 간소하지만 정절을 다해 지내면 된다.

이 갑첩을 통해 제사상 차리는 법과 절하는 법이 소개됐으므로 이번 호에는 제사를 모실 때 잊기 쉬운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본다.

제사는 작고한 날 일출 후 지달한 시간에 지내도록 한다. 작고한 날 첫 새벽에 지내던 관습에 따라 작고한 날의 차전에 지내는 경우도 있다.

제사는 망인(亡人)의 생전을 추모하는 것이므로 당일엔 가요, 소반, 능

담 등을 삼가하도록 한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의 복장은 깨끗한 청상복 청장 차림이어야 한다.

양복이나 양장을 입더라도 화려한 무늬의 옷이나 원색의 옷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흰반찬 세겜이나 장선구도 피한다. 특히 여자는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어서는 안되며, 남자는 의두나 목도리를 걸치지 않도록 한다.

여자가 예복을 갖춰 입을 때는 옥세 치마저고리로 한다.

제삿날에는 자손은 물론 방계 자손, 사위, 형제 등 참여하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사할 수 있는데, 이날을 빌어 여러 친척과 푸른들에게 망인의 생전, 업적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사상에는 많은 종류의 음식보다 향소에 즐겨 좋아하시던 음식을 오붓하게 정성껏 차리는 것이 진실성이

제례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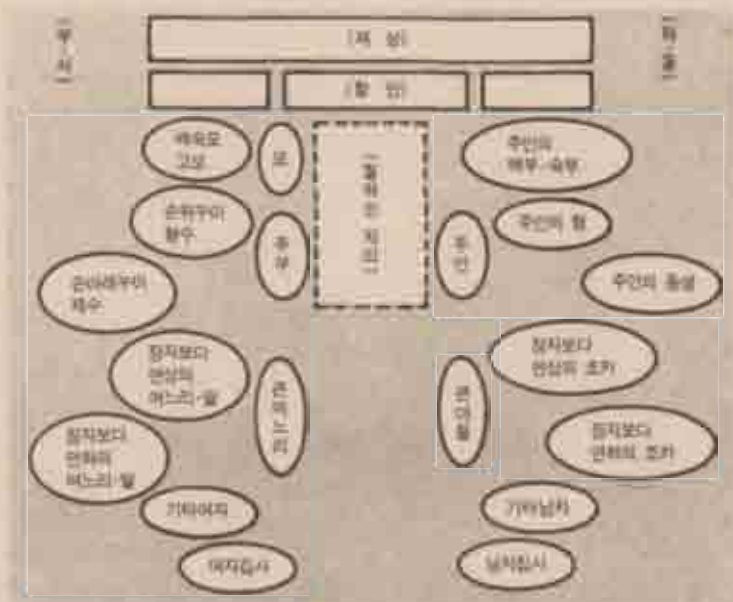
있다. 한 번 었던 것은 제사 음식으로 쓰지 않아야 하고, 담을 배 떨어진 음식물도 제사상에 올리선 안된다. 제사상에는 은수저를 쓰지 않는다. 제례에 참사하는 사람에게는 흰 직적인 장휘치가 있다.

신위를 향해 섰을 때 오른쪽을 동쪽, 왼쪽을 서쪽이라 부르는데 남자의 자리는 동쪽이고, 여자의 자리는 서쪽이다. 같은 형제의 서열에서는 남자는 서쪽이 뒷자리이고, 여자는 동쪽이 뒷자리가 된다.

신위에 가져온 복쪽이 일 제대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아래 제대이다.

장지촌인 제주보다 위 함렬인 사람은 제주보다 한 발 앞줄에 서고, 아래 함렬은 한 발 뒷줄에 선다. 이 경우에 함자촌인 제주보다 함렬이 높은 어른이라도 제주 앞줄 가로 막아서서는 안 된다.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 비록 제사를 못 지내더라도 달일에는 별례를 하지 않도록 해 그 절전·절속함을 지키도록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빨랫줄을 끌러놓는 관습도 그 하나이다. 제사를 모시는 날 집안에 울긋불긋한 별태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분위



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제사 지내기 전에 대문을 열
어놓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방일의 혼이 대문을 통해 들어온다
고 보기 때문이다.

〈해키금성 사보 제풍〉



교양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원 연 중

(한국발명특허협회)
홍 보 과 장

우리 모두 발명가가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하면 전화·TV·컴퓨터·로봇·인터페론 등 첨단 기술제품을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앉자리에 들 때까지 사용하는 수많은 생활 필수품들도 모두 발명품이고, 이들 작은 발명은 대부분이 생활주변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탄생되고 있다.

또 이같이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탄생된 생활 필수품에 속하는 발명품일수록 첨단기술 제품보다 상품화 및 기업화가 쉽고 시장도 넓혀 수많은 사람들이 '발명가 기업인'이 되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에도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업재산권 중 실용신안(기존 발명품의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던 고안)이나 의창(기존 발명품의 모양을 보다 아름답게 디자인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자라 10년과 8년 동안

의 독점 권리가 주어지고, 등록을 받는 순간 정부가 인정하는 발명가가 된다.

따라서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발명이 과학자나 연구원들만이 할 수 있던 첨단기술 발명보다 더 많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유사 이래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가장 많은 돈을 번 발명품도 생활 주변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탄생되었다. 극히 작은 발명도 그 발명가에게 출세와 명예와 행복을 안겨 준다.

13세의 목동 소년이었던 조셉은 장미넴들의 가지를 모으고 칠조약을 발명하여 제1차 11명이 1년 동안 재산했으며 합계를 밝혀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벌었으며, 18세 병균잡의 공취이었던 루드는 주름치마를 입은 여자원구의 모습을 닮은 생물 만들어

그 특허권을 코카콜라회사에 6백만불에 팔았다. 그 병이 66년 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코카콜라의 병이다.

또 14세의 전파사 수리공이었던 필립은 -자 드라이버를 +자 드라이버로 개량 발명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인 필립사를 탄생시켰으며, 23세의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마쓰시다(松下)는 쌍소켓의 발명으로 일본 제일의 마쓰시다그룹의 총수가 되기도 했다.

작은 발명으로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 발명계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비롯 12권의 발명에 관한 책을 쓰는 동안 이런 발명가를 1천 명이 넘게 만난 바 있다.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이해 치타월은 김필곤씨가 발명했고, 종이유

프롬기는 심석균씨가 발명했으며, 세줄 지퍼는 이병용씨가 발명했는데, 이들 모두 현존하는 발명가들이다.

이들의 발명품은 언뜻보면 발명품같지도 않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작은 발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성공했다.

우리 모두 발명가가 되자. 작더라도 유용하게 쓰이는 발명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발명가이다.

발명은 인간의 본능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나도 좀 제다를 일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다. 그것이 곧 발명의 근간이다.

이는 원·선·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



속된 지욕·물욕·성욕에 가까운 본능의 일종인 것이다. 그러므로 발명을 하면 그 대소에 관계없이 쾌감을 맛보게 된다.

발명이 사람을 끌어지게 하고, 또



장수를 누리게 하는 근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옛 성인이 '인간은 신구설에의 욕구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도 발명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참된 재능을 두들겨 깨우는 것은 자식뿐이다. 운명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발명력이 없으면 발휘할 수 없다. 갖고 두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만다. 특히 사람의 두뇌는 출제 쓰면 쓸수록 좋아지나, 서투르게

쓰면 쓸수록 나빠진다.

강조해 두건대 참으로 값있는 것은 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위인 것이다. 그 노란 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거위한 내부에 숨어있는 발명성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발명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곧 서투르게 휘발해지거나, 그 와중에 휘발해 다시는 피오를 수가 없게 된다.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되는 것도,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발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발명이 없는 삶은 노예의 삶과 같다. 발명력은 누구나의 품에 살아 숨쉬는 유일한 재산이며, 정지하고 있는 그 무엇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만능의 동력이다.

그 어느 것도 발명에는 이기지 못한다. 발명에 대한 강한 소망과 의지를 가지지 않고 남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성공을 아룬 시험은 없다. 발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모두 실현하며, 또한 결코 연이는 일도 없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도 따지고 보면 발명적인

할을 알았으나, 아니면 그럴지 못했느냐의 차이뿐이다. 필자가 조사 분석한 자료 만도 그 실례는 1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발명력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사촌이 사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라 하 나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발명가가 되자. 발명은 인간의 본능이다.



순간의 아이디어 발명

발명은 순간적으로 스치가는 아이디어를 잡느냐 놓치느냐가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

18세기의 루드는 작은 병풍장 공원이었다. 1923년 어느 봄날, 루드는 그날도 유리병을 만들고 있었다. 여

러가지 모양의 유리병을 만들어서는 부수고, 또 만들어서는 부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무렵 미국 코카콜라회사에서는 유리병이 물에 젖어도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고, 병에 든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병을 현상모집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루드는 벌써 수백 개의 병을 만들었다 부수었다.

바로 그날 그의 여자 친구 주디가 찾아왔다. 그 날 그녀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예뻐보였다. 그 무렵 유행하던 주름치마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치마는 종아리 있는 곳이 좁기 때문에 걷기는 조금 힘들었으나 엉덩이의 선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자 대단했다.

루드는 한참동안 주디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루드의 머리속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다.”

루드는 즉석에서 주름치마에 골게 그려진 주디의 엉덩이 모습을 강조한 유리병을 만들었다. 루드가 만든 병은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주름이 있어 우선 물에 젖어도 미끄러질 염려가 없고, 위와 아래 부분이 좁아,

들어가는 양도 종래의 병에 들어가는 양의 80%면 충분했다. 루드의 이 발명에 코카콜라사는 6백만달러의 상금을 주고 권리(특허권)를 사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청조망도 술간의 아이디어이다.

목동 소년 조셉이 가끔 뺑전을 피우다보면 양들은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농장을 망가뜨렸다. 그 때마다 조셉은 주인에게 상한 꾸중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은 실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양들이 넘어가는 울타리는 장미넝쿨의 울타리가 아니라 철사망 줄리친 울타리였다. 양들이 장미넝쿨의 가시를 무시위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조셉은 대장간을 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가시가 돋은 철사, 즉, 청조망을 만들어 목장 울타리를 만들어 보았다.

성공이었다. 양은 단 한마리도 청조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조셉부자는 특허로 출원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이 청조망은 목장·공장·가정의 울타리용으로 날개 문헌 곳 팔려나갔다. 그리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경선용으로까지 팔려나가 조셉부자는 몇 년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조셉이 청조망의 특허권이 끝날 때까지 번돈은 미국에서도 이틀난 제 1차 대전이 1년 동안 계속되어도 다 계산하지 못한 거액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실화는 필자가 조사한 것



만도 2원이 전에 이르고 있다.

발명특허란 것도 사실은 별것이 아니다.

코카콜라병과 청조망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할수록 발명하고 행동(실행)하는 습관을 기르자. 발명의 소재는 널려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발명

발명을 생각할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또 몇 명의 그룹으로 할 수도 있다.

마치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 피아노로 독주할 수도 있으며, 오케스트라로 합주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름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형태는 브레인스토밍이다. 문제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는 쪽보다 좋은 경우도 있다.

집단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확실히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나 집단도 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독창적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 때문에 장소에 혼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버릇을 몸에 붙여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태도로서 꼭 익혀 줄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선 시작부터 하고 볼 것'이다. 자신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시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기록할 것'이다. 아이디어는 생각날 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 두팔이 총명보다 낫다.

셋째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다. 발명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넷째는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좋은 장소가 있다. 이것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발명의 개인기법으로는 체크리스트법과 MIT의 체크리스트법이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체크리스트법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해야 할 모든 내용을 미리 질문 형식으로 나열한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5W1H라는 체크리스트법을 들 수 있다.

5W란?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Why? 왜 그것이 필요한가?

Where? 어디서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When? 언제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Who? 누가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다.

또 1H란, How?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야 할 생각의 수단이 없어진다. 또한 모든 내용에서 사물을 생각할 수 있

게 된다.

MIT의 체크리스트는 발명품의 생산을 생각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는 기능의 증가, 성능의 향상, 생산비의 절감, 판매 액력의 증가이다.

이 네 가지는 발명품의 생산이 어느 한 분야에만 집착하여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결함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과 이 네 가지 분야에 유의하면 조화를 이룬 발명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발명의 개인기법에는 이 밖에도 일출법과 형태분석법 등이 있으나 초보자에게는 별로 권장할 것이 못되어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호에 계속>



왕연중(王然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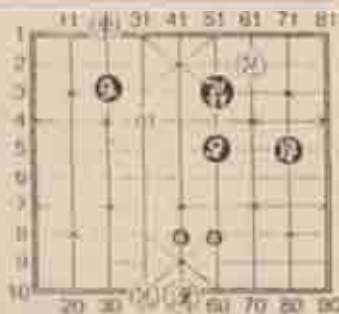
1950년에 태어나 신문기자를 거쳐 현재 한국 발명특허 협회 홍보과장으로 <월간 발명특허>를 제작하고 있으며, 10개 신문·잡지에 발명이야기를 연재 중에 있다.

발명에 관한 숱한 저서를 낸 바 있으며, 최근 그의 <엄중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길재와 이성계의 장기 대국

문제

연장군 풀이
로 車馬 회
생시켜 놓고
양포의 활약
으로 兵(兵)
집재 이겨야.
물론 3급 수
준.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삼권을 장악
하여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
계는 고려 충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가 조선창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 가장 존경하고 있던
아들 길재(吉再)가 필요했다. 길재는
너무나 우뚝 솟은 양식의 석학이었기
 때문이다. 아들 방원(방원)을 시켜 여러번
아들을 불러서 댁으로나 심재한 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정몽주(또은)처럼
죽어기를 간청했으나 아들(방원)을
주짓고 자신이 직접 만나려고 길재의
집을 찾았다. 술잔이 오가고 돌론

오랜만에 고려대 친구로서 일큰하게
쉬었다.

이성계는 조선창업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
으나 길재의 고려에 대한 충실심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이성계를 왕으로 대하기는 커녕 오
직 고려대 벼슬이었던 우지 중으로만
대해 주었다. 그러나 이성계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
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달걀 치욕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성계
가 모른다. 없었다.

이성계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반대한다면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을
을 먼저 못하게 힘을 쓰고 있었다.

이성계는 순간 어떤 명목으로 든
친구인 길재만은 살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명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땅 위쪽에 장기관이 놓
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흙지, 길재
가 평소 나보다 한수 위였었지!

내기 장기를 하여 길재가 이기면
그 명목으로 길재를 살려줄 수가 있

있구나! 생각한 이성계는 느닷없이 “여보게 아흔, 우리 내기장기 한판만 두어보세.” 라고 했다. 길재가 장기판을 내놓으면서 무슨 내길 할꼬? 하니 우리 한강 따먹기로 하세.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장기는 결국 길재가 이겨 한강은 길재의 것이 되었다.

한강을 빼앗긴 이성계는 한강은 내 것이니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성계는 길재의 조선왕업원조 요철의 뜻으로 한강안에서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윤리를 내렸다. 이날 이후 한강안에서는 길재가 아인으로서 바울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죽음을 당했으나, 오직 길재만은 이성계와 장기판의 내

해답

- ① 21 차 51 장
 ② 75 상 52
 ③ 51 차 33 장
 ④ 55 마 43
 ⑤ 33 차 42 장
 ⑥ 23 마 42
 차타
 ⑦ 40 포 33 장
 ⑧ 43 마 55
 ⑨ 33 포 51 장
 ⑩ 53 손 43
 ⑪ 34 병 33 장
 포승



기장기 약속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아 저 유명한 희곡가 ‘오백년 드음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원은 외구하되 인물은 간데없네. 어즈비 배편헌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를 남겼다고 전한다.

지아비를 위한 기도문

부처님!

제가 좁은 소견으로 상 잘 내고 어리석어
 사소한 일에 지아비를 괴롭히고
 마음을 살파게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는 저를 대지(大地) 같은 보용과 바다의 도량으로 받아주었으며
 언제나 저와 가족을 위해 굳세게 청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크나큰 가피를 내리시어
 힘과 용기, 그리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어주시는 부처님
 그를 보며 인생의 뜻을 되새기게 하시고
 함께 고통 나누는 진정한 인생의 반려자
 영원한 벗으로 믿게 하소서.
 그의 가슴은 저와 온 우주가
 제 인생은 그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주부가 되게 하소서.
 늘 부지런하여 작은 것에 만족하며
 철학과 정세의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그가 외로울 때 다정한 벗과 같은 아내가 되고
 실패와 좌절에 빠지 낙담할 때
 어머니 같은 아내가 되어 그를 격려하게 하사옵소서.
 저의 기원 감응하사
 저의 소원 그를 따라 어디에나 믿이 나며
 하나 되어 이루게 하소서.

불도사에서 펴내는 ‘불불’에서 뽑았습니다.

숨가쁜 생활속의 여유

삼림욕이라면 여기가

나라안의 삼림욕장이 5월초 일제히 문을 열었다. 삼림욕은 나무가 내뿜는 정유, 테르펜 등 병충해에 저항하는 물질들 호르몬으로써 몸에 활력을 얻고 탄력있는 피부를 갖게 되는데,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5월~10월에 가장 많이 발산된다. 삼림욕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숲속을 거닐며 나무의 그윽한 향기를 심호흡하면 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뛰어난 나라안의 삼림욕장을 몇 곳 안내한다.

충북 영동군 양산팔경

노송들이 울창하다.

금강의 상류가 흐르는 강변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숲 속에서는 활처럼 굽이쳐 흐르는 금강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특히 수령 100년 아래의 삼삼한 소나무들이 내뿜는 향기가 진동한다.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

남한강의 지류가 영월 근교에 이르던 300도 정도의 곡선을 그리며 흐르는 절묘한 지형이 나온다. 따라서 왼쪽이 약간 트이긴 했으나 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일대에 수백년 묵은

전북 고창군 선운산계곡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은 전북 고창군 삼원면 경수산과 소요산 사이를 흐르는 설진강 어귀에서 골짜기를 따라 3킬로미터 남쪽에 있다. 여름에 이팝나무숲이 울창하게 펼쳐지고 약 2.5킬로미터에 이르는 울창한 송림과 배나무숲은 삼림욕의 최적지다.

인천 작약도 노송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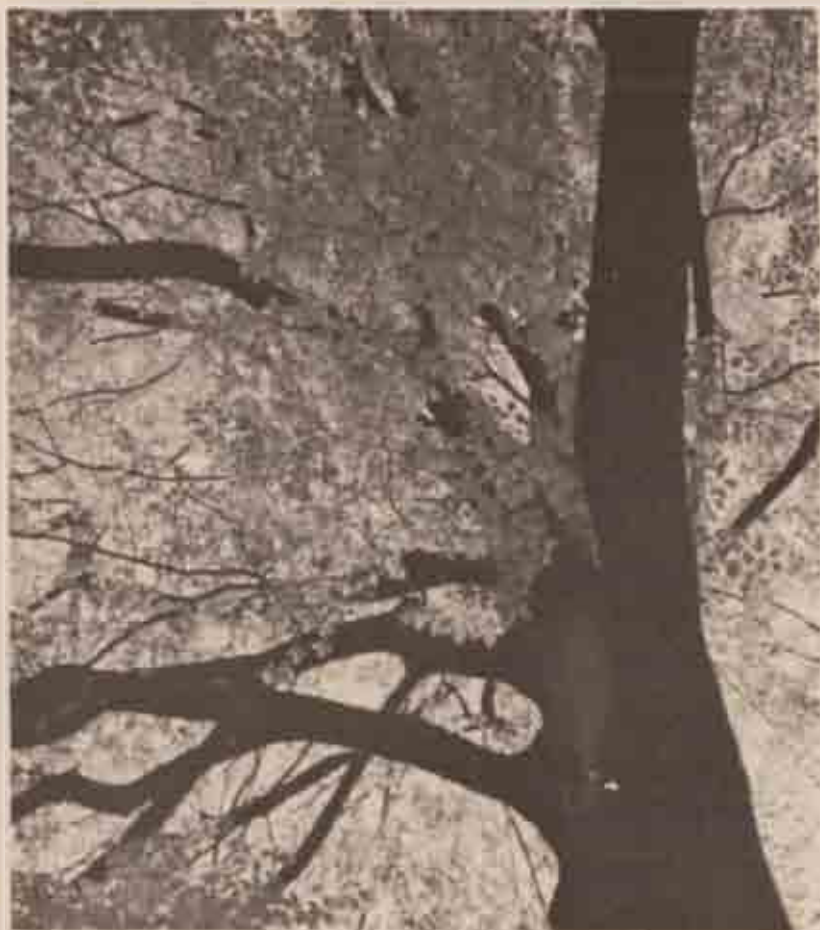
인천 서북쪽으로 약 3킬로미터, 배

삼 립 목

로 25 분이 걸리는 작은 섬 곡악도
해 약 1만 6,000여 평에 걸쳐 300
년 묵은 노송들이 빼빼히 들어 차
있다.

전남 곡성군 태안사 일대

심박 맥 창건된 돌리산의 태안사
부근은 울창한 숲과 함께 산새의 우



맛음이 좋아 삼림욕과 함께 가을의 교향악을 감상할 수 있다. 철어귀에서 약 1킬로미터 가량 두거진 참목 숲은 고색 창연한 절을 둘러싸고 있어 깊은 맛을 더한다.

강원도 대관령 휴양림

강원도 영주군 설산면 어촌리에 있는 대관령 휴양림은 통나무 교실과 집, 계곡을 이용한 수영장, 체체단련장,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다.

경기도 포천군 광릉 수목원

1468년 조선조 세종대왕의 능림으로 지정된 이래 약 500여 년 동안 보호되어 온 세계적인 미림. 30만

평의 넓은 숲 속에 100년 이상 묵은 피복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울창하게 서 있고 천연기념물 제11호인 크낙새가 살고 있다.

5월1일 문을 연 광릉삼림욕장은 10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을 빼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 일대

경춘가도를 달리 용문사에 들어서면 시외버스 종점에서 절 어귀에 이르는 길 양쪽에 소나무뿐 아니라 팔엽수가 울창한 숲지대를 이루고 있다. 수만 평에 이르는 숲 근처에는 시원한 계곡물도 흐른다.



V D T 증 후 군

최근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에 따라 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 VDT)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현재 국내 보급대수는 120 만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작업으로 직업능률은 향상되었지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VDT증후군이라 일컬어지는 건강 장애는 컴퓨터 조작작업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는 뚜렷한 증명이 되었지만 과학적 증거가 없이 과장되어 보급되거나 잘못 해석된 것들도 많이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건강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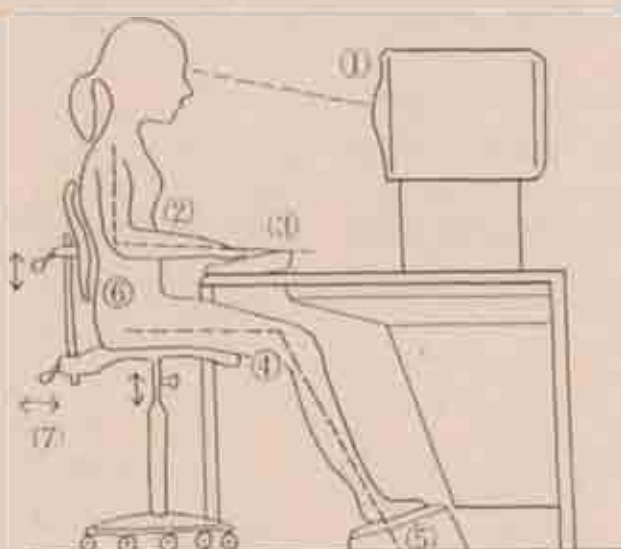
1. 시각부담

컴퓨터 단말기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고휘도의 화면주시, 영상의 깜박거림, 눈부심 현상, 글자와 배경의 대조비의 부적절, 주시거리의 부적절, 적절한 휴식 없는 장시간 작업, 고도의 정밀작업, 엄격한 작업관리 등으로 인해 눈의 피로는 물론 통증이 오고 눈이 따끔따끔하다거나, 충혈되고, 눈물

이 나기도 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시기능이 저하되어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시각장애가 나타난다.

2. 근·골격장애

부적절한 작업자세, 키보드의 높이 및 위치의 부적합, 작업대 및 의자 높이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목, 어깨, 팔장애, 배와 허리부들 장애, 손가락, 손목근육 장애 등이 나타난다.



- 컴퓨터 단말기 조작에 대한 독일의 노동안전 위생기준에 따라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작업자세의 예
- ① 화면을 향한 눈높이는 화면보다 약간 높을 것.
 - ② 팔의 각도는 90° 이상을 유지할 것.
 - ③ 손등은 전완과 수평을 유지할 것.
 - ④ 무릎의 각도는 90° 이상을 유지할 것.
 - ⑤ 키가 작은 사람을 위하여 발 받침대가 있을 것.
 - ⑥ 등의 각도는 90° 를 유지하여 골게 펼 것.
 - ⑦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3. 정신적 반응

자기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작업 상태, 단순작업, 연속작업, 작업연령의 고령화로 인한 작업자의 거부반응과

압박감 등으로 혈압상승, 심박동증가, 호흡촉진 등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두통, 오름, 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기타 장애

유해광선에 의한 영향과 관련하여 여성 컴퓨터 단말기 조작자의 유산 및 기형출산이 보고된 적이 있으나, 대조군 실험에 의하여 임신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에는 상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선, 자외선, 적외선 및 극저주파의 방출량 측정에는 모두가 허용기준에 못미치는 수치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장애 예방대책

1. 작업환경 관리

○ 조명관리

- 실내는 가능한 한 빛압의 대조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화면의 휘도와 조명의 밝기를 적절히 조정한다.
- 화면 및 서류나 키보드의 밝기와 주변의 밝기 차를 적게 한다.

○ 눈부심 방지

- 직사광선이 미치는 고휘도는 창문이나 밝은 조명, 밝은

벽면은 작업자와 90° 각도로 배치되도록 하여 시야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브라운관 표시화면 상에 빛의 반사가 없도록 라미, 반사방지를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 소음원과의 방지, 환기, 온도·습도 조절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2. 작업관리

- 일일수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휴식시간은 작업유형(자료입력작업, 세곡기기 감시작업, 대화작업 등)과 작업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정한다.
- 컴퓨터 단말기 조작작업과 기타 업무를 교대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업대 빛 효과
 - 의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하며, 조절 가능한 등받이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대와 의자의 높이는 안정된 자세로 작업할 수 있

- 는 높이로 조정되어야 한다.
- 나리 주변의 공장은 작업중 근로자가 타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

- 올바른 작업 자세를 갖는다.

3. 건강진단

- 컴퓨터 단말기 조작작업에 처음
으로 종사하게 된 근로자는 작
업배치 전에 건강상태를 파악하
여 작업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종사중에도 정기검진을 실
시하여 건강상태를 추적조사하여
야 한다.
- 컴퓨터 단말기 조작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와 작
업중 휴식시간에 적당 해조를
실시하여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건강관리 교육

관리감독자는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제반 대책의 유지와 방법을 주지시켜
컴퓨터 단말기 조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작업환경, 작업방법의 개선,
적절한 진찰원리, 작업에 의한 질리적
경감부담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 단말기 조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자체적인 건강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민 간 요 법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기진단 등의 현대의학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민간요법까지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민간요법은 집안의 주부들이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먹거리의 재료나 생약 그 자체를 특별한 방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의 지혜는 높이 삼만하다. 그러나 민간요법은 한방과는 달리 병이 났을 때 전적인 치료를 해준다기보다는 병세를 호전시켜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민간요법에 쓰이는 재료와 취법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감기 기운, 목감기, 가래, 천식

— 무릅물엿

무릎 밑에 등갈래 밑에 벌레 벌레 넣고 여기에 물엿을 섞는다. 이것을 삼시 두면 무릎이 다와 물엿과 섞이는데 이를 하루 여러 차례 한 손가락씩 먹으면 목의 통증과 기침에 효과가 있다.

— 제란술

난주(卵酒)라고도 하는데 정충을 한 잔 정도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뜨겁게 끓여 그 속에 달걀을 두세 개 넣고 잘 뒤섞어 껍질기에 알이 단숨에 비신다. 무릎이나 오한이 깨끗이 사라진다.

— 파뿌리

꽃물이 줄줄 흐르는 코감기일 경우,

과의 뿌라쪽 원 부분을 1센티미터 크기로 잘라 찹쌀 때 찹쌀등 위 끝 부분에 반창고 싸워로 붙인다. 찹쌀이 먹고 상쾌해진다.

— 술잎 달인 물

원석에는 술잎을 한 줌 정도 끓여 마시면 효과가 있다.

— 구운 굴

굴을 통째로 은박지에 싸서 약한 가스에 굽는다. 껍질이 쉽게 될 때까지 구워, 뜨거울 때 후후 불면서 먹고 잠자리에 든다. 초기 감기는 열은 뜻이 낮고, 두갈일 때도 이를 정도 먹으면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다.

— 무즙과 벌꿀

무즙을 만든 뒤 그 3분의 1 분량의 벌꿀을 섞은 것을 한 숟가락씩 하루에 대어섯 번 정도 먹으면 3일 정도면 열이나 목의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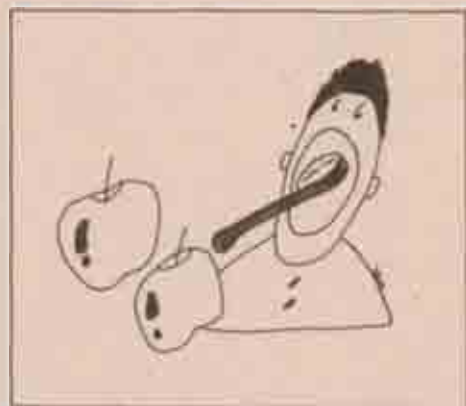
— 도라지 달인 물

도라지는 전혀 강장의 프약·뿌리해 효 물은 그대로 끓여 끓여내는데, 이 물 한 컵 정도 마시면 기력이 바로

법준다. 목이 아플 때는 이 물로 양치질을 한다. 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있다.

— 매실차

말린 매실을 대어섯 개를 으깨어 뜨거운 물을 부어마시면 어지간한 기침은 간단히 멎는다. 기침뿐만 아니라 발육장애와 재채기의 특효약이기도 하다. 물의 양이 처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 마시. 땀고, 시원한 정도로 만든다. 이를 한 컵 한 분량으로 하루에 한 번씩 마시면 고혈압에도 잘 듣는다. 중풍, 류머티즘, 원식, 고혈압, 빈혈에도 효과가 있다.



민간요법

— 늙은 호박

호박에 구멍을 틀어, 엿가름, 생강, 밤을 넣고 통째로 푹 찐다. 다 찌면 안의 내용물을 그릇에 퍼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밥먹기 전에 조금씩 마신다. 호박씨에는 철식에 좋은 효소가 많이 들어 있어 오래된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위경련, 위장장애

— 벌꿀 넣은 달걀술

붉은 포도주와 벌꿀을 반반씩 섞은 뒤 달걀을 넣어 마신다. 그리스에서 유래한 난주로 옛부터 불로장수의 묘약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마신 뒤 바로 쓰면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 허뿌리 즙

허방에서 허뿌리는 갈근탕이라고 해서 감기, 해열, 신경통에 많이 쓰여왔다. 특히 위장장애에는 효능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애용되어 왔다. 갈근은 구토와 모든 바비즘을 다스리는 데에도 쓰이는 데, 먹는 방법은 달인 허뿌리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마시거나 생즙으로 마시면 좋다.

— 벌 꿀

위열에는 벌꿀이 효과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벌꿀 한 숟가락을 먹는다. 이때 물기 있는 것은 함께 마시지 않는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효과가 좋다.

— 대추술

대추는 진정제 작용을 하며 장장애 효과가 있다. 위경련이 적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면 대추술로 완치된다. 대추와 술의 비율은 1대 3 정도, 실탕은 넣지 않는다. 차고 이룬 곳에서 2, 3개월 보관한 뒤 하루 1, 2숟가락 정도 마신다. 과음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 선민장즙

선민장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한 숟가락 마시는 것만으로 구역질이 마르는 위통에 효과가 있다. 2, 3일 동안 하루 세 번 밤 먹은 뒤에 마시면 위열에 탁월한 효력을 볼 수 있다. 말로레나 식용선민장을 재료로 쓴다.

— 씩주스

어린 시절 때는 주스로 만들고, 일

이 억제어진 것은 충분히 알려진 뒤,
최음 부은 물의 반 정도로 달여서
마시면 위궤양에 놀라운 효험이 있다.

- 양배추즙

양배추를 깨끗한 물에 씻어서 생즙
을 내어 하루 세 번 빈 속에 마시
면 된다. 양배추즙을 마시면 배에
가스가 차는 때도 있으나 위에는 상
당히 좋은 채소이다. 이 즙이 소화
기 안에 들어가면 위벽을 보호하고,
영양분까지 공급하므로 아침마다 속
쓰린 사람에게 좋다.

- 감자·과실즙

위 아픈 데 목효약. 감자 반 쪽,
당근 반 쪽, 사과 4분의 1 쪽, 인삼
1뿌리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날마
다 아침 빈 속에 마신다. 만성위염
환자라면 꼭 이 방법을 예복 것을
원한다. 감자는 위를 보호하고 위를
활발히 움직이는 힘을 보충해준다. 감
자는 절절해 써야 한다.

설사, 복통

- 붉은 뽕종

붉은 소금 처방량을 정적으로 써서
배를 바르. 밑에 갈아 아랫배를 따뜻

하게 한 뒤, 붉은 뽕종을 정적에 얹
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낫는다. 10
개를 먹으면 충분하다.

- 단식법과 꿀물

설사가 날 때는 밥을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 1컵에 벌꿀을 2, 3술가
락 퍼서 마시면 설사나 복통이 멎는
다. 심이차장제암에도 효과가 있다.

- 사과즙

사과에는 펙틴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과 두 개 정도를 강판에
갈아 밥 대신 먹으면 큰 설사가 멎
는다.

- 옥 즙

생옥을 썰어 즙을 낸 뒤 물을 조
금 붓고 끓여 마시면 약 30분 뒤부
터 설사가 멎는다.

- 꽃감즙

꽃감을 물에 넣고 삶는다. 이 물
에 찹쌀 반 컵을 넣어 약한 불에
온근히 끓여 하루 세 번 먹는다. 세
균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세균성 설사라면 꽃감과 찹쌀이 좋
다. 꽃감에는 탄닌과 당글삼이 들어

있어 설사를 멎게 하는 작용을 한다.

— 익모초 씹음

쑥과 익모초를 1대 3정도로 절구에 넣고 쪼갬다. 즙이 나오면 그 즙을 달인다. 처음에 비해 반으로 줄면 하루에 세 번 마신다. 어른은 풀 컵 반 잔 정도, 아이들은 소숫잔으로 2분의 1컵 정도가 좋다. 익모초에는 비타민 A, 지방, 때오유이린, 루틴 스테리딘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배 아픈 데 효험이 있다. 그러나 오래 먹으면 위벽이 얇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간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 급제, 헛배 부른 데

— 검정콩

검정콩 두 줌, 찹쌀 한 줌에 생채칼 약간을 들어넣고 물을 넣어 달인다. 그 물을 3분의 2쯤으로 줄였을 때 따뜻하게 해서 마신다. 찹쌀은 완화작용과 해독작용을 한다. 검정콩도 해독작용을 하므로 식중독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검정콩은 원검질에 색인 콩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엄지 찌르기

엄지 손가락을 실로 찌르면 위 배

늘로 손가락의 뒷 부분이다 안쪽을 살짝 찌러 피 낸 다음 실을 풀어준다. 급제에 실통한 효험이 있다.

— 무즙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마시는 것도 급제에 효험이 있다.

— 묽은 소금

묽은 소금 한 숟가락을 프라이팬에 달고 약한 불에 끓인다. 노릇노릇해지면 불에 다시 마시도록 한다. 소금은 구우면 나트륨이 늘어나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힘이 커진다. 특별한 이용 없이 음식을 먹고 답답할 때 좋은 방법이다.

— 해바라기씨

씨 한 숟가락에 물 한 컵을 붓고 중불에 달인다. 3분의 2쯤으로 줄었을 때 물을 쓰고 하루에 서너 번 마신다. 여가 많으면 많이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마셔도 된다.

해바라기 씨에는 삼유질, 지방, 필수유, 비타민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유류를 먹고 채한 배는 그만이다.

브레이크 오일



이유없이 오일 들면 패드
교환 오일만 보충하면 디
스크 손상

어/브레이크경고등이 점등되네.
자동차를 시동걸기 위해 엔진 키를

1단 넣으면 보통 계기판에 충전경고
등, 엔진오일경고등, 브레이크경고등의
3가지 경고등이 점등된다. 시동을 걸
면 충전경고등과 엔진오일경고등은 꺼
지고 브레이크 경고등만 남게 된다.
시동 후 출발을 위해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

를 풀면 브레이크 경고등도 꺼진다.

브레이크 경고등은 이와 같이 주차 브레이크가 당겨져 있을 때나 또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내에 주입된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할 때도 켜들게 되며 있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 저장통에 담겨져 있으며, 오일량은 그림 A, B와 같이 최고선(MAX)과 최소선(MIN) 사이에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어느날 브레이크 오일 저장통을 살펴보니 오일량이 최고선에서 밑으로 줄어들어 최소선 부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는 경우가 있다. 차의 구석 구석을 살펴 보아도 브레이크 오일의 흔적이 없는데도 오일이 줄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부족하면 보충하면 되겠지 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지 않았는데 왜 줄어 들었을까?

승용차용 브레이크는 거의 모두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즉, 유압식 브레이크란 페달을 밟으면 밟는 힘이 그림 A, B와 같이 유압으로 변화되어 캘리퍼 피스톤을 밀어내면, 브레이크 패드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아 제동력을 얻게 된다.

제동력이 발생할 때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패드가 조금씩 마모하게 된



다. 이 패드의 마모 정도는 자동차의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패드의 마모가 정상일 때는 그림 8과 같이 브레이크 오일량이 규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하면 마모할수록 수동 캘리퍼 피스톤이 앞으로 밀려나오게 되므로(그림 9) 피스톤 뒤쪽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오일 저장통 속의 오일이 줄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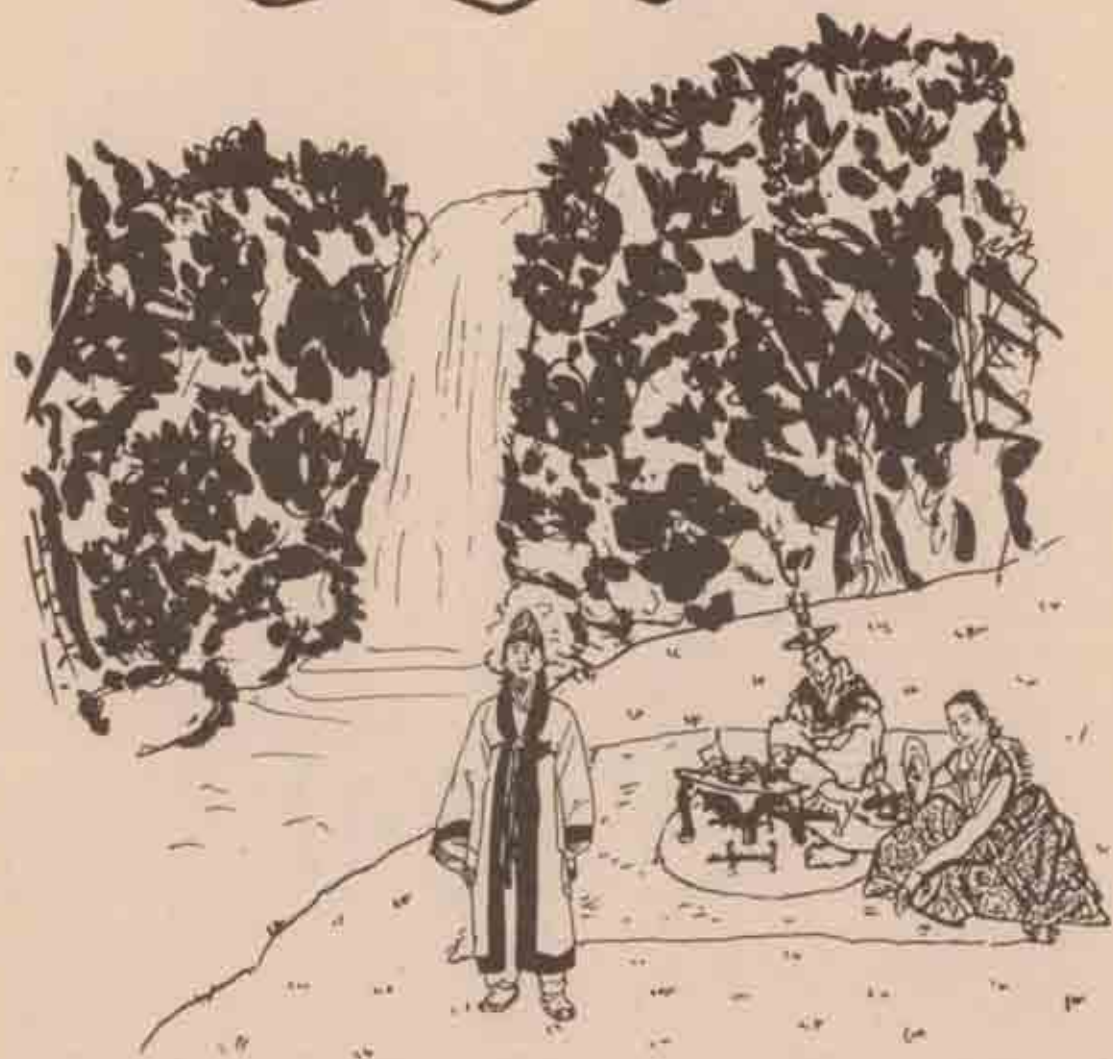
이와 같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 브레이크 오일이 줄어들며, 패드의 마모가 심해져 교환할 때가 되면 브레이크 오일의 높이가 최고선(MIN)

에 오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기도 한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지 않았는데도 오일의 높이가 낮아졌거나 브레이크 경고등이 점등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되어 교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 즉시 패드를 교환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지 않고 오일만을 보충하게 되면 패드가 과대 마모되고 금속판이 노출되어 디스크와 패드의 금속이 접촉하게 되어 디스크의 손상이 초래된다. 또 오일만 보충하게 되면 패드를 새것으로 교환할 때 저장통 내의 오일이 최고선을 넘어 지나 넘치게 된다.



文艺



광활한 미지의 대륙



대령 서 홍 교
(공군본부)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항상 한반도 바로 아래 적도를 지나 남반구의 커다란 대륙이 눈에 들어온다. 또한 TV 뉴스시 앵커들의 벽면에 비추어 주는 세계지도의 모습에서도 호주의 땅이 한눈에 비추어진다.

우리가 미국이나 동남아, 구라과 정도는 이제 날이 갈수록 자주 소식과 정보를 접하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불과 70년대까지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호주는 1959년 6.25 당시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UN군의 거치아래 16개국의 일원으로 호주 공군이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한 우방국임을 인식할 수 있다.

전쟁직후 일본에 주둔하는 호주 공군이 바로 창건하였고, 휴전직때까지 많은 장병들이 참가하였으나, 281명의 전사자와 행방불명자가 나왔다는 사실에서 전란지 우리를 돕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였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마침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호주에서, 제 17회 세계모형항공기 선수권대회(World Aeromodeling Championships)가 웨스턴시인 셰르본 북동쪽 230 km 지점에 위치한 뱅가타라(Wangaratta)시에서 개최되어 참모총장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정훈감실에서 처음으로 해외출장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를 연 13년간 치루어오면서, 국내에서의 대회운영과 진행이 세계 모형항공기대회와 비교 발전의 모색은 매우 관심 있고, 기대되는 행사임이 분명하다.

공군에서 주관하는 공참세력의 실용적 개최와 건물을 넓히기 위한 세계대회장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얻게 했다. 세계대회 경험에 대해서는 국방일보와 월간 항공지에 3회 걸쳐 연재되었지만 미지의 대륙으로 살필 때 오인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기억을

광활한 미지의 대륙

다시 한번 살기 하고자 한다.

○ 호주의 역사와 발전

우리에게 기억되는 호주는 시드니 항구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비브리지의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나 불란서의 에펠탑이나, 개천문, 이집트의 �핑크스에 버금가는 가장 인상적이고 대표적 인 상징물이 되어 있다.

또한 이 대륙에만 살고있는 앵거루와 코알라 등 신비한 동물로 가득찬 대륙의 나라로 남아있다.

그러나 직접 화보나 그보다 더 엄청난 느낌과 우한의 대륙임을 실감할 수 있었고 끝없는 사막과 초지로 펼쳐지는 태고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불과 202여년전에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게 발견된 대륙으로서, 아직까지 밭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원시적 자연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광활한 대륙 호주는 동서 4,000km, 남북으로 3,200km, 면적 768만 2,300km²의 크기로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전체면적과 비슷하며, 우리나라 남북한의 35배, 남한의 78배에 해당되는 거대한 대륙이다. 동부 시드니에서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Perth)까지 기차로 3마 4일간의 달리는 대륙 횡단

일차에서 그 크기와 규모를 알 수 있다.

이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불과 1,700만명 거주하고 있으니, 우리의 땅과 인구에 비한다면 아직도 호주는 비어있는 땅덩어리가 개발된 지역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활한 호주땅에 영국이 등장한 것이 1688년이며 17세기 초까지 타스마니아(Tasmania) 섬과 뉴질랜드가 호주의 일부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고 다만 남극대륙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시드니 남쪽 브트니만(Botany Bay)에 정박한 것이 1770년 8월 22일이며, 이후 수학에 걸쳐 호주 여러지역을 탐험한 후 1829년 호주전역을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선포하였다.

당시 김비에 한 원주민과 호주에 사는 동물 그라프 태고의 자연 그대로였다. 이후 1788년 1월 시드니 반으로 11척의 범선에 영국의 유형 수를 포함 한 720여명이 영국 포츠마드함을 떠난지 8개월만에 지구의 한 바퀴 2,300km를 항해하여 최초로 발을 디딘 땅이었다.

당시 함대사령관은 조지 3세에 의해 뉴사우스 웨일즈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아시필설 선장이 되고, 그 곳은 당시 영국내무장관 비스콧 시드니의 이름을 딴 시드니(Sydney)로 명명되었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의 나라로 발전되었으며, 인구 400만명의 호주 최대도시로 1970년대 중엽에 건설된 오페라 하우스가 세계의 명물로 알려져 있다.

○ 시드니의 새로운 명소가 될 해저터널

미항 시드니의 명소는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이지만,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사중에 있는 하버브리지의 지하 해저터널은 불원간에 아름다운 시드니의 또 다른 명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오페라 하우스의 외형과 모습의 완성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느낄 수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예술적 위치를 갖고 있는 음악성 때문이다.

이러한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만 동쪽 배내물곶에 위치하고, 조계섬길모양의 특이한 해안지방의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건축되어 있



(시드니의 상징인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의 웅장있는 모습과 함께 바다 밑으로 해저터널공사가 한창진행중에 있다).

기 때문에 더욱 유명하다.

이 건물은 1959년 착공 이래 도중에 여러번 차급난과 공사난으로 지지부진해 오다 근 14년만인 1973년 10월 완공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임명한 가운데 개관되었다. 실내에는 2,700명을 수용하는 메인 콘서트홀과 1,500석 규모의 오페라극장, 550석의 극장, 420명의 영화 및 실내악집중홀 등이 있다.

그와 부수적으로 아트갤러리, 음악스튜디오가 있어 시드니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각종 음악연주 등 발표회가 주야로 실시되고, 야간의 장치는 더욱 돋보인다. 바로 인접해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하버브리지(Harbour Bridge)로서, 포스트백슨만 위에 걸쳐 서의 중심부와 북부를 잇는 다리로서 오페라하우스와는 그림같은 환상의 상징물로 건조되어 있다.

길이 1,149m, 아치부분 503m, 바다에서 높이 59m, 도로 너비 49m로 자전거용과 보도, 8차선 폭도와 철도의 대가리로 구분되어 있다.

1926년에 착공하여, 1932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앞쪽 교각탑인 파이론 4개에 받힌형 철제 아치로 지탱하고 있으며, 또, 밀요일에는 4개의 파이론 내부를 일련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다리는 싱글아치 형태로서 세계에서 두번째 다리이며 지금은 건설된 지 약 60년이 지났고,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라시아워 정체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저터널공사가 완공되면 시드니의 새로운 명물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에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지하해저터널은 하버브리까지 남쪽의 오페라 하우스 해저길으로 케일고속도로(Kahill Expressway)와 북쪽의 웨링가도로(Warringah Expressway) 사이 지하 2.3km의 해저터널공사가 1987년 시작되어 1992년 9월 완공목표로 대역사의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호주는 모든 도시가 바다와 인접해 있어 높은 푸른 하늘에 둥게구름으로 재빨린 고공을 느낄 수 있고 저상에는 황색지붕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풍경속에 모든 것이 자리잡혀 있다. 또한 시드니는 써클러 퀘이(Circular Quay)항구에서 포스트백슨항구를 누비는 여객선과 주택가 주위 해변의 요트와 쾌속선이 바다위에 떠 있는 모습은 그림같은 풍경으로 너무나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시내 가까운 곳에 본다이비치(Bondai Beach) 해수욕장의 해변양의

거친 파도가 부서지고, 상해를 빚은 해수욕과 태양욕은 병렬한 모습이다.

○ 호주 제2의 남만도시 멜보른

오스트레일리아의 제2도시인 멜보른은 아주의 중심도시이자,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지로서 농사를 집산지로서 번성하고 있으나, 시드니는 개방적인데 비해, 멜보른은 보수 질서의 도시풍이다.

도로주변엔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하고, 푸른나무들과 어울려 유럽의 옛도시를 연상시키며, 도심지를 달리는 전차의 모습은 오색채연한 영국의 옛물풍과 유사하다. 1970년에 완성된 근대적인 멜보른 국제공항은 시의 남서쪽 20km에 위치하고, 국제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좌우에 국내선 안세트항 공항터미널이 있어 각 지역으로의 편리한 교통편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빅토리아 주의회의사당 건물(Parliament House)은 고색이 가득한 200여년전의 건물임에도 아직도 건물이 전체하고 시설이 호화스럽게 설치되고, 많은 차를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과 주의회 대표들이 앉아 있는 곳까지 친절함 안내와 설명은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임을 느낄 수 있다.

1856년 골드러시도, 흥성되던 시기에 코린트양식으로 건립된 이 건물 장면의 유제 열주가 연속된 느낌을 더해준다.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성립하자 연방의사당으로 쓰여, 수도가 캔버라로 옮겨 질 때까지 20년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피기가 아닌 때는 관람이 가능하고 친절함 안내원 설명으로 내부를 전부 구경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이 멜보른에서 웰카라타까지 기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도착한 플린더스 스트리트(Flinders Street Station)역은 고전적인 건축미와 역내의 활기찬 모습을 상어할 수 있었다.

기차의 설계구조는 안락했고, 약 3시간이 소요되는 멜보른에서 웰카라타까지는 끝없는 직선을 그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광활한 벌판위로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을 통과하는 것이 특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접마을들은 거의 볼 수 없었으며 역주변의 건물 외에는 동물들이 등판에 버어노는 광활한 대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멜보른에서 서쪽 프리웨이로, 따라 약 110km의밖에 금광촌지역이 있다.

금광촌박물관은 소버린힐(Sovereign Hill)의 중국인 마을(1859년)생활



〈앨버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버린힐의 금광촌 모습〉

상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같은 세월이 지나 사라진
자반, 당시 유물과 생활상의 모습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1854년에서 1961년 사이 형성된
금광촌 시가지의 각종 살점들은 흡사
서부시대의 노천가게의 모습이었고, 당
시 생활의 단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았다. 이 박물관은 1851년
~ 1918년까지의 금광촌 단면을 모두
이곳에 위치 그대로 보존되어 당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

다.

○ 한상과 위란의 도시 골드코스트

황금빛의 모래가 30km가 이어져 있
고, 연평균 섭씨 24도의 맑은 날씨
와 원해의 해안 휴양지 조건을 갖추
고 있는 곳이 골드코스트이다. 일광
욕에서부터 모든 레저스포츠를 1년내
내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
안과 인접된 도시의 휴장으로 골드코
스트로 불리어지고 있다.

글드코스트는 퀸즐랜드(Queensland) 주의 브리즈번 남쪽 65 km 지점에 위치한 시와스 패리다이스에서 쿨랑가타(Coolangatta)까지의 긴 해안선 전체를 글드코스트라 칭한다.

이젠 우리는 엘리펀에서 다시 북쪽 브리즈번 공항에 내리자 않고 바로 글드코스트로 직접 가는 쿨랑가타공항에 알베트항공편으로 도착했다.

세계적인 휴양도시이며, 아름다운 해안과 유락시설은 어느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시설과 규모였다.

특히 광활한 시와스패리다이스가 글드코스트의 중심지이며, 해안선과 하늘이 맞닿는 곳의 수평선까지 시야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이곳의 씨월드(Sea World)는 넓이 20 ha의 면적에 입장료만 내고 들어오면 볼 수 있는 돌고래쇼와 멀티스크린의 해양극장, 광둥모노레일, 돌고래에서의 오스트레일리아 초기 개척자를 연상시키는 위락시설은 이곳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정말 이곳에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



〈휴양도시 글드코스트에 있는 씨월드의 돌고래 시연〉

광활한 미지의 대륙

휴양오면 최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호주의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켄거루, 코알라 구경은 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가장 인기있는 커럼빈 아조원(Currumbin Bird Sanctuary)은 야생보호구역으로서, 양묘의 일종인 로리킵트(Lorikeet)라는 새의 무리가 오후 4시경만 되면 어느 곳으로 날아오는지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모이를 먹고, 관광객의 손과 머리, 어깨 등 인체 가까운 곳에서 노

니는 모습은 장관이었고 새의 색깔이 온통 흰색으로 물들은 듯한 분위기이다. 이곳엔 코알라, 켄거루, 울바트 등 호주의 야생동물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데, 자연의 태양속에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숲속에서의 한적한 풍기는 상쾌함을 더욱 빛나게 했다.

호주는 아름다운 나라이며, 광활한 대륙이다.

짧은 기간의 여행으로는 할 단편을 볼 뿐이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호주의 일부를 보고 호주를 말하기는



〈커럼빈 야생조류원에는 양묘새 일종인 로리킵트새가 관광객의 손등 위에서 함께 노니는 모습〉

너무나 짧은 사고이지만 이를 계기로
호수에 대한 전반을 이해하고, 지리역
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는 사실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한다.



B B 특 공 대

〈유 성 중〉



영웅이는 이제 일곱 살 된 조그마한 꼬마아이입니다. 일곱 살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골목대장을 하고 있는 아주 당찬 꼬마입니다. 동네 어른들은 모두 영웅이를 칭찬하십니다. 이름처럼 영웅이 될 재목감이니까요. 하지만 그 저런 고집만 고쳐준다면 하는 것이 동네 어른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영웅이가 골목대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영웅이의 그 악바리 같은 고집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영웅이보다 나이가 많고 키가 커도 영웅이에게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영웅이는 싸웠다면 집도재워라든가 문까지 들고 들어

지거든요. 결국은 모두 손을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영웅이입니다.

이제 영웅이도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부터 영웅이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람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 이제 학교 들어간다아!”

“학교 가면, 응,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섭다더라아.”

“괜찮다, 뭐. 난 선생님 이길 자신 있다아.”

“그래도, 응, 선생님은 더 무섭다더라아!”

“그러면 난 권총들고 싸울거다.”

영웅이는 재미있게 본 반공드라마 ‘우리 오마니, 어디 자랐습네까’를 떠올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응, 선생님은 바주카포들고 싸운다미라아!”

“그럼 난, 응, 난, 난, 메칸더 부이(브이)라고 싸울거다아!”

“메칸더 부이(브이)가 어딴냐?”

“있다, 있다아!”

“없다아!”

“있다아, 있다면 있는 줄 알아, 뭐!”

영웅이는 얼굴이 빨갛게 상거린 채 소리를 쉰 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영웅이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이길 수 있을지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끝내는 반죽알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길 수 있어?”

“뭐? 선생님한테 이긴다고?”

“응, 해들이 그러는데 학교가면, 응, 선생님이 바주카포들고 해들하고 싸운대.”

“호호호, 그게 무슨 말이니? 참 웃기는 이야기구나, 영웅아, 그게 아니란다. 학교 선생님은 무척 좋으시란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란다. 학생이 선생님하고 싸운다니, 호호호, 그런 엉터리같은 이야기가 어딴냐?”

“아니야, 뭐. 난 학교가서 선생님하고 싸워서 꼭 이길거야, 뭐.”

“애가, 그런 게 아니래두…….”

BB 특공대

영웅이는 전학 선생님과 싸움듯이 표크마한 주먹을 맞곤 귀여 보였습니다.

X X X

드디어 영웅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영웅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 먼저 거창 소중히 여기던 BB탄을 보형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BB탄을 손에 가득 채우고 말입니다. 영웅이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영웅이 가방을 챙겨 주고 계십니다. 두툼한 잠바를 입고 다시 그 속에 장난감 권총을 숨기고 나서야 영웅이는 엄마와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조깅조깅, 뽀뽀뽀.....

학교는 온통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반배정을 했는데 영웅이는 1반이 되었습니다. 1반에 배정된 꼬마들은 어느 날고 예쁜 여선생님에게 모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기 이름을 김미영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천하게 저녁 먹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웅이는 속으로 계속 선생님을 이런 굴러만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로 출발한 국민학교 생활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날고 학교에서 생활할 때 자기 방대로 하면 무시운 선생님께서 혼난다고 하시며 무시운 흉내를 내셨습니다. 애들 모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소리가 나면서 선생님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앗 / 누구예요?”

선생님은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탕 / ”

“아앗 / 2분단 앞에서 세 번째 어린이 나와봐요.”

불러 나간 아이는 다름아닌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이는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과 싸우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을 쏜 건 것입니다.

“방금 그거 장난감 총이요? 그거 이리 주세요, 위험해요.”

선생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영웅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싫어…요. 난, 응, 선생님한테 복 이걸거야…요, 뭐.”

“나한테 이긴다고? 무슨 뜻이지?”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방과 후 부모님을 만나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수업이 그러저러 끝나고 선생님은 영웅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영웅이 엄마로부터 자존치증을 들은 선생님은 영웅이의 고집 부리는 나쁜 버릇을 고쳐 주어야 겠다고 믿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선생님은 영웅이에게만은 무절제 토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영웅이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아, 이름이 참 멋있구나. 그래, 나하고 싸워 이긴다고?”

“예, ”

영웅이의 당황 대답에 선생님은 잠시 뒷골이 매였습니다.

“선생님은 너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단다. 난 오히려 네 친구가 되고 싶은걸?”

“저것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싸우라고 들고 싸운데요, 뭐, ”

“아니란다, 영웅아. 지금 네가 애들이 장난칠 걸 끝이 듣고 그러는 모양인데, 모두 잘못된 것이란다. 학교는 모두가 친구가 되어 함께 공부하는 곳이란 다.”

“흐응…….”

영웅이도 생각해보니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영웅이는 다른 날부터 김미영 선생님을 제외한 싸울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3학년 교실에 가다가 영웅이는 어떤 형들을 두隻는 선생님 뺨뺨 수에 이지 없이 원충을 쫓았습니다.

"타,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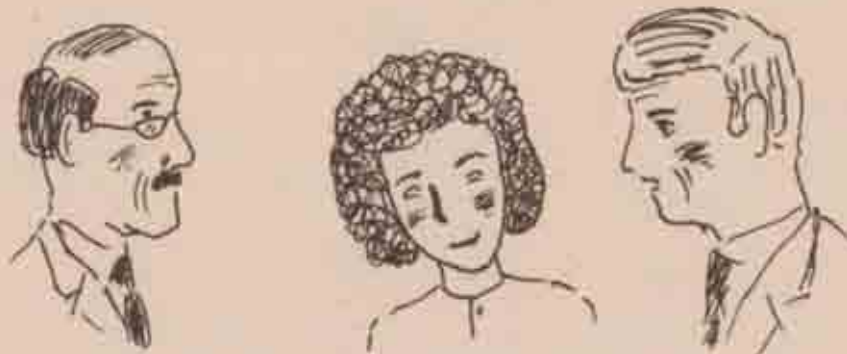
"아앗! 누구야?"

전쪽 화가 난 얼굴로 돌아선 선생님은 범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영웅이는 급세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영웅이는 한 건(?)을 해결하고 나서 교실에 돌아와 자발스럽게 자신의 영웅담을 전쪽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응, 3학년 교실을 가는데 어떤 나쁜 선생님이, 응, 회초리 미사일로 학생들을 막 공격했다. 그래서 내가 이 총으로 다 죽여가는 그 형들을 다 살려줬다아."

"후와~."

영웅이의 영웅담에 아이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영웅이에게 당한 선생님들은 모두 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말 빠른 영웅이는 그새 교실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보니 오후엔 어떤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선생님들은 오전에는 할부로 아이들을 혼낼 수 없었습니다. 언젠 그 범인에게 당할 지 모르니까요. 그저 선생님들은 범인이 어서 잡히기만을 비를 했었습니다.



영웅이가 학교에 입학한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웅이는 학교의 별동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정의의 기사'란 별명과 함께 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만 놀고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혼날 뻔 영웅이가 다 해결해 주거든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영웅이를 알게 되겠지만 할부로 해결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영웅이와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웅이는 학교 선생님도 어찌지 못하는 실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무실에서 특별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영웅이의 고집을 고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가 장난감 총을 봐도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말입니다. 이 계획은 점점 맞아 들어갔습니다. 영웅이의 선생님들 습격(?) 사건은 점점 증대되었던 것입니다. 영웅이가 선생님에게 총을 쏘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 별 반응이 없자 영웅이는 차츰 이런 일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는 전쟁(?)을 하게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웅이가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무렵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웅이가 친구 집에서 놀고는 오후 늦게 집에 돌아가다가 불쌍배들에게 걸린 것입니다. 불쌍배들은 처음엔 국립학교 1학년짜리 꼬마라서 그냥 보내주려고 했는데, 영웅이가 워낙 바락바락 대드는 바람에 조금 배변 것입니다. 눈이 뽕뽕 부어서 집에 돌아온 영웅이는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을 새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불쌍배들이었습니다.

이튿날 김비영 선생님은 영웅이 소식을 듣고 영웅이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영웅아, 많이 아프니? 어케 그 불쌍배들, 무척 나쁘지?"

"예, 흠직."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불쌍배들은 싫어한다."

"정말요?"

"그러업. 그전 그랄고 영웅아,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과 싸울 생각이냐?"

BB 특공대

뜻 밖에 영웅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영웅아 정말이니? 그럼 앞으로 천하게 지내기로 약속하자꾸나.”

선생님과 영웅이는 서로 새끼 손가락을 절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날.

1학년 1반 남자애들이 구석에 모여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영웅이를 못살게 굴 불량배를 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생님 몰래요. 방과 후 놀이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대장은 만장일치로 영웅이가 되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놀이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BB탄 장난감 권총, TV 만화 ‘우리의 꼬라지들’의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레이저검(장난감), 연탄 부지깥이, 이쑤시개로 열기설기 역어 만든 표창 등 모두 제작자의 무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영웅이가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특공대 출발!”

“와!”

모두 영웅이 뒤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한편 외근을 앞두고 교실 정리를 하던 김미영 선생님은 선생님 책상에서 꼬깃꼬깃 접혀진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영웅이가 아이들 몰래 남긴 쪽지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쁜 놈 자부리 강니다. 우리 나쁜 놈 자부면 마짓는 거만이 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니다. 유명웅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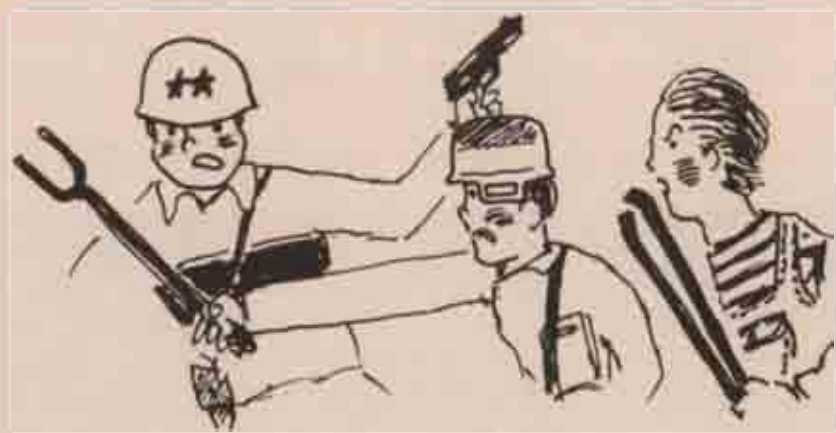
× × ×

그로부터 40여년 후 경찰의 눈을 맞아 국가 유공자를 표창하는 시상식이 전국에 중계 방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안부분 표창입니다.

유명웅 경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 경감은 지금까지 약 12여년동안 우리 나라 치안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으로, 많은 폭력 및 질도 사범들을 체포했으며 많은 강력 사건들을 훌륭히
처리해 오늘과 같은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편집자주 : 글쓴이 유성종은 중학생으로 교육사에 근무하시는 유제환 사무
관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옛날

〈전 호 명〉



내 고향에서 정촌중학교를 다닐 가 대구공항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
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원구 았다. 30년 전에 동문수화(同門畵)

學)하던 벗인지라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을 나눴다.

당시의 친구는 보통 키에 얼굴이 넓은 편이었고 과묵하다실을 정도로 말이 없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그렇면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 정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까지는 소문을 들어서 하는데 서울은 어떻게 해서 올라갔을까. 2세들은 벗이며 어느 정도로 겹쳐, 선생이라면서 사업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참으로 오랫동안 맞이하게 될 친구에 대하여 이런 모양.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머무는대로 맞추어 보기도 했다.

공항의 제류장에 항공기가 도착을 했는데 승객들이 밖으로 나올 문이 열렸다. 하작도 이끌거려던 태양의 열기가 세 식지도 않은 3월 초순의 저녁이다. 잠시 후 간편하고 깨끗한 옷차림의 승객들이 하나씩 줄기 밖으로 나왔다. 친구도 내 키 정도는 크지 않을까. 얼굴이 넓었으나 키슬이 뻗어버린 십자어졌지. 나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차종부터 차군차군 살펴보았지만 한일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마지막 남은 몇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문 앞으로

다가서는때 들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다. 내 친구 남군대였다.

30년의 세월이 서로를 몰라보게된 분장(紛裝)을 시켰던 것이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세 지나갔고. 나 또한 남군의 모습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대로 키가 크지도 않았고 넓은 얼굴도 아니었다. 보통사람의 모습일 뿐이다.



학창시절에는 말이 없던 함성이었기만 지금까지 고단한 차운 선생이었기에 말도 잘 했고 침착하는 다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세련된 줄거를 갖춘 중년전사의 모습이다.

먼 길을 같이 온 그 인생의 반리지 또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박한 세상에 배둔지 않은 바음씨 좋은

우리들의 옛날

아낙네로 보인다. 부부란 내게 안팎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더니 이들이 그렇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원만한 사람으로……

남군과 나는 이웃 동네에 살았다. 그래서 학교길에는 번거투성이의 신작로를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우정의 실(絨)을 팔았다. 여름에는 명강 다리목에 울퉁 패인 웅덩이에서 빌거벗고 목욕을 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자취방의 냉기에 빌기도 하였다. 그 세월은 고난이었지만 그래도 배워야 산다는 항학열(向學熱)에 몸살을 하던 우리들.

남군이냐 나는 혼자서 길을 가다가 앞에 여학생의 땀겨리가 있으면 난감해 하곤 했다. 그녀들을 지나쳐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다. 도대체 전고 있는 것인지 돌고 있는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무엇이 즐거운지 뒤를 돌아보면서 짹짹대기만 한다. 내 흉을 보는 모양인데 남편이 아닐 수 없다.

이리다간 아무 일도 안되겠다 싶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앞으로 나서면 이유없는 웃음이 다시 한번 비탈을 일으킨다.

풍요롭게 먹어가는 가을벌판에는 추재할 수 없는 몸을 구부리고 있는

나락위로 바람 한줄기가 지나가면 얼굴뚝만 아니라 온몸이 빨간 고추잠자리가 나타난다. 그것은 고추잠자리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었다.

우리들의 옛날은 꽤 그럴지도 순진했을까. 순진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었을까. 내 또래의 계절애들 하고 같이 걸지는 못할 망정 그 열을 지나가는데 무엇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혀야만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던 친구가 지금은 고추잠자리가 아니라 세련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부드러운 미소로 여유를 보인다.

그런 저 친구의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떨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래도 학문을 연구하는 스승의 자리가 고향의 푸른 언덕에서 노닐하던 우리들의



꿈이 아니었더냐고 반문할는지 모를 일이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지 마음에 틀 일이 아니다. 활랑한 별판을 가로 질러 이만큼 쫓아왔으면 되었지 무엇이 문제가 되랴. 네가 성공하였다면 그것으로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나.

세상 사람들이 슬픈 일에는 같이 할 줄 이는데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면 기쁜 일에는 진정한 축하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다. 환한 내 모습에서 지난 날의 고달팠던 일기가 한층 더 돋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남군과 보낸 하루가 짧았다. 그가 온다는 전갈을 받았을 때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만나고 보니 옛 정이 되살아나서 참 좋았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했던가.

타향객지를 돌고 돌면서 내 곁을 지나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너무 많아서 헤아리질 못한다. 그 가운데 친구로 남아 있는 이는 누구 누구인가. 아스팔트 신열(身熱)이 나는 도로나 감정조차 예마른 시멘트 모퉁이를 돌다가도 문득 추억의 모습으로 떠올라곤 한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연락이 닿아 웃기더라도 스치는 인연보다도 소식조차 끊긴 이들이 더 많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면면들이 그렇기도 하고 보고싶기도 하다.

△ 글쓴이 전호명 : 제3659부대 경비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준위님이십니다.



천사와 악마

천 사 와 악 마

〈최 태 근〉



봄 이 오고, 다시 꽃이 피고……

윤행가의 한 극조처럼 세월은 흘러 자까머리 방승대는 그이를 능률 한 신발에서 이제는 제법 외젓한 뽕 짚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돌아보면 그리운 나날이전망. 그때는 왜그리 힘들고 가슴답답한 시절이 있었는지, 피세기는 바늘 한구석 뚫뚫한 나의 발자취가 마냥 정정기만 하다.



나의 길지 않은 굴복부 기간중에 무엇이든 해보려고 시도해보고 얼마안가 다시 그 결심조차 잊어버리기를 수십 번이었다. 그런 나에게 따스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잊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는 나의 이런 시도들을 북돋아주고 내 인생의 지표에서 조그만 길을 인도해준 사람이었다. 길 ○○ 병장 난 지금도 그 이름을 떠올리면 캔스레 얼굴 붉어짐을 느끼곤 한다.

그와의 첫대면은 아주 무더운 8월 피학벌아래 묵직하게 눌려오는 더위에

을 둘러싸고 ○○정비중대 앞에 내리면서였다. 주위에 둘러선 여러 고관들은 신기한 동물들 보듯이 나의 행색을 제빨리 훑어본 후 제각기 한미다워 했다. “와 신발이다”에서 “왜 이러 빠졌어 내 발에오면 댄 죽었다.” 하며 다소 위협적인 언사로 나의 운추려든 복을 더욱 서늘케 했다. 그 어수선했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신병, 앞으로” 나는 정신없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등근배의 안경을 건 바로 길 ○○병장이 서있었다. 난 그곳에서 5분여동안 이른바 “군기”의 표본이 되어야 했다. 주위에선 영내의 자들은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마침내 신고식이 끝났다. 그는 나에게 “수고했다 신병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곤 사라졌다. 그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천사와 악마

그후 김○○병장님이 제대하기 7개월동안 난 그의 밑에서 “동고동락”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는 근무의 여유가 생기면 중대열에 있는 벤치로 내려가 담배도 주고 가끔 불병의 허거친 배를 조글이라도 보충시켜주려는듯 파자나 빵을 사주곤 했다. 이런 저런 그의 생활담은 그의 말대로 하등반 진실반이었다. 그 덕분에 쉽게 자대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업무도 쉽게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업무를 조금 할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 천사로 알고 있던 그가 갑자기 악마로 돌변한 것이다. 사사건건 그는 나의 실수를 예리하게 잡아내고 질책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그의 태도변화에 당황한 나는 허둥대고 그럴수록 실수는 더욱 늘었다. 그러나 한달, 두달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보니깐 난 실수가 줄어들고 제법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그의 간섭을 피할 수 있었다.

그의 제대전날, 그는 나를 예전의 그 벤치로 불러 담배를 권했다. 그가 거기서 한 말들은 정말 나로서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었다.

“최일병, 그간 내가 미쳤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최일병이 이제는 어엿한 군인이므로 한자리를 든든하게 차지한 것이 무척 기쁘다. 모든일에 열심히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교감이 되길 바란다.

난 최일병을 믿거든.”

아! 내가이제 그 말을 잊을 것인가 내가 어려울 때 목놓아 주면 형님같은 김○○병장님 지금 이 하늘 어디에선가 묵묵한 사회의 일꾼으로 생활하고 있겠지, 내가 지금껏 이 자리에 지 그가 그리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 글 쓴이 최태근 : 제 3591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중



만 남

〈신 경 수〉



만 남이란 것에 의하여 나와 나
는 타인의 형제에서 뜻을 같
이 할 수도 있고, 커다란 비문을 날
든 무의미한 존재로서 이 짧은 공간

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젊음의 열기가
승하고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운
명을 우정이란 짧은 남말을 이용하여

같이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냥 철부지로만 자라고 싶어하던 17세 된 나이에 나는 이곳 동문에 들어 서게 되었다.

200여명의 젊은 교사리 손을 불며 가입교를 받게 되었고 나에게도 친구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리고 있었다.

누구의 소개로 만났거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거나 우리는 언제나 친구라는 호칭이 붙게 마련이지만 나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복을 입어본 사람은 전부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정이라는 말보다는 전후애라는 것이 더욱 어울리는 존재로 형태를 굳혀 갔다.

가임로 동산에 훈련이 심한 남은 취침나팔이 울리고 난 후 어린 보라매들은 어재를 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로 했으며 거짓없는 웃음으로 서로가 간직한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에게도 전우

에 보다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형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나의 동기생들은 타 학교의 학생에 비해 사귀기가 힘든 존재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타 학교의 학생은 서로가 떨어져 지내고 참시똥한 만나 그들의 장정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기고생들은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음타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동기생과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다시 그 동기생의 모습을 듣게 되거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업사비 그 동기생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모순이 될 수 있을까하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아이러니컬 하다.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물체에 의하여 서로의 이상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하나로 만들 수 있게 이루어질 말일 것이다.

합리와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이상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우정이고 친구의 형태인 것이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후 나의 친구는 모두 떠나버렸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들보다 더욱 소중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잊지 못할 많은 친구가 생기게 되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동기생과, 음악을 좋아하는 동기생, 특수영어, 특수독하어 예술가 다임의 동기생, 강원도 감자마위 동생의 모든 동기생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승리와 약탈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며, 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의 동기생들이 곧 내인 것이다.

1995년, 이 3년이란 시간은 우리를 더욱 길하고 무한한 능력을 키워 주었기에 우리의 앞날 또한 무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동기생으로서의 전우애를, 친구로서 우정이란 두가지를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모두들 제각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며 부르는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며 땅을 울리고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말어진다는 것은 새롭게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하나의 줄타기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졸업의 눈물이 바글바글하는 날 더욱 높은 곳에서 만나 우리의 우정의 세를 만들어 우리없는 삶을 거부하고 다짐하는 나의 잊을 수 없는 동료는 생각만 해도 반가운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 동기생들이다.



△ 글쓴이 신경수 : 제 3131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남 중사분.



관 제 탑

☐ 보내는 사람

☐ 삼행시 짓기

이름:

공

계급:

군

소속:

전화:

지

☐ 200자 체언

공군의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의견,
제언,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원고 청탁

— 편집 후 기 —

- 세전에 히트한 유행가 중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가 있다.

'내 젊음의 빈 노트엔 무엇을 채워야 할까……'하는 마지막 후렴부들은 언제나 내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덜 없이 울려간 세월에 계몽산 입구·벚꽃은 또 한번 화사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쉬워하고 집집해하는 마음 중에 공군지는 이제 또 곳을 갈아 입는다. '멀리 여인의 옷벗는 소리'처럼 눈 내리는 계절이 오기전에 우리는 음모(?)를 암천하세 드러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움은 적려도 좋고, 질타도 좋고, 모욕도 좋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관심, 그 자체이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누군가는 말하지 않았던가……? (安)

- 어느 화가가 자신이 하는 일을 '짓거리'라고했다.

우리는 어떤 '짓거리'를 하며 중생을 하루를, 일생을 살아가는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것,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것, 쓸데없는 것…….

당신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짓거리'는 못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짓거리'라도 잘 하고 잘자.

돈을 벌고, 여장을 하며 그림을 보러가고…….

그리고 좀더 발전해서 「공군」과 「주간공군」에 원고를 투고하고 「공군창작전」에 작품을 출품하자 그래서 안에저의 추억의 '짓거리'를 만들고 떠나자! (劉)

공 군 제219 호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공군 인쇄창

발행일: 1992. 6.

글을 기다립니다.

空軍誌는 본기에 한 번씩 출간되는 공군 유일의 정반 교양지입니다. 결코 느리고 생각되는 일들을 원고지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문단에 데뷔한 작가들의 메끄럽고 아름다운 글보다는 진솔한 솔직한 이야기가 중량하게 배어나오는 당신의 글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모집부문 / 수기, 수필, 산문, 논문, 교양, 독후감, 지…….

- 응모자격 / 장병, 군무원 및 공군을 사랑하는 분

- 원고마감 / 매월 10일

- 보낼 곳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공군지 편집담당자 알

전화: 공군: 3532, 3534

서울: 506-3531~4

대전: 552-3531~4

“당신도 예술가”

지금은 장병 여러분의 예술감과 재능을 발휘 할 때 입니다.

뛰어난 기교와 기술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서 본 산하를, 훈련에 열중하는 동료 모습을, 군 생활에서의 느낌을 화폭에, 캔버스에, 카메라에 담아 보내주시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 창작기간 : '92. 3. 1~8. 20
- 공본출품 : '92. 8. 24~8. 31
- 공모대상 : 공군 전장병 및 군무원
- 공모부분 및 규격

부 문	한국화	서양화	서 세 사	진
형 식	구 상 추 상	구 상 추 상	한 문 화	일러·흑백
규 격	반절이상	20~60호	반절이상	11"×14"이상
비 고	선작품매자 및 요구완조			

- 작품내용 : 공군의 활약상 및 병영생활 내용. 기타 성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 시 상 : 각부분별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등 총 90여점

- 기타문의 : 공군(표) -3532, 3534
일반 (02) 506-3534, 3532
(042) 552-3532, 3534



